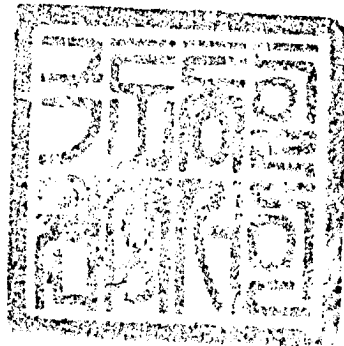


統一對話政策開發資料86-6

韓半島의 將來와 日本의 安全保障

—北韓動向을 中心으로—

1986 . 9 .



국 토 통 일 원
남북대화사무국

本 冊子는 日本의 平和安全保障研究所가
日本 防衛廳의 委託을 받아 作成한 報告
書를 統一對話 政策開發資料로 參考하기
위해 完譯 發刊한 것임.

머 리 말

이 報告書는 平和安全保障研究所가 1985年 防衛廳으로부터 研究調査를 委託받은 「韓半島의 將來와 日本의 安全保障—北韓의 動向을 中心으로—」의 成果이다.

最近 數年間 韓半島를 둘러싼 情勢는 한편으론 高潮되는 緊張에 대한 不安과 또 한편으로는 安定化에 대한 조짐이 보이는 등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특히 北韓이 韓國의 國家元首를 暗殺하려 했던 과격한 테러行爲와 3者會談 提案에서 보여준 緊張緩和 指向이라고 하는 보기엔 矛盾된 것 같은 政策을 들고 나온 것은 韓半島의 事態判斷을 일단은 困難하게 만들고 있다.

이 研究에서는 이 點을 충분히 考慮하여 폭넓게 南北의 情勢를 眺望함과 동시에 특히 北韓의 內外政策 推移를 정확히 追跡, 앞으로 豫想되는 變化를 여러가지 角度에서 分析 檢討하고 同時에 韓半島의 將來가 日本의 安全保障에 미칠 影響에 관해 考察하였다.

이 調査研究는 神谷不二氏(慶應大學教授)를 中心으로 한 數名の 專門家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

1986. 5.

會 長 猪 木 正 道

目 次

第1章 金正日 後繼體制的 形成	3
I. 序 言	4
II. 金正日の 經歷과 權力基盤	5
III. 金正日の 現在の 權力狀況	15
IV. 金正日の 權威形成	17
V. 後繼體制 正統化의 이데올로기	19
VI. 結 論	21
第2章 金正日 後繼體制的 安定性和 그 將來	27
I. 序 言	28
II. 安定要因	28
III. 不安定要因	35
IV. 金正日體制的 將來	39
第3章 對中・對蘇外交의 展開	41
I. 對蘇外交의 새로운 展開	42
II. 對中外交의 安定的 維持	49
III. 北韓의 對中・對蘇 밸런스政策	54
第4章 對南關係의 展望	59
I. 第2次 對話時代의 開幕	60
II. 3者會談 提案과 그後의 平和攻勢	64
III. 량군 以後의 北의 變身指向	68

IV. 앞으로의 展望	72
第5章 北韓 軍事力의 評價	76
I. 序 言	76
II. 最近의 兵力推移	77
III. 軍의 組織	81
IV. 北韓軍의 特色	83
V. 最近의 두드러진 行動과 傾向	87
VI. 武器生産	89
VII. 中蘇로 부터의 軍事援助	90
VIII. 北韓軍事力의 綜合評價	91
第6章 經濟開放의 摸索	92
I. 序 言	92
II. 經濟의 現狀	94
III. 經濟開放化의 現狀과 展望	101
IV. 結 論	103
第7章 北韓의 姿勢變化와 日本의 安全保障	104
I. 序言 — 本 共同研究의 目的	105
II. 北韓의 姿勢變化	106
III. 두개의 見解	109
IV. 結論 — 日本의 役割	112

第1章 金正日後繼體制的 形成

〈 要 約 〉

金正日後繼體제를 評價하고자 할때 金正日의 權力基盤과 그 權威의 形成이라고 하는 두개의 視角을 가지고 客觀的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다. 第1의 視角은 金正日是 무엇을 權力基盤으로 하고 있는가, 그는 언제부터 權力形成에 着手했는가, 決定的인 地位를 언제 確保했는가, 그래서 現在의 權力狀況은 어떤가 하는 것이다. 第2의 視角은 金正日의 權力繼承을 어떤 형태로 正統化시키고 있는가, 北韓의 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과 權力繼承은 어떤 整合性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金正日是 1973年 9月의 黨中央委 第5期 第7次 全員會議에서 黨組織, 宣傳煽動擔當秘書에, 다음해 第8次 全員會議에서 政治委員으로 選出되었다. 이 두차례의 全員會議의 決定은 金正日後繼體제를 確立하는데 있어서 가장 重大한 契機였다. 그는 그 地位를 利用하여 黨組織을 權力基盤으로 만든 것이다. 동시에 宣傳煽動에 의해 大衆을 動員, 後繼에 反對하는 또는 消極的인 사람들을 追放하는데도 成功했다.

또한 金正日是 權力繼承을 正統化하는 手段으로서 傳統과 國際的 認知를 충분히 利用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金正日是 主體思想을 基礎로 한 指導者理論, 唯一指導體制, 繼續革命과 革命傳統이라는 理論에 의해서 權力繼承을 理論化하고 이데올로기 解釋權을 獨占하고 있다. 그 背後에는 北韓 내쇼날리즘이 存在하고 있고 金正日是 金日成과 함께 그 象徴이 되고 있다.

이러한 理由로 해서 金正日後繼體제에 挑戰하는 것은 困難하다. 그러나 金日成으로부터 金正日에로의 繼承은 카리스마적 리더쉽으로 부터 傳統的 리더쉽에로의 移行이다. 따라서 아버지 金日成과 동등한 權威를 金正日이 北韓內에서 確保

한다는 것은 無理한 일일 것이다. 그에 대한 挑戰은 西方側과의 接觸을 통해서 近代的 合理性에 눈 뜬 知識人이 政治集團을 形成했을때 비로서 可能할 것이다.

.....

I. 序 言

金正日에 대한 論議가 일어나고부터 이미 5年以上 經過했다. 그러나 그동안 北韓專門家를 包含해서 金正日에 대한 客觀的인 分析은 없었다. 대부분의 論議는 根據가 明確하지 않은 「情報」 또는 「憶測」이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따라서 金正日 또는 後繼體制에 대한 評價를 내린다는 것은 困難하다고 할 수 있다.

本論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金正日의 經歷을 밝혀 두고자 한다. 北韓이 發表한 公式文獻과 日本, 中國, 韓國의 資料를 根據로 해서 北韓이 그리고 있는 金正日像 및 그 特徵을 比較檢討코자 한다.

또한 金正日後繼體制를 考察하기 위해서는 그 權力基盤과 權力形成이 檢討되어야 한다. 金正일은 무엇을 權力基盤으로 하고 있는가, 언제부터 그곳에서 活動하기 始作했는가, 거기서 언제 決定的인 地位를 確立했는가, 또한 金正일을 둘러싼 現在의 權力狀況은 어떤가를 解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權力基盤의 形成과 함께 權威形成의 문제도 重要하다. 北韓人民이 金正일이 掌握한 權力을 받아 드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크게는 權威形成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權威形成은 하나는 正統性의 確立이라는 問題이며 또 하나는 이데올로기의 整合性 問題이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權力의 繼承을 어떤 方法으로 正統化시키려 하고 있는가,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理論化시키고 있는가가 檢討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視角을 통해서 金正日後繼體制의 安定性 및 問題點이 解明될 것이다.

II. 金正日의 經歷과 權力基盤

金正日의 經歷에 관해서는 종래 여러가지 憶測이 있어 왔다. 그러나 最近 北韓에서는 많은 「金正日傳」이 刊行되고 있어, 이것들에 의해 어느 程度 金正日의 經歷에 대해 알수가 있다. 동시에 「金正日傳」을 통해서 北韓은 人民에게 대해 指導者 金正日을 어떻게 說明하고 있는가도 알 수가 있다. 우선 北韓側의 資料에 의거하여 北韓의 金正日像을 再 構成해 보자.

- | | | |
|------------|---------|--|
| 1942. 2.16 | 새벽 | 白頭山 密林서 出生 |
| 45. 8 | (3歲) | 解放後 母 金正淑과 함께 歸國
父母와 함께 父 金日成의 故鄉 萬景台 訪問 |
| 46. | | 普通江 改修工事に 從事 |
| 48. 5 | (6歲) | 南北連席會議에서 金九와 만남. 金九가 金正日에게 感服 |
| 49. 9.22 | (7歲) | 母 金正淑 死亡 |
| 49.12.31 | | 金正日이 다니던 幼稚園先生, 園兒 및 父母를 自宅에 불러 金日成과 함께 新年을 맞다. 金日成은 金正日의 피아노에 맞춰 「兒童團의 노래」를 부름. |
| 50. 9 | (8歲) | 韓國戰爭時 慈江道 長德山으로 疎開 |
| 52.11.22 | (10歲) | 疎開中 萬景台遺兒學院 人民班 4學年에 編入 |
| 53. 7.27 | (11歲) | 後方의 萬景台革命學院에 在學, 그후 三石人民學校
(53.9) |

54. 2 平壤 第4人民學校 5學年 編入
54. 全國兒童文學作品 懸賞募集에서 詩 「우리들의 教室」
로 1등 入選 「兒童文學」6號에 掲載
54. 9 (12歲) 平壤 第1初級中學校
55. 8 (또는 9) 同 第2學年 時 學校少年團 委員長에 選出됨.
56. 全國學生美術展覽會에서 1等 入選, 題目 「乙密台」
57. 9 (15歲) 南山高級中學入學
58. 9 (16歲) 學校民青總會에서 「黨의 思想體系를 徹底하게 樹立하
기 위한 民青團體의 몇가지 課題에 대하여」를 報告
59. 1 社會主義國家의 綜合大學을 訪問, 留學을 要請받았으
나 거절
60. 9 (18歲) 金日成綜合大學 經濟學部 入學
61. 4 平壤紡織機械製作所에서 生産實習
62. 初 「現代帝國主義의 特徵과 侵略的 本성에 대하여」를
發表
- 60年代初 兵營生活
64. 3.18 (22歲) 卒業論文 「社會主義 建設에 있어서 郡의 位置와 役
割」
卒業後 黨中央委員會에 配屬
- 64.12. 8 金日成은 金正日의 映畫藝術의 實態報告를 받고 朝鮮
映畫攝影所에서 政治委員會 擴大會議를 開催
66. 5. 3 (24歲) 松林市 黃海製鐵所 訪問
- 66.10. 5 ~ 12 朝鮮勞動黨 第2次 代表者會議에서 黨內的 反黨 反革命

- 分子的 策動을 粉碎 暴露
67. 5. 4 (25 歲) 黨第 4 期 第 15 次 中央委員會議, 全國의 朝鮮勞動黨歷史研究室을 再編. 金日成同志 革命歷史研究室 圖錄을 편찬토록 指示. 各 研究室에 비치할 金日成의 石膏像을 빨리 製作하도록 手配
67. 6.13 社會主義下에서의 政治的, 道德的 자극과 物質的 자극의 問題, 速度와 均衡의 問題에 理論的 解答을 주기위해 科學·教育部門의 幹部를 召集하고 講演
67. 7 東海岸의 人民軍部隊 訪問
- 60 年代末 「親愛하는 指導者 同志」라고 불리어짐
70. 5 (28 歲) 金日成主義의 定式化를 構想
70. 第 5 次 黨大會를 앞에 두고 「金日成이란 活字를 크게 하도록 指示」
- 70.10 黨大會를 앞두고 金日成 밋지를 考案, 作成을 指示. 大會에 參席한 代表에 授與
71. 7 (29 歲) 革命歌劇 「피바다」를 創作指導
72. 6 (30 歲) 普天堡戰鬥勝利 35 周年記念行事를 組織
73. 初 3 大革命小組의 深化發展을 提起
73. 9. 4 (31 歲)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 第 5 期 第 7 次 會議에서 黨中央委員會 秘書로 選出
74. 2.11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 第 5 期 第 8 次會議에서 黨中央委 政治委員會 委員으로 選出, 黨의 唯一的 指導體制를 確立, 金正日의 唯一的 指導下에서 中央集權的으

로 黨活動을 實踐處理

74. 2.19 (32 歲) 黨宣傳活動家會議에서 金日成主義를 定式化, 論文「全社會의 金日成主義를 위한 黨思想教育 活動의 當面 諸課題에 대하여」
74. 3 金正日이 中央人民委員會 政令「革命的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誕生日 4月 15日을 民族最大의 祝日로 制定할데 대하여」를 提起하고 4月 10日에 公布, 14日 黨, 國家, 經濟機關 등 各部門 幹部會議에서 發表
- 74.3 스로간「生産도 學習도 抗日遊擊隊式으로」
스로간「3大革命, 모든것을〈速度戰〉앞으로」
74. 4.14 論文「全黨과 全社會에 唯一思想體系를 더욱 공고히 確立하자」
74. 5 旺載山 革命史蹟地의 建設指導
74. 5. 7 論文「우리黨의 報道, 出版物은 全社會의 金日成主義 化에 奉仕하는 威力있는 思想的 武器이다」
74. 8. 2 全國黨組織活動家 講習會 閉會式에서 演說「黨活動을 根本적으로 改善 強化하여 全社會의 金日成主義化를 힘있게 推進하자」
- 74.10 經濟事情이「특별히 좋았기 때문만은 아닌」狀態에서 70日間戰鬪 中央指導部를 設置, 스스로 陣頭指揮
75. 1. 6 「勞動新聞」論評「키신저는 強盜의 本性을 暴露했다」를 指示
75. 2 中央人民委員會가 共和國英雄稱號를 수여할 것을 決定

75. 3 (33歲) 旺載山革命史跡地 建設 第2次 指導. 3道の 20餘
 個 對象을 現地指導
- 75.4 ~ 5 新義州, 平城, 安州地區訪問, 平壤首都 建設을 指導
75. 6 東林地區 建設現場, 江原道の 各 農村을 現地指導
75. 6.23 殷栗鑛山의 大型 長距離 벨트콘베어를 現地指導
75. 7. 1 劍德鑛山을 現地指導하고 「3大革命의 붉은旗 獲得
 運動」을 組織
- 75.10 旺載山革命史跡地 建設을 第3次 現地指導
75. 革命歌劇 「黨의 참된 딸」 「密林아 말하라」 「꽃
 파는 처녀」 「金剛山의 노래」 등 創作指導
75. 末 스포간 「思想도 技術도 文化도 主體의 要求대로」
- 76.10 (34歲) 金日成主義와 從來의 勞動者階級의 革命思想을 對置
 시키고져 하는 偏向을 批判하고 兩者間 關係를 明白
 히 함.
- 76.12 3大革命 구룹의 活動을 擔當하는 黨中央幹部를 指導
78. 1 스포간 「自力更生의 革命精神을 높게 發揮하자」
79. 主體思想塔의 建立을 發議
79. 3 (37歲) 牡丹峰을 訪問, 金日成誕生 70周年을 祝賀하는 記念
 碑의 하나로서 凱旋門을 建立할 것을 構想
79. 가을 「숨은 英雄의 模範을 배우는 運動」을 發議
- 70年代 後半 全社會의 金日成主義化 方針을 提起, 70年代 中期
 부터 80年代의 初期까지 金正日의 指導에 의하여 建
 設部門이 비약적으로 發展

1980.10 (38歲) 第6次黨大會에서 黨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常務委員, 秘書, 軍事委員會 委員으로 選出, 唯一指導體制을 再 確認

다음 日本, 中國, 韓國의 資料로 부터 金正日의 經歷을 整理해 본다. 特히 北韓 資料와의 差異點을 重視했다. 다만 資料에 따라 經歷에 差異가 있는데 重複되는 경우도 있다.

1942. 2.16 蘇聯 사마르칸드에서 出生 (蘇聯名 스~라)
45.10 母親과 함께 歸國
48.9(10) 平壤南山學校人民班 入學
50-52(51-53) 中國吉林學院에 留學
52 北韓으로 歸國
53 萬景台 革命學院 (第1期) 卒業
58(59) 東獨空軍士官學校에 留學 (1年6個月)
60. 9 金日成綜合大學 政治經濟學部 2學年에 編入
64 大學卒業後 黨中央委員會 組織指導部 指導員
66 홍일청과 結婚, 護衛總局 勤務
68 黨宣傳煽動部 指導員
69 黨宣傳煽動部 副部長, 黨組織指導部 副部長
70 黨中央委 赴任, 藝術部長
71 홍일청과 離婚, 黨宣傳煽動部長
72.12 黨政治委員會에서 後繼者로 指名
73. 2 김혜숙과 結婚, 3大革命小組의 總責任者
73. 9 黨中央委員會 第5期 第7次 全員會議에서 組織・宣傳擔當秘

書, 政治委員 候補로 選出

74. 2 黨組織指導部長

이 두개의 金正日의 經歷中에서 注目할만한 特徵을 몇가지 지적할 수가 있다.

첫째, 金正日의 出生地가 北韓資料에서는 白頭山 密林으로, 日本, 中國, 韓國의 資料에서는 蘇聯 사마르칸드로 되어 있는 점이다. 1941 年末에는 金日成 등의 東北抗日聯合軍部隊는 滿州로 부터 시베리아로 越境하여 하바롭스크 近郊에 集合하고 있었다. 이 事實로 추측컨대 金正日의 母 金正淑도 이時期 前後에 蘇聯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金正日의 出生地가 蘇聯이라는것도 確實하다. 이러한 事例는 別途로 하고 北韓의 公式資料 가운데 金正日의 出生地를 白頭山の 密林이라고 發表하고 있는 事實에 注意하지 않을수 없다. 뒤에 說明하겠지만 金正日의 權威形成에 關聯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金正日은 金日成 등 革命第1世帶와는 對照的으로 正規의 教育, 특히 高等教育까지 받았다는 사실이다. 金正日은 幼稚園, 萬景台革命學院, 平壤第4人民學校, 第1初級中學, 南山高級中學을 거쳐 金日成綜合大學을 卒業하고 있다. 틀림없이 金正日은 北韓에서 正規의 教育을 받은 最初의 世代일 것이다. 한편 金日成은 舊滿州의 毓文中學을 中退했다고 한다. 哈爾濱工業大學을 卒業한 副主席 李鍾玉 등 數名을 除外하면 革命第1世代中에서 高等教育을 받은 人物은 없을 것이다.

또한 金正日은 이 教育課程 가운데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더불어 그 古典을 學習했음에 틀림없다. 金日成등 革命第1世代 가운데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正式로 배운 人物은 많지 않을 것이다. 革命第1世代는 滿州에 있어서의 抗日 빨치산 鬪爭 가운데서 혹은 1945年 解放後의 社會主義 建設中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배우고 그것을 實踐했다. 이런 過程에 있어서 그들의 體驗 가운데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朝鮮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應」시킨 主體思想이 생겨났다. 한편

金正日是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데올로기면에 있어서 實踐的인 革命第1世代 보다 體系的이며 理論的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金正日이 金日成보다 教條主義的이라 고 할 면이 있음도 否定할 수 없다.

세째로 金正日의 思春期로 부터 青年期에 이르는 時期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즉 1954 ~ 55년부터 1966 ~ 67年의 時期가 그것이다. 이 時期에 北韓은 金日成의 權力이 그리고 主體思想이 確立되고 있었다. 主體思想은 1955年 12月 28日, 黨의 宣傳煽動活動家 會議에서의 金日成의 演說 「思想活動에 있어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一掃하고 主體性を 確立하기 위하여」를 號시로 하고 있다.

그후 金日成은 外交面에 있어서 中蘇對立의 틈바구니에서 北韓의 自主性を 確保하고 동시에 國內政治面에 있어서 中蘇論爭과 연계된 國內派閥을 追放하고 權力을 完全히 掌握했다. 1966年 10月의 朝鮮勞動黨 第2次 代表者 會議는 金日成이 主體性的 確立을 宣言한 大會이기도 했다. 金日成體制가 確立되어가던 時期는 金正日의 思春期・青年期였으며, 그는 父親 金日成의 옆에서 이 時期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金正日은 「主體」의 重要性을 父親과 마찬가지로 認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換言하면 成長期의 體驗가운데에서도 主體性和 金日成體制를 維持해야할 必要性을 金正一은 배운 것이다. 金正日은 體質的으로 革命的이라기 보다는 保守的이다.

마지막으로 北韓內에서 金正日이 後繼者로 決定된 時期는 언제였던가 하는 것이다. 公式的으로는 1980年 10月의 朝鮮勞動黨 大會에서 金日成에 이어 第2位의 地位에 얹게 된 時點이다. 그러나 北韓의 指導者層이 金正日을 後繼者로 하자는 것 을 決定 또는 合意한 時期는 이보다 앞서였다. 그것은 金正日의 經歷에 관한 北韓의 資料 가운데도 또한 日本, 中國, 韓國側의 資料 가운데서도 알수가 있다. 北韓의 資料에 의하면 金正日은 1973年 9月 4日의 黨中央委 第5期 第7次 全員會議에서 黨秘書로 뽑히고 그 다음해 2月 11日의 第8次 全員會議에서 政治委員으

로 選出되고 있다. 이 두차례의 全員會議의 결정은 黨의 指導層이 金正日을 金日成의 實質的인 後繼者로서 承認한 것을 意味한다. 北韓側 資料는 第8次 全員會議가 金正日의 「唯一的 指導 밑에 中央集權的으로」 黨活動을 處理할 것을 決定하고 「黨의 唯一的 指導體制를 確立」했다고 評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日本, 中國의 資料에 의해서도 金正日是 1973年의 第7次 全員會議에서 組織·宣傳擔當秘書로 選出되고 있다. 金正日이 그 地位에 就任한 것은 北韓의 資料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當時의 資料에 의하면 黨組織 確立의 重要性이 強調되고 있으며 또한 金日成은 1974年의 新年辭를 비롯해서 많은 演說 가운데서 黨組織의 強化를 부르짖고 있다. 同時에 金正日是 1974년 이후 金日成主義에 관한 많은 論文을 發表함과 함께 3大革命小組運動등 많은 大衆運動을 發動시키고 있다. 金正日是 政治委員으로서 黨의 路線이나 政策決定에 直接 關與함과 동시에 組織·宣傳擔當의 秘書로서 黨組織의 確保 및 이데올로기 宣傳을 통해 大衆動員이 可能하게 되었던 것이다. 換言하면 金正日是 스스로의 權力基盤을 黨組織에 두고 그 正統性을 大衆에게 宣傳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金正日이 이 두차례의 全員會議에서 後繼者로서 承認된 것은 이미 그 時點에 있어서 金正日後繼에 反對하는 中央委員級의 幹部는 追放되었을 可能性이 높은것을 말하고 있다. 1974年 1月에는 全國의 里黨秘書를 모은 會合이 開催되어 金日成은 黨組織의 強化를 呼訴함과 함께 里黨秘書가 主體思想으로 武裝해서 그것에 反對하는 思想과 鬭爭할 것을 強調했다. 또한 같은해 7월 말에는 全國黨組織活動家 講習會가 열렸고 金日成은 편지를 보내고 金正日是 연설을 통해 黨組織의 強化와 幹部의 黨에 대한 忠誠을 要求했다. 이러한 것들은 後繼問題에 있어서 中堅幹部, 基層幹部가 承認했고 이것에 反對하는 分子와 鬭爭할 것을 金日成이 이들에게 要求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73年初부터 3大革命小組運動이 金正日의 發動에 의해 시작되고 있었다. 이 運動의 當初의 目的은 金正日의 後繼에 反對하

는 또는 적극적으로 支持하지 않는 中堅幹部, 基層幹部, 一般黨員 및 大衆을 索出하여 打倒하는 側面이 강했다고 생각된다. 이 運動 가운데 思想革命이 가장 重視되었던 것과 3大革命小組員이 全國各地에 派遣되어 「붉은 思想的 殘滓」를 가진 人物을 摘發한 일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4 年의 時點에서는 指導層보다는 中級 下級黨幹部 및 一般黨員이 金正日의 後繼를 承認하는 일이 問題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 金正日의 指導下에서 發動된 「70일간 戰鬥」 「速度戰」 「3大革命의 붉은旗 獲得運動」 등의 大衆運動은 한편으로는 大衆을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動員하여 그 支持를 獲得함과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金正日을 積極적으로 支持하지 않거나 消極적인 態度를 보이는 人들을 孤立化, 追放시켜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金正日이 黨組織・宣傳煽動部門에서 活動한 것은 1973 年의 第7次 全員會議 以後였던 것은 아니다. 中國側 資料에서도 金正日是 1964 年 大學卒業後 黨中央委員會의 組織指導部와 宣傳煽動部の 指導員, 課長, 副部長을 歷任하고 있다. 1966 年의 黨 第2次 代表者會議와 1967 年의 第4期 第15次 全員會議後 金正日是 組織指導部 또는 宣傳煽動部の 指導的인 地位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1960 년대말에는 金日成을 中心으로 하는 一部の 指導者層 가운데서 金正日을 後繼者로 한다는 意見이 一致했을 것이다. 第4期 第15次 會議에서 「唯一思想體系」가 確立되었다고 評價하고 있는것, 北韓側 資料는 1960 년대 말에 金正日을 「親愛하는 指導者」라고 현재 使用되고 있는 敬稱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당시 부터 金日成의 抗日革命傳統에 대한 學習이나 캠페인 活動이 強化된 點, 金日成 뿐만 아니라 金日成의 兩親이나 前妻 金正淑을 비롯해서 金日成의 家族에 대한 崇拜가 시작된 것도 이것을 暗示하고 있다. 抗日革命傳統學習이나 金日成의 家族에 대한 神聖化는 뒤에 說明하는 바와 같이 金正日에 의한 權力繼承을 正統化하기 때문이다. 金正日이 黨組織 또는 宣傳煽

動部門의 指導的 地位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의 權力基盤과 그 權威를 形成하는데 目的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Ⅲ. 金正日의 現在의 權力狀況

金正日의 權力基盤은 黨組織에 있었다. 그는 1980 년의 第 6 次 黨大會까지 黨 組織宣傳煽動擔當秘書의 地位를 利用하여 그 權力基盤을 擴大했다고 생각된다. 金日成을 위시한 黨指導部가 그것을 支援한것은 말할것도 없다. 따라서 第 6 次 黨大會도 金正日의 權力基盤이 完全히 確立되었음을 公式化하는 大會이기도 했다. 北韓이 第 6 次 黨大會를 「唯一指導體制를 再確認」했다고 評價하고 있는것은 이것을 뒷바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第 6 次 黨大會이후에 金正日을 둘러싼 權力狀況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金正日是 第 6 次 黨大會에서 中央委政治委員會 常務委員, 政治委員, 秘書, 軍事委員會 委員으로 選出되었다. 이것들을 兼任하고 있는 人物은 金日成 以外에는 없는 것으로 金正日是 名實共히 第 2 人者의 地位를 確保했다. 여기서 政治委員會, 秘書局, 軍事委員會의 構成을 보면 別表 1 과 같다.

다음으로 金正日의 後繼問題가 다루어질때 반드시 問題가 되는것이 世代問題이다. 따라서 第 6 次大會에서 選出된 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 政治委員會, 秘書局, 軍事委員會의 各委員(最近 選出된 者를 包含)을 分析해 봄으로써 世代問題를 檢討하겠다. 그러나 北韓의 指導者들의 經歷은 전혀 公開되어 있지 않아서 年齡, 出生地, 學歷 등은 분명치 않다. 따라서 世代의 基準으로 年齡을 使用할 수가 없어 朝鮮勞動黨의 第 몇 次大會에서 中央委員 또는 同 候補委員으로 選出되었나 하는것을 보아 世代를 分類할 수 밖에 없다.(別表 2 參照)

朝鮮勞動黨大會는 지금까지 여섯차례 開催되었다. 그러나 第 1 次大會때부터 中

中央委員으로 選出된 者가 現職에 남아 있는 數는 적다. 그 大部分은 解放前 金日成과 함께 滿州에서 抗日빨치산 活動을 한 소위 革命第1世代의 빨치산 그룹이다. 이 그룹은 結束力이 강하고 金日成 政權을 支持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60代後半 以上の 나이들이며 그 數는 작아지고 있다.

第2 그룹은 1970 년의 第5次 黨大會까지에 選出된 사람들이다.(以下 「第5次 黨大會그룹」이라고 略稱) 그 大部分은 第5次 黨大會 選出者들이며 現政權을 떠받치는 中堅層이며 따라서 實務官僚들이다. 特히 現行政職의 大部分이 이 그룹이다.

第3의 그룹은 第6次 黨大會以後 登場한 人物들이다. 이들은 1970 년대에 金正日이 黨組織・宣傳煽動擔當 秘書로서 黨務를 遂行하는 가운데 幹部로 발탁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別表2에서도 알수 있듯이 中央委員 候補委員의 약 1割은 여전히 빨치산 그룹이 차지하고 있다. 第5次 黨大會그룹과 第6次 黨大會그룹은 약 반정도의 숫자이다. 그런데 政治委員會, 秘書局, 軍事委員會에서는 그 비율이 一變한다. 黨의 路線・政策을 決定하는 政治委員會에서는 빨치산 그룹이 약 半數를 차지하고 있고 그 影響力이 여전히 강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사람수로 따져보면 第5次 黨大會그룹이 이들을 뒤따르고 第6次 黨大會그룹은 2割에 지나지 않는다.

黨政策을 現實적으로 執行하는 秘書局에서는 빨치산 그룹은 金日成 혼자 뿐이다. 過半數가 第5次 黨大會 그룹이다. 現實적으로 黨政策 遂行을 지탱하고 있는것은 第5次 黨大會 以前의 베테랑 官僚임을 알수가 있다.

人民軍을 指導하는 軍事委員會의 構成은 獨特하다. 빨치산 그룹이 半을 차지하고 있어 軍에 대한 그들의 影響力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政治委員會와 秘書局의 半을 차지하고 있는 第5次 黨大會그룹은 吳克烈 參謀總長 外 2名에 지나지 않는다. 逆으로 第6次 黨大會이후 選出者가 많다. 앞으로 빨치산그룹과 交代해 나가는것은 第6次 黨大會 이후 選出者들임에 틀림없다. 金正日의 影響力은

黨組織과 함께 軍部內에서도 크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는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軍事委員會에서 軍의 階級과 軍事經驗이 없는 者는 金正日과 李奉遠(經歴未詳) 뿐이다. 抗日 빨치산 鬪爭과 韓國戰爭을 指導하였으며 軍事經驗이 豊富하고 權威가 있는 金日成에 比較할때 金正日이 이에 못미친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다. 金正일이 軍部內에서 金日成과 같은 權威를 確立할것인지 대해서는 疑問의 여지가 있다.

Ⅳ. 金正일의 權威形成

金正일의 後繼問題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權力繼承의 正統化이다. 掌握한 權力을 存續시키기 위해서는 大衆이 權力의 正統性을 承認하는것이 不可缺하다. 이때문에 權力者는 大衆이 그 權力을 받아드리도록 象徵操作, 캠페인, 學習등의 工作을 행한다. 金正일이 1973년에 黨組織과 宣傳煽動擔當秘書로 就任한 것은 黨組織을 掌握해서 權力基盤을 충분히 함과 동시에 宣傳煽動工作에 의해 그 權威를 確立시키고자 하는 意圖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1980년 이후 金正일의 傳記가 다수 出版되었다. 이것은 그의 權威形成이 本格的인 段階에 들어갔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많은 金正日 傳記를 分析하므로 해서 權威形成의 特徵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들 傳記 序頭에서 金正일이 金日成家系의 革命的 血統을 받고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北韓에서의 金日成은 抗日빨치산鬪爭을 指導했고 日本帝國主義를 打倒했으며 朝鮮을 解放시킨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金日成은 朝鮮勞動黨을 創設하고 北韓에 社會主義를 建設했으며 韓國戰爭에서는 美帝國主義를 打破했으며 主體思想의 創始者이다. 이러한 빛나는 革命傳統은 金日成 뿐만 아니라 金日成의 父母, 妻를 비롯한 金日成 집안이 대대로 이어 왔음을 강조한다. 즉 金正일은 革命의 聖家族의 피를 繼承하고 있다고 說明된다. 이러한 革命의 血統에 대한 強調는

血緣關係를 重視하는 그들 社會에서는 극히 받아 드리기 쉬운 것이다.

둘째 金正日의 誕生神話이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北韓資料는 金正日이 白頭山에서 出生했다고 말한다. 또한 金日成도 1945 년말까지 滿州에서 抗日빨치산 鬪爭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 事實의 與否는 別途로 하더라도 金正日是 父 金日成이 滿州에서 抗日革命鬪爭을 하고 있는 중에 白頭山의 密林에 있는 野營에서 出生했다. 白頭山은 抗日빨치산들의 遊擊根據地가 있는 革命의 聖地이기도 하다. 金正日是 誕生後 女性빨치산들로부터 「白頭山의 별님」이라고 불리어졌다고 한다. 金正日의 誕生도 抗日革命傳統에 가득차 있는 것이다.

또한 金正日의 誕生에는 天地異變이 따랐다. 金正日이 白頭山의 密林가운데 있는 野營에서 새벽에 誕生했을때 「白頭山 山頂의 天地의 어름이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白頭山의 사슴떼가 울었다」고 한다. 여기서 「三國遺事」나 「龍飛御天歌」등의 그들의 史書를 想起할 必要가 있다. 「三國遺事」는 紀異에 있어서 「帝王이 태어날때에는, 符命(天命)이나 圖錄(瑞徵)을 받고 반드시 凡人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며 그런 연후에 비로서 큰 變化를 따라 大器를 잡고 大業을 成就……三國의 始祖가 모두 神異한 가운데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記述하고 있다. 金正日의 誕生은 天命과 瑞徵을 받은 朝鮮의 帝王이 出現한 것이 된다. 그의 誕生은 三國時代 以來의 그들의 傳統에 따르고 있다.

세번째 特徵은 金正日이 「큰 變化에 따라 大器를 잡고 大業을 成就하는」 非凡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이다. 많은 傳記는 誕生以來 金正日이 행한 非凡한 事蹟으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事蹟(때로는 奇蹟)을 행하는 金正日의 態度나 倫理感도 그들의 傳統文化를 따르고 있다. 즉, 主席 金日成에 대한 無限한 忠誠心(忠) 父親 金日成에 대한 두터운 孝行心(孝), 人民에 대한 깊은 慈愛(仁), 信義를 지키는 것(義), 넘쳐나는 才能(知), 非凡한 構想力과 行動力을 가진 大器(器)를 具備한 人物로 金正日을 構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 儒教를 背景으로 한 理想的인 東洋君主

像이다.

이러한 그들의 傳統에 뿌리를 둔 權威形成 以外에도 金正日後繼에 관한 國際的인 承認을 獲得하는 것을 통해서도 正統性を 確立코자 애쓰고 있다. 中國要人の 北韓訪問과 金正日과의 會談, 金正日の 訪中과 中國要人과의 會談등을 北韓에서 宣傳媒體를 통해 크게 부각시켜 權威形成에 한몫의 役割을 하고 있다. 또한 「人民日報」에 金正日の 論文이 紹介된 것은 그대로 北韓의 「勞動新聞」에 轉載되어 金正日の 理論家로서의 權威를 確立하는데 利用되고 있다. 이것은 中國 뿐만 아니라 蘇聯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主體思想을 높이 받든다고는 하지만 中蘇 등의 社會主義大國이 金正日을 後繼者로 承認하는것은 國內的·國際的 權威를 形成하는데 크게 寄與할 것이다.

이외에도 西方側이나 第三世界에서 主體思想을 研究하는 研究會가 金正日을 讚美하는 일, 南韓人民이 金正日에 대해 思慕한다는 등의 「事實」도 北韓의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다.

北韓에서는 金正日の 後繼를 正統化하기 위해 그들의 傳統과 國際的 承認이 動員되고 있는 것이다.

V. 後繼體制 正統化的 이데올로기

共產主義 國家에서 이데올로기 解釋權을 掌握하는 것이 正統性を 確立하기 위해 不可缺한 것임은 스탈린 이래의 指導者들이 大理論家로서의 地位를 항상 가졌다는 것으로 알수가 있다. 金日成도 主體思想의 創始者로서 이데올로기 解釋權을 獨占하고 있다. 金正日이 後繼者로서의 正統性を 確保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解釋權을 獨占하는 大理論家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金正日이 黨內에서 本格的으로 理論活動을 시작한 것은 1973년 秘書로 選出된

후로 보인다. 現在 北韓에서 金正日이 쓴 것으로 發表된 論文은 1973년 以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論文은 內容이 全部 公開되고 있지 않아 明確히 알수는 없으나 1973년 이후 金正日은 主體思想을 金日成主義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다. 1974년 2월의 黨宣傳活動家會議에서 金正日은 金日成主義를 正式化하고 唯一思想體系를 樹立했다고 評價되고 있다. 이것은 金正日이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金日成主義로 普遍化시켜 그 解釋權을 獨占했음을 말한다. 現在 北韓에서는 金日成을 主體思想의 創始者로, 金正日은 그것을 體系化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여기서 金正日이 말하는 金日成主義의 內容에 言及할 餘유는 없으며 後繼體制를 正統化하는 이데올로기를 간단히 紹介하는데 그치겠다.

金正日後繼體制를 正統化하는 이데올로기는 指導理論, 唯一思想體系, 繼續革命과 革命傳統이 주를 이루고 있다.

指導理論은 革命的 首領論이라고도 불리는데 指導者의 革命的指導를 重視한 것이다. 主體思想에서는 人民大衆을 社會歷史의 主體로 또한 社會發展의 原動力으로 把握한다. 그러나 人民이 歷史發展의 主體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指導가 필요하다고 한다. 黨과 指導者의 올바른 指導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것에 따라 革命的 任務의 遂行 與否가 決定되고 마는 것이다. 이 경우 指導者는 特定한 人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人民이 社會發展의 主人이 되기 위해서는 金日成, 金正日의 올바른 指導가 不可缺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음으로 唯一思想體系라는 것은 全黨을 指導者의 思想, 즉 主體思想으로 武裝化하는 것을 말한다. 金正日은 唯一思想體系를 「思想과 指導의 唯一性」을 確立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또한 指導者는 全黨의 組織的 思想의 體現者이며 全黨은 指導者의 唯一的 指導를 철저히 實現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現在 北韓에서는 金日成=金正日 이외에는 指導者가 存在하지 않으며 그 指導는 絕對的이라고 말하고 있다. 唯一思想體系는 1970년의 第5次 黨大會에서 確立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現在 黨의 基本路線이 되어 있다.

北韓에서는 現在에도 繼續 革命論이 거론되고 있다. 金正日是 社會主義制度가 樹立된 후에도 사람들의 머리에는 낡은 思想的 殘滓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鬭爭을 繼續하지 않을수 없다고 強調하고 있다. 또한 帝國主義가 存在하고 韓國이 統一되지 않은 現狀에서 革命을 擁護하기 위해서는 「反動的, 反革命的 思潮에 反對하고 용서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革命의 繼續은 동시에 抗日 빨치산鬭爭이래의 金日成의 革命傳統 「革命的 命脈」을 繼承해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指導理論, 唯一思想體系, 繼續革命과 革命傳統의 繼承이라는 理論으로 부터는 어느 程度의 思想의 多樣性を 容認하고 集團指導體制를 취한다고 하는 論理는 생겨날수가 없다. 金日成의 革命傳統을 唯一하게 繼承할 수 있는 金正日 以外에는 指導者도 思想도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Ⅵ. 結 論

金正日是 스스로 「오늘 우리 黨內에는 黨을 永久히 主體型的 革命的 黨으로서 發展시키는 強固한 組織的・思想的 基礎가 놓이고 全體의 革命偉業을 훌륭히 繼承 發展시킬 指導體制가 確立되었다. 이것은 金日成同志에 의해 열려진 革命偉業을 代를 이어 최후까지 完成시키려는 確固한 保證이 마련되었음을 意味한다」고 自信있게 말하고 있다. 1980 년의 第6次 黨大會後, 金正日是 金日成 體制를 繼承할 수 있는 權力基盤과 權威를 完全히 確立했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金正日이 이렇게 自信을 가지고 斷言하는 理由는 黨組織을 10년 가까이 掌握하고 黨內 및 大衆에 대한 이데올로기 宣傳工作을 통하여 大衆을 動員하는데 成功했기 때문이다. 金正日이 黨組織과 宣傳煽動 工作을 掌握한 것은 1973 년의 第5期 第7次 全員會

議에서 黨組織 宣傳煽動擔當의 秘書로 就任하고부터 이다. 그는 1960년대 後半부터 이들 位置에서 活動하고 있었기 때문에 黨組織을 掌握하는것도 쉬웠을 것이다. 레닌 死後 스탈린이, 또한 스탈린 死後 후르시초프가 黨組織을 權力基盤으로 하여 權力을 掌握했던 사실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또한 金正日의 權力形成에는 그들의 傳統과 國際的 承認을 動員한다고 하는 獨特한 方法이 취해지고 있다. 이데올로기상의 說明도 指導理論, 唯一思想體系, 繼續革命과 革命傳統繼承 등의 극히 獨自的인 理論에 의해 推進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傳統文化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내쇼날리즘이다. 金正日後繼體制를 正統化하는 論理의 背後에는 내쇼날리즘이 存在하고 있다. 金日成 뿐만 아니라 金正日에 대한 崇拜는 北韓내쇼날리즘을 象徴化하고 있는 側面이 있는것이다.

이상 列舉한 事實이 金正日後繼體制에 대한 挑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體制로부터 金正日體制에로의 移行은 카리스마적 리더쉽에로의 轉換이다. 따라서 金正日이 金日成과 同等한 權威를 갖는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北韓에서 이後繼에 疑問을 갖는다고 한다면 近代의 合理性에 눈 뜬 知識人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政治的集團을 形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現在로서는 疑問이다. 將來 西方側과의 接觸이 增大되었을 때 이 문제는 深刻해 질지도 모른다.

別表 1

略號 Par : 빨치산 그룹	6-10 : 第 6 期第 10 次全員會議에
5-C : 第 5 次黨大會中央委員	서 選出
(5-A): 同候補委員	P-1 : 政治委員 第 1 位
6-C : 第 6 次黨大會中央委員	(P)-1 : 政治委員候補委員 第 1 位
Ind : 解放前獨立運動從事者	S-1 : 秘書 第 1 位
6-9 : 第 6 期第 9 次全員會議에서 選出	M-1 軍事委員會 第 1 位

〈常務委員會・政治委員會〉

黨規約 25

黨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와 同常務委員會는 總會에서 總會까지의 사이 黨中央委員會의 이름으로 모든 活動을 指導한다. 必要時에는 黨의 人事 및 當面問題 등 黨內問題를 採擇 決定한다.

1. 金日成	主 席	Par	S-1	M-1
2. 金正日		6-C	S-2	M-2
3. 吳振宇	人民武力部長	Par		M-3
4. 姜成山	總 理	5-C		
5. 朴成哲	副 主 席	Par		
6. 林春秋	〃	Par		
7. 李鍾玉	〃	(Par)		
8. 徐 哲	檢閱委委員長	Par		
9. 延亨默	第一副總理	5-C		
10. 金永南	外交部長・副總理	5-C		
11. 許 鈇	黨對外連絡部長	5-C		
12. 吳克烈	人民軍總參謀長	5-C		M-4
13. 崔英林	黨組織指導部長	5-C		
14. 金 渙		6-C		
15. 白鶴林	社會安全部長	Par		M-6
16. 徐允錫	平壤市黨責任秘書	6-C		

〈秘書局〉

黨規約 26

幹部事業을 비롯, 黨의 內部活動에 관한 問題와 其他의 實務的 問題를 隨時 討議決定하며 그 決定을 組織 指導한다.

1. 金日成	總 秘 書	Par	P-1	M-1
2. 金正日	、事業全般	6-C	P-2	M-2
3. 延亨默	經 濟	5-C	P-9	
4. 許 鈇	統一戰線	5-C	P-11	
5. 安承鶴	經濟(輕工業)	5-C	(P)-1	
6. 金仲麟	對南工作	Ind	(P)-6	
7. 黃長燁	이데올로기	5-C		
8. 許貞淑	勞動團體	Ind		
9. 徐寬熙	農 業	6-C		
10. 蔡希正	經濟(計劃)	5-C		
11. 朴南基	〃 (重工業)	6-9	全員會議(7/6/84)	
		6-10	(12/4/84) 秘書	
12. 金勇淳	外 交	6-C		

〈軍事委員會〉

黨規約 27

黨의 軍事政策을 貫徹시키는 對策을 討議決定하고, 人民軍을 비롯해 武力 全般을 強化시켜 軍需生産을 發展시키는 事業을 指導해서 우리나라의 武力을 統割한다.

1. 金日成	委員長・元帥	Par	P-1	S-1
2. 金正日		6-C	P-2	S-2
3. 吳振宇	次帥・人民武力部長 軍總政治局長	Par	P-3	
4. 吳克烈	大將・總參謀長	5-C	P-12	
5. 全文燮	上將	Par		
6. 白鶴林	上將・社會安全部長	Par	P-15	
7. 金斗南	中將	6-C	(P)-13	
8. 金江煥	//	6-C	(P)-15	
9. 太炳烈	//	Par		
10. 李乙雪	大將	Par		
11. 朱道日	//	Par		
12. 李斗益	//	Par		
13. 趙明錄	上將・空軍司令官	6-C		
14. 金鎰喆	//・海軍 //	6-C		
15. 崔相旭	中將	6-C		
16. 李奉遠		5-C		
17. 吳龍訪	中將	6-C (5A)		

別表 2

(85 年 11 월 현재)

區 分	빨치산그룹	第 5 次黨大會以前	第 6 次黨大會	計
中央委員會 委員	21 명 15 %	66 명 45.5%	58 名 40 %	145 名
“ 候補委員	3 명 3 %	52 명 47.7%	54 名 50 %	109 名
小 計	24 명 9.4 %	118 명 46 %	112 名 44 %	254 名
政治委員會 委員	7 명 44 %	6 명 37.5%	3 名 19 %	16 名
同 候補委員	3 명 19 %	8 명 50 %	5 名 31 %	16 名
小 計 (1)	10 명 31 %	14 명 44 %	8 名 25 %	32 名
秘 書 (2)	1 명	7 명 58 %	4 名 33 %	12 名
軍事委員會委員(3)	8 명 47 %	3 명 18 %	6 名 35 %	17 名
(1) + (2) + (3)	16 명 32 %	20 명 40 %	14 名 28 %	50 名

第2章 金正日 後繼體制의 安全性과 그 將來

〈要 約〉

金日成은 金正日에게 權力을 移讓한후 安全을 確實히 保障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고 慎重하게 일을 進行시키고 있다. 그는 자기가 스탈린의 權威를 등에 업고 權力鬭爭에 이긴 經驗을 되살려 자식을 자기의 絕對的인 權威의 唯一한 繼承者로 指名했다. 그리고는 이것을 補強하기 위해 金正日을 더없는 愛國的 家系の 血族을 이어받은 非凡한 人物이라고 宣傳하고 있다. 이것이 外部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北韓과 같은 閉鎖社會에서는 新體制를 定着시키는 無視할 수 없는 效果를 發揮한다. 또한 金正日是 「3大革命小組」運動을 통하여 自己의 人脈을 形成시키고 이것이 그의 體制를 안에서 떠받치는 支柱로 作用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外交的으로는 金正日後繼體制에 대한 中·蘇의 「承認」이 그 安全性에 影響을 미칠 것이다.

父親의 그늘아래서 權力에 가까이 간 金正日是 權力鬭爭의 와중에 휩쓸려 늘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 다만 北韓은 엄격한 統制社會이며 體制를 흔들어버릴 정도의 混亂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北韓의 經濟는 繼續 不振하고 있으며 韓國과의 經濟隔差가 앞으로도 계속 擴大되면 金正日體制는 곤란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1988年의 서울 올림픽에 中·蘇를 包含한 共產圈諸國이 參加한다면 金正日是 內政·外交가 함께 괴로운 立場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對應이 주목된다.

金正日이 金日成의 生前에는 그의 地位를 正式으로 繼承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權力繼承後에는 젊은 視覺으로 現實을 直視하면서 南北共存의 길을

摸索할 것으로 생각된다.

I. 序 言

第2次大戦前後의 時期 한 나라의 最高指導者의 자리를 차지한 후 長期間에 걸쳐 그 位置를 지킨 政治家는 全世界를 통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1980年 5월에 유고의 티토大統領이 死亡하고 또한 1985年 4월에 알바니아의 훗자 勞動黨 第1書記가 죽고 나서는 北韓의 金日成은 現存하는 世界의 最長期政權을 누리 고 있는 指導者이다. 지금으로는 政權擔當期間에는 훗자에 약간 못미치지만 그를 추월하여 記錄을 更新하는 것은 時間 問題이다.

北韓의 人民은 같은 社會主義圈의 東歐諸國民과 같은 議會制民主主義 내지 資本主義 政治體制의 經驗이 없다. 더 나아가 1945년 이래 40년에 걸친 金日成政府의 獨裁的 支配의 永續性和 強度는 그들로 하여금 諸外國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과 같은 指導者의 交代라고 하는 節次는 그들에게는 該當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릴 程度로 되어 있다. 金正日 後繼體制의 現在 및 將來의 安全度를 檢討하는 것은 北韓이라고 하는 극히 閉鎖的, 獨裁的 그리고 全體主義的인 國家體制 안에서의 問題로서 이것을 다루어야 함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II. 安定要因

北韓은 1970년대의 시작부터 치밀한 準備下에서 漸進的으로 金正日의 權力 移讓을 精力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이 새로운 運動이 때에 따라 既存秩序와의 사 이에 摩擦을 일으킬 것은 당연히 豫想되는 일이며 事實 다음에 설명하듯이 그러한

情報도 있다. 그러나全體로서는 이 國家的 努力이 金正日體制에로의 원활한 移行과 定着, 나아가서는 將來의 安定化의 方向으로 作用할 것은 確實하다.

1. 既存權威의 繼承

1945년 10월 蘇聯軍과 함께 北韓에 歸還한 金日成이 國內의 政治基盤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不利한 條件을 克服하고 權力을 掌握, 라이벌을 除去하면서 그것을 굳게 다진 過程은 어리면서도 權力의 頂上에 急浮上한 金正日에게는 다시 없는 教訓이 되고 있음에는 틀림 없다. 오늘 金正日의 後繼過程을 보면 父親의 經驗과 手法을 그대로 따른 것이 나타난다. 그중 最大의 것은 이미 確立되어 있는 權威의 繼承者를 自任하는 것이다.

金日成의 경우 初期에 가장 믿었던 것은 蘇聯占領軍이었으며 그 背後에 있는 스탈린의 絕對的인 威嚴이었다. 예컨대 1952년 4월 10일의 「勞動新聞」에 掲載되었던 「金日成將軍 略傳」은 長文의 末尾를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朝鮮人民이 偉大한 스탈린의 弟子—스스로 敬愛해 마지 않는 指導者 金日成 將軍의 指導아래 祖國統一과 自由와 民族獨立을 위한 鬪爭에 있어서 終局의 勝利를 奪取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도 疑心할 餘지가 없다.

英雄的인 朝鮮人民은…全世界 勤勞人民의 偉大한 指導者 스탈린 大元帥의 忠實하고, 강하고, 賢明한 弟子의 한사람인 金日成將軍을 한없는 忠誠心을 가지고 熱烈히 사랑하고 指導者로 우러러 본다.(金日成選集刊行委員會編譯, 「金日成選集」 第1卷, 三一書房, 1952, p.303)

이와같이 당시 이미 「人類的 太陽」이라고 불리며 尊敬을 받는 스탈린의 權威를 利用함으로써 다른 라이벌의 權力에 대한 挑戰을 封鎖했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金正日是 金日成의 權威에 全面的으로 依存하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 金日成의 威嚴은 絶頂에 달했고 權力의 絶對化가 이미 完了되었다. 따라서

오늘도 변함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이상할 程度의 金日成崇拜 캠페인은 金日成 自身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지나친 側面이 있다. 이것을 金正日後繼體制와 關聯시켜서 포착하지 않으면 北韓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奇行－金日成뱃지의 全國民的 着用, 莫大한 資金과 努力을 投入한 「主體思想塔」이나 「凱旋門」등의 非生産的인 建造物의 建立－은 金日成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權力繼承후 자식의 體制의 安定性을 높이고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苦心의 한 고리라고 볼 수가 있다.

2. 聖스런 家系의 後裔

金日成의 傳記는 金日成을 더 할 수 없는 愛國的 家系의 出身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客觀的인 뒷받침이 없는 主張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르면 金日成의 曾祖父는 1866년 大同江에 들어온 美國 軍艦 「제너럴 샤만」號를 擊沈시킨 싸움에서 「偉勳」을 세운 愛國者였으며 祖父나 祖母역시 侵略者와 싸운 愛國者였다.

또한 그의 父 金亨稷과 母 康盤石은 당시 이미 先驅的인 마르크스·레닌主義 革命家였으며 愛國者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家系美化는 直系에 그치지 않는다. 金日成의 叔父 金亨權을 위시하여 두사람의 동생, 外祖父와 外伯父 등도 모두 反日革命鬪士, 革命的인 教育者, 愛國者였다고 記述하고 있다.(「金日成略傳」, 平壤 外國文出版社, 1972, p. 1~12)

金正日의 경우는 어떤가 하면 金正日을 聖스런 家系에 올리는 캠페인을 北韓은 이미 시작했다.

먼저 父系를 보면 金日成이 실제로는 전혀 無名의 人物 金亨稷의 아들인 것에 비하여 金正日은 血族的으로 恩惠가 넘치는 정도의 有利한 條件을 갖추고 있다. 問題는 母系이긴 하나 生母 金正淑의 神聖化 作業도 다음과 같이 이미 시작하고 있다.

金正淑은 게릴라 時節의 金日成과 結婚, 1949년에 죽은 金日成 前妻이나 1981년 8월 17일 北朝鮮中央人民委員會는 金正淑의 革命偉業을 기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決定한 바 있다.

- (1) 兩江道新坡郡을 金正淑郡으로 (改稱)
- (2) 兩江道新坡邑을 金正淑邑으로
- (3) 新坡女子高等中學校를 金正淑女子高等中學校로
- (4) 惠山第2師範大學을 金正淑師範大學으로

(「朝鮮中央年鑑」 1982년, p. 83-84)

이러한 父母사이에서 태어난 金正日의 誕生이야기가 神秘性을 띠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今年 2월 16일 金正日의 44세 生日을 맞아 在日朝鮮人總聯合會 常任委員會가 보낸 祝賀文에는 다음과 같은 讚辭가 보인다.

白頭山 密林의 草木도 歡喜에 넘쳐 속삭이던 1942년 2월 16일, 英明한 指導者 同志의 誕生은 偉대한 首領님의 革命偉業을 萬世에 비추는 嚮導의 별을 맞은 一大 民族的 慶事였으며 祖國의 靑史와 人類의 歷史에 金文字를 새기는 意義깊은 事變이었습니다.(「朝鮮新報」, 朝鮮語版, 1986.2.16)

金正日의 高祖父에서 始作되는 앞에 說明한 神話的인 家系이야기는 金日成政府의 初期에는 없었던 것이며 金日成의 出生이나 經歷에 대하여 經驗的으로 疑問을 품었던 解放時代의 中老年層이 점차 社會의 舞臺에서 사라지는 것과 때를 맞추어 1960년대에 「發掘」되어 지금은 北韓에서 結實化되고 있다. 그로부터 이어 20년이 지난 오늘 北韓의 킹 메이커 (king maker) 들은 더욱더 自信을 가지고 非凡한 血統을 이어 받은 金正日 神話を 새로이 만들어 내어 體制의 安定을 圖謀할 것이 틀림 없다.

3. 人脈의 形成

金日成이 世代交替의 構想을 처음 내놓은 것은 1971년 6월 24일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第6次大會에서 행한 演說을 통해서였다. 「青年은 代를 이어 革命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題目의 이 演說가운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革命은 계속되고 世代는 끊임없이 갈립니다. 革命의 標的은 변하지 않지만 世代는 바뀌며 벌써 解放後에 자라난 새로운 世代가 우리나라 社會의 主人으로서 登場하고 있습니다. 成長하는 새로운 世代가 革命을 계속해야만 革命의 代를 이어갈 수 있으며 우리들의 神聖한 革命偉業을 完遂할 수가 있습니다.

(「金日成著作選集 6」, 朝鮮語版, p.62~63)

이러한 金日成의 世代交替에 대한 認識은 2年後였던 1973년 2월에 「3大革命小組」를 組織하여 全國의 主要 工場과 農場에 파견함으로써 具體化의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金正日を 頂點으로 하여 組織된 이 集團의 規模는 1小組가 20~50명, 總計 「數萬名」(金日成)이라고 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任務는 工場이나 農場에 내려가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을 強力히 推進시켜 現場의 古參幹部들의 保守主義, 經驗主義와 싸워 그것들을 根絶시키라는 것이었다. 이 未熟한 青年그룹과 現場幹部사이의 摩擦이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나 3大革命小組는 黨 中央委員會 直屬組織이었기 때문에 地方機關이나 企業의 幹部가 正面으로 抵抗할 수 있는 相對가 아니었다. 한때 韓國이나 日本 등의 西方側 一部에서는 金正日體制가 金日成體制에 對立하여 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觀測까지 있었다. 1983년 10월 北韓 軍人들에 의한 량군爆發테러事件의 動機에 대해서 이것을 金正日의 擡頭에 따른 指導部 內部的 權力鬭爭의 表出, 다시말하면 金正日이 代表하는 젊은 強硬派의 짓이라고 보는 見解가 한 예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二元論的 見解는 물

론 잘못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3大革命小組 活動은 金日成에 의해 수차 支持・稱讚을 받았다. 예컨대 1982년 4월 14일의 黨中央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의 合同會議에서의 演說을 통해 金正日이 中心이 되어 推進중인 3大革命이야말로 社會主義에서 共產主義로의 移行을 達成하기 위한 새로운 基本方法이라고 말했으며 共產主義란 人民의 힘 프라스 3大革命이라고까지 斷言했다(「勞動新聞」, 1982.4.15). 金正日後繼體制的 確立過程에서 나타난 興味깊은 特徵의 하나는 金日成의 公公然한 支持下에서 그가 長期間 構築해온 既存體制를 解體하고 破壞하는 側面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金正日是 大量的 젊은 幹部候補를 發掘하고 자기에게 忠實한 人材를 育成함과 동시에 그들을 착착 要所要所에 配置하여 世代交替를 이루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人脈이 將來의 金正日體制를 떠받치는 骨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4. 中・蘇의 承認

金正日是 1983년 6월 2일부터 10일에 걸쳐 中國을 非公式 訪問하고 鄧小平을 비롯한 中國 首腦와 會談하고 北京과 杭州를 視察했다고 한다(吉田正也,「金日成書記의 訪中の 意義」, 코리아評論社, 1983.9月號). 또한 1984년 9월 24일에는 슈브니코프 平壤駐在 蘇聯大使와 會見했고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平壤을 訪問한 카피차 蘇聯 外務次官과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金正日의 外交活動은 內政面에서의 움직임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다. 1982년 2월 15일 北朝鮮人民委員會는 金正日의 40세 生日을 맞아 두 번째의 英雄稱號를 주었는데 그 授與理由로서 主體思想, 黨, 經濟, 文化, 軍事 등 內政分野에서의 貢獻만을 열거하고 있고 對外關係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言及이 없

다. 이것은 2개월후 金日成에게 같은 稱號를 주었을 때 國際的 功績을 言及한 것과 明確히 다르다 (「朝鮮中央年鑑」, 1983, p.186~187).

자주 論議되고 있듯이 만약 中·蘇 兩國이 公式招請 등을 통해서 後繼者로서의 金正日을 「承認」한다면 물론 그것은 國內基盤 다짐에 크게 프라스가 될 材料가 될 것이다. 달리 表現한다면 中·蘇에 의한 金正日의 「承認」이 그의 體制構築을 左右할만한 基本要件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中·蘇 兩國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關係없이 最終的으로는 金正日의 權力繼承을 承認하지 않을 수 없다는 結論과 關聯이 있다.

中·蘇 兩國으로서의 權力의 世襲이라고 하는 社會主義國家에 있을 수 없는 이 行爲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原理에 背馳되며 東方陣營 全體의 이미지를 損傷시킨다는 점에서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本質的으로 北韓의 內政問題이며 自國의 國益에 直接 關係가 없는 이상 中國이나 蘇聯이 北韓과의 關係를 緊張시키면서까지 그것을 反對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北韓이 中·蘇 사이에서 교묘한 밸런스 外交를 展開하고 있는 狀況下에서는, 더욱이나 北韓의 內政問題에 대해서 싫은소리 하기가 어려운 것이 現實이다.

이 「承認」問題가 오늘날 中·蘇를 비롯한 社會主義諸國과의 사이에서 外交的 이슈로 登場하지 않는 것은 한 나라가 두개의 얼굴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오로지 北韓의 權力移讓 스케줄의 정도에 의한 것이다. 北韓과 같은 閉鎖社會에서는 指導者의 國際性이 그 自體 重要한 政治的 要因이 아니며 또한 國民의 이미지 操作이 얼마든지 可能한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지금까지의 一部 論議가 「承認」問題에 지나치게 力點을 두는 傾向이 있었다고 생각된다(예를 들면 鄭鎮謂, 「中國·蘇聯과 朝鮮半島」 「國際問題」, 1983. 8月號).

어느 時期가 到來하여 金正日이 正式으로 最高指導者에 就任한다면 中·蘇 兩國으로서의 그것을 追認할 수 밖에 없다. 그때까지 兩國은 서로 相對를 意識하면

서 後繼政權과의 關係를 더욱 親密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적어도 더 疎遠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金正日에게 友好的 싸인을 보내면서 서서히 그 程度를 強化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金正日이 이것을 自己의 國際的 名聲의 證據로 해 權力基盤을 強化시켜 나갈 것도 自明한 일이다.

Ⅲ. 不安定要因

金日成은 아들에게 權力을 원활히 移讓시키고 後繼體制가 自身의 死後에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國家的 努力을 傾注하고 있는 것이 確實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不安定 要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點을 檢討해 보자.

1. 權力鬭爭

金正日에게 있어서 無視할 수 없는 不安한 材料의 하나는 新體制에 不滿을 품은 既成幹部들의 反抗과 이것을 發端으로 하는 權力鬭爭이다. 이것은 上部(中央)와 下部(地方)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겠지만 北韓의 경우 問題가 되는 것은 항상 上部이다.

金日成은 일찍부터 北韓에서 權力을 掌握하고 그것을 維持 強化하기 위해서 政治的 라이벌과의 激烈한 權力鬭爭을 이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政敵이 아니더라도 權力을 둘러싼 競爭者라고 생각된 人物들, 朴憲永, 武亭, 吳琪燮, 金料奉들은 차례로 숙청되었다. 또한 1956년 8월에는 崔昌益(副首相), 尹公欽(商業相), 朴昌玉 등의 反抗事件이 表面化되어 金日成은 이를 制壓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젊은 金正日에게는 金日成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다. 또한 金日成의 死後에 獨力으로 指導性を 어느정도나 發揮할 수 있을 것인지도 未知數이다. 더우기 權力이 70代의 金日成으로 부터 一舉에 40代의 金正日에게로 引繼가 되기 때문에 50代, 60代의 中堅幹部는 追越을 당하고 말았다. 이들이야말로 建國의 時期에서 부터

韓國戰爭의 困難한 時代를 金日成과 함께 살아남은 世代인데 이렇게 疎外당하고 職場을 3大革命小組에게 짓밟힘을 당한 不滿은 당연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틀림없이 個人的 내지 局部的으로 金正日體制에 反抗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北韓과 같이 高度로 組織化되고 統制가 심한 閉鎖社會에서는 이러한 不安要因은 일찍 發見되고 摘發되어 體制基盤을 威脅할 수 있을 程度로 擴大되기는 어려운 事實이다.

韓國側 消息에 의하면 1972년에서 75년에 걸쳐 「南北調節委員會」의 平壤側 副委員長을 맡았던 柳章植과 黨 政治委員 李用茂는 金正日의 後繼에 反對하여 1975년과 77년에 각각 失脚하여 思想犯收容所에 들어갔다고 한다(「北韓〈穩城思想犯集團收容所〉의 全貌」, 1982, p.10~11, 筆者나 出版社 不明).

1985년 11월 14일자 「勞動新聞」社說은 「社會主義制度를 誹謗 中傷하는 敵의 策動에 높은 階級的 自尊心, 鞏固한 革命的 原則을 가지고 맞서 나아가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또한 그해 말에는 社會安全機關 創建 40周年記念 祝賀行事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體制에 反對하는 어떠한 작은 움직임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警告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勞動新聞」, 1985.12.26).

2. 經濟問題

慢性的으로 不振하다고 전해지고 있는 北韓의 經濟問題는 여전히 低調한것 같다. 1986년을 맞이하는 金日成의 「新年辭」는 전해에 이어 經濟實績에 대한 數字를 전혀 내세우지 않았다. 國家의 威信을 상하게 하는 外債未拂의 問題도 아직 解決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이 經濟停滯가 一過性인 것이 아니고 技術革新의 落後와 生産性的 低調, 外貨不足 등 北韓經濟의 構造的 缺陷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問題가 심각하다. 만약 北韓이 適切한 對策을 세우지 못하고 經濟의 混迷狀態가 앞으로도 繼續되어 韓國과의 經濟隔差가 더욱 넓혀진다고 한다면 金正日의 後

繼體制의 安定에 惡影響을 미쳐, 狀況에 따라서는 體制基盤을 흔들 수도 있다. 當面한 關心事는 北韓經濟의 停滯가 金日成과 金正日이 콘트롤을 不可能케 할 程度로 深刻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긴 하나, 經濟問題에 限定해서 얘기한다면 남쪽과의 競爭 내지 比較의 問題이기 때문에 韓國經濟의 現狀과 將來가 直接 聯關이 있다.

韓國經濟는 1985 년도에도 비교적 높은 成長(推定 5%)을 持續, 더우기 1986 년도에는 7%의 成長이 豫想되고 있다(1985년 12월 14일 韓國經濟企劃院 發表, 「서울신문」, 1985.12.15). 그러나 한편으로는 莫大한 外債(1985年 11월 末 現在 463億弗)를 안고 있고 失業率도 여전히 높다. 政府發表로는 4%, 62만 1천명으로 되어 있으나 實際는 이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專門家의 見解이다(「서울신문」, 1985.12.15, 林信一, 「數字로 본 韓國」, 「現代코리아」, 1986. 2·3月號). 北韓과 關聯시켜 볼 때 더욱 無視할 수 없는 側面은 富의 偏在, 즉 所得의 不均衡과 그것이 가져온 廣範圍한 低賃金者層의 存在이다. 특히 失業者와 低賃金 問題는 政治的 不安으로 轉化하기 쉽다.

이러한 韓國經濟의 否定的인 側面은 北韓의 經濟的 困難이 金正日體制에 미칠 政治的 影響을 相對的으로 減少시킨다고 볼 수 있다. 오늘 北韓의 宣傳機關은 韓國의 經濟危機說을 퍼트려 이것이야말로 自身들의 政治 經濟體制의 優越性을 證明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經濟의 將來를 여기서 점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나 적어도 金正日이 1984년 2월이래 推進하고 있는 人民生活向上 캠페인과 같은, 住民의 日常生活的인 要求에 應하는 政策이 實績을 올리게 된다면 體制不安定 要因으로서의 經濟不振의 짐은 상당히 輕減될 것이다.

3. 南北關係

經濟와 마찬가지로 現在 韓國과 北韓의 國際的 이미지 내지 威信에는 커다란 隔

차가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韓國에서는 金年(1986年)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아시아競技大會가 열리고 더우기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大會가 열리게 되어 있다. 自身들이 취할 態度의 問題와 함께 北韓의 重大한 關心事는 이들大會에 中國·蘇聯을 위시한 社會主義諸國이 參加하느냐 않느냐 하는 點이다.

아시아競技大會의 中國參加는 거의 確實視되고 있다. 또한 서울올림픽에는 이미 參加를 밝히고 있는 中國과 東歐諸國은 물론 蘇聯도 參加할 意向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1985년 8월 2일 訪蘇중인 日本의 共同通信編輯長에게 蘇聯共產黨의 자미야친 國際情報部長은 蘇聯은 原則적으로 서울올림픽 參加를 決定했으며 IOC에도 通報했다고 말했다(「統一日報」, 1985.9.4).

만약 서울올림픽에 中·蘇를 包含한 社會主義諸國이 모두 參加하여 모스크바와 로스엔젤스의 「반쪽」大會를 능가하는 盛況을 보인다면 韓國의 國際的 威信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랑군테리事件이나 「世襲」問題로 이미 傷處입고 있는 北韓의 對外이미지를 相對적으로 더욱 低下시켜 金正日後繼體制에 심각한 打擊을 가할 것으로 豫想된다.

北韓이 提案한 1988년 올림픽의 南北共同開催案은 IOC의 仲介로 앞으로 南北의 關係者 사이에서 檢討되겠지만 이미 開催準備를 착실히 進陟시키고 있는 韓國側이 여기에 應할 可能性은 없으며 實現되지 않을 것이다. 北韓에게 남은 選擇은 지금부터라도 中·蘇를 위시한 社會主義諸國 및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非同盟友好諸國을 움직여大會를 보이코트 시키는 것, 그래서 可能하면 서울올림픽의 開催 自體를 沮止시키는 일이다. 그런 意味에서는 앞으로 數年間的 北韓의 軍事力을 包含한 對應이 注目된다.

Ⅳ. 金正日體制的 將來

金正일이 언제 黨과 國家의 最高指導者의 地位에 正式으로 就任할 것인가 하는 것은 豫測하기 힘들다. 1980년 10월의 第6次 黨大會에서 公表될 것이 아닌가 하는 豫測이 당시 매스컴을 中心으로 널리 퍼졌으나 이것은 的中되지 않았다. 일찍 中國에서 毛澤東의 生前에 後繼者로서 劉少奇를 指名하므로 해서 國家權力의 分裂을 招來하고 混亂을 惹起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經驗에 비추어 北韓의 權力의 正式移讓은 金日成의 死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金日成의 健康이 惡化되어 執務不能이 되어야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金正일의 權力繼承에 따라 南北統一의 展望이 한걸음 더 멀어질 것은 確實하다. 金正일의 後繼에 대해 北韓의 許鎔 黨政治局員兼 秘書는 「결코 人爲的인 것은 아니다. 金正日 秘書 自身이 쌓아 올린 業績에 의해 自然히 그렇게 된 것이다. … (그의) 非凡한 英知와 卓越한 指導力이 人民으로 부터 認定을 받은 것이다」라고 說明했다(「朝日新聞」, 1985.5.16). 그러나 이러한 理由가 단순한 辯明에 지나지 않음은 이미 말한 家系の 神聖化 作業을 봐서도 알 수가 있다. 金正일의 權力繼承이 才能에 의한 것이든 血族에 의한 것이든 論外로 하고 이 44살의 人物을 指導者로 해서 南北統一을 達成코자 하는 韓國人은 없을 것이 틀림 없다.

統一에의 執念이나 情熱이 世代가 젊게 바뀔에 따라 점차 減어지는 것은 自然의 理致이다. 1985년 韓國에서 東亞日報가 實施한 意識調査에 따르면 戰後, 즉 南北分斷 후에 태어났거나 初等教育을 받기 始作한 20代에서 40代의 사람들은 統一의 展望에 대해서 72.5%가 消極的 내지 悲觀的인 意見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統一에 대해 否定的인 見解는 나이가 어릴 수록 높아지고 있다(「東亞日報」, 1985.4.9).

金正일은 그 스스로가 위의 年代層에 屬해 있으며 같은 年代의 人們을 이끌고

앞으로의 北韓의 進路를 決定하게 된다. 南北의 分斷狀態가 더욱더 固定化되는 가운데 그는 父親과는 다른 視角으로 狀況을 바라보며 南北共存의 길을 摸索할 것이 틀림없으리라 생각된다.

第3章 對中, 對蘇外交의 展開

〈 要 約 〉

오랜 기간 停滯狀態가 계속된 對蘇 關係는 金日成의 23년만의 訪蘇를 契機로 해서 한꺼번에 好轉, 급속히 친밀해지고 있다.

그 사이 蘇聯은 北韓에 대해 MIG-23 등 軍事援助를 開始, '84년 12월 부터 北韓上空 橫斷偵察飛行을 月2回 比率로 실시하고 있는 외에도 金正日 後繼를 承認, 北韓의 對南政策을 支持하는 姿勢를 보이고 있다.

한편, 北韓은 蘇聯이 부르짖고 있는 「社會主義諸國과의 國際的 共同行動·連帶」, 「아시아安全保障會議構想」에 同調하고 있다.

北韓·蘇의 緊密化는 現在는 거의 中國·北韓 關係에 가까운 레벨에 이른 것으로 推測된다. 또한 北韓은 中蘇 雙方에 대하여 積極的인 接近을 보이면서도 兩國에 대해 微妙하고 慎重한 配慮를 기울이고 있다.

中·北韓 關係는 北韓의 급속한 蘇聯 傾斜에 대한 中國의 念慮, 中國의 獨自的인 韓半島政策(中韓接近, 對美關係 強化) 등에 대한 北韓의 不滿등 多小의 軋轢은 있으나 아직은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앞으로도 北韓은 中蘇에 대한 밸런스 外交를 堅持하도록 努力할 것으로 보이나 現在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危機的 狀態를 打開하기 위해서는 對蘇 傾斜를 깊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中國은 北韓의 蘇聯 傾斜를 防止시킬 수 있는 有効하고 決定的인 手段方法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北韓은 當分間(88서울올림픽까지) 蘇聯과의 緊密化를 깊게 할것이다. 但, 中國과 離反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限界가 있게 마련이다.

I. 對蘇 外交의 새로운 展開

中·蘇 對立의 激化, 美·中 關係改善 내지 中國 大陸을 휩쓴 文化大革命의 바람 등 몇가지 北韓·蘇聯間의 關係強化의 好機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兩 書記長 時代의 約 30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北韓·蘇聯 關係는 停滯狀態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狀態는 84년 5월의 金日成의 蘇聯·東歐訪問에 의해 打開되고 北韓·蘇聯 關係는 一時에 好轉되기 시작했다.

北韓·蘇聯 首腦會談에서 北韓에게 MIG-23 戰鬥機, T 72 戰車, 對空 미사일, 原子爐등의 供與가 約束되고 같은 해 11월의 카피차 蘇聯 外務次官의 北韓訪問에 의해 「新軍事援助協定(未發表)」이 체결되었으며 이미 MIG-23 戰鬥機 등 一部の 武器가 引渡되었다.

昨年 4월에는 金永南 副總理兼 外相이 蘇聯을 訪問, 「國境通過에 관한 條約과 領事協定」, 年末에는 姜成山 總理가 모스크바를 訪問, 「北韓·蘇聯 政府間의 經濟·技術協力에 관한 協定」「北韓에서의 原子力 發電所建設에 관한 北韓·蘇聯 政府間의 經濟協力 協定」「86~90年의 北韓 蘇聯 兩國間의 貿易, 經濟協力發展에 관한 交渉의 成果에 관한 議定書」를 調印, 北韓과 蘇聯間의 經濟關係 強化가 試圖되었다. 또한 蘇聯의 對獨戰勝 40周年(同 8월 15일)에는 航空機의 祝賀 訪問등의 軍事代表團을 包含한 大規模 代表團의 相互派遣등이 있었다.

한편 「金正日 後繼問題」, 「3者會談(韓·北韓·美)」提案을 包含한 南北對話의 움직임 등 北韓의 內外政策에 관해 蘇聯이 理解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蘇聯의 一方的 強要에 대해 北韓側도 지금까지 頑強히 거부하고 線을 그어온 「社會主義諸國과의 國際共同行動」을 許容하고 고르바초프 書記長이 提唱한 「아시아 安全保障會議構想」을 支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蘇聯 關係는 軍事·經濟·科學技術을 中心으로 關係改善이 急퍼치를 올리고 있으며 北韓의 對蘇 外交政策은 새로운 段階를 맞고 있다.

1. 對蘇 關係 強化의 動向

(1) 活潑한 人的往來

84年 5월 金日成의 訪蘇 以前의 北韓·蘇聯間의 高位級 人事의 往來는 놀랄 정도로 적었다.

특히 蘇聯 要人의 北韓訪問은 거의 없었다. 80년부터 金日成 訪蘇時까지 北韓을 訪問한 蘇聯의 黨政府 要人은 카츠시에프 副首相(80, 83經濟科學技術協力會議) 그리고 黨中央政治委員(80. 第6次 黨大會參席) 및 A.S. 발카우스 最高幹部會議副議長(83年)등 손으로 헤일 程度밖에 없었고 그외는 모두가 實務級 以下의 訪問뿐 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와서는 84년 11월 카피차 外務次官, 85년 8월 아리에프 黨政治局員·第1 副首相과 라시리페토로프 第1 國防次官·元帥, 86년 1월 세바르드나제 外相 등 要人의 北韓訪問이 있었고 그로미코 最高幹部會議 議長 그리고 고르바초프 蘇聯 書記長의 北韓訪問 實現可能性까지도 나오고 있다.

北韓은 蘇聯側에 대해 比較的 高位級을 보내지 않고 있으나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兩書記長의 葬禮에 參席했던 朴成哲 副主席, 姜成山 總理가 새로운 書記長을 만나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했던것이 象徴하듯이 반드시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金日成의 訪蘇를 계기로 해서 85년 4월에는 金永南 副總理兼 外相, 같은 해 5월 朴成哲 副主席, 吳振宇 人民武力部長 그리고 12월의 姜成山 訪蘇와 北韓 要人의 訪蘇가 급격히 增加하고 있다.

이와 같이 高位級의 相互訪問이 점차 增加하고 있는데 比例하여 北韓·蘇聯間의 黨·政府 레벨의 人的 交流도 급속히 불어나 北韓의 訪蘇團은 83년 43, 84년 56,

85년 89명 이상의 代表團, 그리고 蘇聯의 北韓訪問은 52명, 60명, 120명의 代表團(「모스크바放送」, 「勞動新聞」 등 兩國 發表의 集計)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注目되는 것은 貿易, 經濟, 科學, 技術, 軍事代表團의 交流가 活潑히 일어난 點이다.

(2) 貿易, 經濟, 科學技術協力등의 擴大

北韓·蘇聯間의 緊密度를 재는 하나의 尺度가 되는 條約, 協定, 議定書等の 締結, 調印數는 83년 6건, 84년 11건, 85년 16건으로 점차 增加하고 있다. 특히 科學技術協力, 貿易, 經濟關係 擴大에 關係되는 協定등이 中心이 되고 있으며 其他의 東歐諸國과 締結한 것과 마찬가지로 北韓이 蘇聯과 「86~90年의 貿易, 經濟, 技術協力協定」을 작년 12월 調印한 것은 北韓·蘇聯 關係改善의 動向으로 볼 때 특히 주목할 必要가 있다.

北韓의 對蘇 貿易은 83년 13억 1,800만불, 84년 14억 3,700만불(前年比 15.3%增)로 84년에도 약간 增加되었을 것으로 推測할 수가 있다. 北韓의 84년도 貿易總額 약 23억 7,300만불, 前年比 3.2% 增加로 볼 때 對蘇 貿易은 比較的 큰 伸張을 보이고 있으나 全般的으로는 北韓·蘇聯 雙方의 經濟不振과 北韓의 外貨不足에 비추어 스스로 限定될 것이 豫想된다.

(3) 對蘇 軍事依存度の 增大

金日成 訪蘇가 實現되기까지 약 10년간 蘇聯은 北韓이 希望하는 比較的 高度의 武器·軍事技術등의 供與는 하지 않았다.

金日成 訪蘇時에 確定된 北韓에 대한 軍事援助는 84년 11월의 카피차 外務次官의 北韓訪問에 의한 「新 軍事協定」締結에 따라 具體化되어 작년 5월 이후 수회에 걸쳐 MIG-23 戰鬥機 25台 以上, SA-3 對空 미사일 數基, 헬리콥터등이 引導되었다. 금년에도 供與는 계속되어 北韓의 MIG-23 機의 保有台數는 45~5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T 72 戰車의 供與와 더불어 北韓의 軍事力은 一段 強化되었을 것

이다.

이들 軍事援助의 代價 또는 軍事關係強化의 一環으로서 84년 12월 이후 極東 蘇聯 海軍과 戰略空軍 所屬의 TU16, TU 95 偵察機가 거의 月 2회의 간격으로 北韓 上空을 橫斷, 東支那海의 中國大陸周邊에 이르기까지 偵察飛行을 實施하고 있다. 또한 작년의 朝鮮解放 40주년 記念에는 蘇聯 太平洋 艦隊의 야사코프 海軍 中將·第1副司令官이 指導하는 同艦隊所屬의 軍艦 3척이 처음으로 元山港에 入港한 바 있다.

이러한 事實은 앞으로 蘇聯의 北韓에 대한 軍事的 關與, 北韓의 軍事的 對蘇 依存度가 增大할 可能性이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4) 金正日 後繼承認과 對南政策의 支持要請

80년 10월의 第6次 黨大會에서 金正日 後繼體制를 明確히 드러내고 北韓은 中蘇에 대하여 소위 「金正日 後繼體制 承認 캠페인」을 벌리고 있다. 中國은 81년 가을에 金正日을 承認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蘇聯은 이것을 肯定하는 듯한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金日成의 訪蘇에 앞서 84년 1월 그리신 政治局員등이 金正日 앞으로 新年祝辭를 부쳐왔고, 같은 해 9월에는 中國을 除外한 對外的 行事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金正日이 駐平壤 蘇聯大使를 처음으로 接見(大使館 訪問)한 것을 비롯, 카피차 外務次官의 訪問, 朝鮮解放 40周年 記念行事, 세바르드나제 外相 訪問時에 參席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蘇聯側도 金正日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또는 姜成山 訪蘇時에는 고르바초프 書記長 스스로 金正日앞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北韓이 提案한 「3者會談」에 대해서 蘇聯은 朝鮮解放 40周年 記念日의 아리에프 演說, 建國 35周年 記念日(9월 9일)의 祝電등에서도 「3者會談」이라는 말을 公式으로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北韓의 一連의 對南政策에 관해서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府가

南韓으로부터 美軍을 撤收시키고 民主主義的 平和統一을 實現시키기 위해 내놓은 提案과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기 위한 提案, 그리고 北과 南사이에 폭 넓은 對話를 할데 대한 提案을 支持한다」(姜成山 訪蘇 共同코뮤니케)고 하며 일응 지지를 表明하고 있으나 慎重하고 소극적인 姿勢를 아직도 갖고 있다.

(5) 「社會主義諸國의 共同行動」에 同調

勞動新聞등 北朝鮮 黨·政府機關紙는 最近 政治的으로 蘇聯을 支持하는 것이 하나의 特徵이 되고 있다. 작년 3월의 時點까지는 金日成이 「社會主義諸國과의 友好協力關係를 積極的으로 發展시킨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世界戰爭을 막고 世界의 恒久的 平和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全世界의 自主化를 實現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公言하여 蘇聯이 要求하는 「帝國主義의 戰爭策動에 대한 社會主義諸國의 團結, 共同行動 連帶」와는 分명한 줄을 긋고 있었다. 그러나 4月 金永南 訪蘇時의 共同 코뮤니케, 9월 16일자 「勞動新聞」에 게재된 「社會主義諸國 과의 關係를 最優先으로 한다」하는 金永南 論文, 그리고 姜成山 訪蘇時의 演說, 同 코뮤니케에서 「軍事的 威脅에 直面하여 社會主義諸國이 統一과 團結을 強化, 自主的 發展과 社會的 進歩를 위한 人民의 權利를 保障하는 鬪爭에 있어서 모든 平和勢力이 團結하는 것이 가장 重要的 意義를 가진다」고 말해 거의 全面的 同調를 보이고 있어 短期間의 급격한 對應變化는 注目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고르바초프政權 發足 直後 내놓은 「아시아 安全保障會議構想」에 대하여 北韓이 11월 17일의 러시아 革命記念日에 이것을 支持한다고 表明하고 姜成山 總理가 모스크바에서 「蘇聯은 歐洲의 平和뿐 아니라 아시아 나 라들과의 善隣友好關係를 이루어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기 위한 積極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굳은 連帶를 表明한다」고 말해 이를 支持한 것은 극히 당연한 結果라고 할수 있다.

2. 北韓·蘇聯 關係密着의 背景과 理由

(1) 對蘇 傾斜과 北韓의 期待

北韓이 지금까지의 自主獨立, 非同盟外交에서 한발 바꾸어 社會主義나라들과의 關係強化를 重視하고 對蘇 傾斜을 깊게 하는 背景으로서는 첫째로 北韓 首腦가 南北間의 隔差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는 認識을 갖기에 이른 까닭이다.

즉 ① 韓國의 經濟發展은 現在 鈍化되고 있다고는 하나 經濟가 硬直化, 高度로 中央集權化되어 自立自主의 發展 모델에 폐쇄되어 있어 극도로 不振을 보이고 있는 北韓의 經濟를 훨씬 凌駕하고 있다. ② 北韓이 靑島事件 또는 累積債務問題 등으로 잃은 國際信用回復에 努力하면서도 그 回復이 困難한 것과는 反對로 韓國이 最近 國際舞臺에서 이룩한 國際通貨基金·世界銀行 合同總會를 爲始하여 各種 國際的 會議의 서울 開催, 86 아시아 競技大會와 88 서울올림픽의 誘致成功등으로 韓國의 國際的 評價가 높아지고 地位가 向上되고 있는데 대해 北韓의 초초함이 있다.

둘째로 北韓이 韓半島의 軍事 밸런스에 걱정과 不安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中蘇 關係改善과 美·韓·日·프랑스·中國의 關係 強化의 動向, 蘇聯의 對韓接近에 孤立感이 깊어지고 있다는 點이다.

北韓은 直接 또는 中國을 통해서 또는 西方側 平壤訪問者를 통해서 여러번 「우리나라에는 南侵 意圖가 없으며 또한 그런 能力도 없다」고 呼訴하고 있다. 中國 要人이나 中蘇의 北韓 專門家도 「北韓은 不安感을 갖고 있다」고 肯定的인 發言을 하고 있다. 또한 現在 北韓의 工業基盤과 兵器技術에 관한 한 高度한 武器의 獨自生産은 不可能에 가깝다는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셋째로 지금까지 北韓과의 關係를 重視하고 가장 깊은 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中國이 最近에 들어와 韓半島에서 獨自的이라고 할만한 政策을 展開하고 있는데 대한 不滿이다. 具體的으로는 中國의 對韓貿易은 84年 약 3억 4,600 만불, 85년에는 이

를 훨씬 上廻하는 (香港統計) 것으로 보이며 北韓과의 貿易量을 넘고 있다. 또한 中國의 魚電艇事件이나 航空機亡命事件이 초래한 一連의 危機的 事件에서는 韓國과의 直接 交涉에 의하여 이를 解決한 바 있다. 한편, 北韓에 대해서는 經濟, 政治, 軍事的 支援에 明確한 制限을 가하고 있는 점이다.

넷째로 日·美·歐 등 資本主義諸國과 關係改善을 노려 現在의 政治的·經濟的 危機 脫出을 企圖해 보았으나 突破口를 열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이 있기 때문이다. 資本主義諸國과의 經濟關係를 增大시켜 보겠다는 平壤의 主張을 오히려 西方側 諸國은 懷疑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美國, 日本에 대한 呼訴도 거의 效果的인 反應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장 期待하고 있는 美國이 좋은 反應을 보이지 않는데 대한 失望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北韓의 世代交替問題이다. 즉 金正日 後繼體制確立을 위해서는 迅速하고 確實하게 國際的 不安要因을 除去하고 國內社會의 安全을 이루고 指導體制를 굳혀야 할 必要에 쫓기고 있다.

以上과 같은 背景下에서의 北韓의 對蘇 關係 強化의 속셈과 期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① 對蘇 密着化의 姿勢를 보임으로써 中國의 對韓接近 등 獨自의 韓半島政策을 견제할 뿐 아니라 對美 關係 強化에 制限을 가한다. ② 지금까지 蘇聯이 供與를 꺼렸고 中國의 援助에는 限界가 있는, 高度兵器體系의 供與를 蘇聯으로부터 끌어 낼 수가 있다. ③ 蘇聯으로부터 金正日 後繼體制에 대한 明確한 支持를 얻어냄으로써 後繼問題를 굳힐 수 있다. ④ 南北對話의 主導權을 掌握하기 위해 「中國카드」와 함께 「蘇聯 카드」를 有效하게 使用할 수 있다. 특히 88년 서울올림픽 參加問題와 聯關시켜 最大限 利用이 可能하다.

(2) 蘇聯의 對北韓 積極外交展開의 理由

蘇聯이 北韓의 「對蘇接近姿勢」에 對應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金日成의 23年 만의 訪蘇로 象徴되듯이 北韓의 괴로운 處地를 거꾸로 利用, 北韓을 蘇聯의 世界戰

略으로 끌어늘여 利用하려 하는데에 蘇聯의 最大의 目的이 있다.

첫째 蘇聯은 世界戰略 즉 對美戰略을 有利하게 展開하기 위한 一環으로서 對中 關係改善 및 對日問題등에 깊이 관계되고 있는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 이것을 利用 한다.

둘째로 「아시아 安全保障會議構想」의 實現을 目標로 소위 美·韓·中·日의 軍事的 結束에 대해 袞기를 밖는 등 積極的인 아시아 政策을 推進하는 가운데 北韓을 하나의 基點으로 삼고 北韓을 蘇聯의 對美 戰略에 同調시켜 韓半島에서의 美軍의 撤收, 아시아의 非核地帶化를 爭取하려는 意圖를 가진 接近이다.(政治的 宣傳效果는 크다)

셋째는 最近의 一連의 南北對話, 北韓의 經濟開放政策의 摸索등 北韓이 中國, 日本과의 關係를 深化시켜 美·中·韓·日·北韓의 5個國에 의한 對蘇 包圍網의 形成에 기울어질 事態를 견제하고 自國에 끌어당겨둘 필요가 있다는 등이 蘇聯의 北韓 接近의 主要한 理由일 것이다.

以上 說明한 점으로 北韓과 蘇聯의 속셈과 利害가 一致하여 急激한 蘇北韓 密着化의 움직임으로 나타나 蘇北韓 關係는 지금까지의 北韓·中國 關係와 거의 같은 레벨로 癒着化되었다고 보는것이 妥當할 것이다.

II. 對中外交의 安定的 維持

1. 北韓·中國關係의 現狀

中國의 文化大革命時代등 한때 相對方을 論難할 時期도 있었지만 中國·北韓 關係는 「피로 맺은 兄弟的 關係」를 一貫해서 維持하고 있다. 中國은 「4個 現代化」를 實現시키기 위해 安定된 對美, 對日 關係의 維持 必要性등을 要하며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強力하게 바라고 있고 그 一環으로서 「3者會談」을 위해 對美

仲介에 나서고 繼續的으로 이를 支持하고 있다.

最近 一連의 北韓의 對南政策과 經濟的 開放體制 摸索을 支持, 支援하고 또한 金正日 後繼에 理解를 보이며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北韓의 對蘇關係 強化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를 容認하는 등 여전히 兩國關係는 緊密을 維持하고 있다.

(1) 北韓·中共 首腦接觸의 恒例化와 人的往來

82년 4월 鄧小平·胡耀邦 兩 中國 首腦의 同時 北韓訪問 以後 北韓·中國의 首腦사이에는 外交形式에 拘碍받지 않고 必要的 時期에는 언제나 만나 相互 立場과 見解를 交換하여 雙方間의 對策을 講究하는 定例的·恒例的 外交關係가 成立되어 있다.

83년 6월 金正日이 非公式的이기는 하지만 中國을 訪問하고 鄧小平 中央顧問委 主任, 胡耀邦 黨總書記, 다음 世代의 胡啓立 등 中國要人과 會談을 하여 80년 이후 열렬히 바라던 金正日 後繼承認을 確實하게 했다. 그 후에도 姜成山 訪中, 이어서 金日成의 訪中, 그리고 85년 5월의 新義州에서의 胡耀邦 對 金日成·金正日 會談 등 首腦間의 意思疎通을 도모, 密接한 關係 維持에 努力하고 있다.

또한 北韓·中國間의 實務級 往來는 蘇聯에 비하여 월등히 많고 廣範圍하며 多種多樣한 代表團의 交換이 이루어지고 있다. 黨·政府 次元의 代表團의 數를 列舉해 보면 83년 40명, 84년 45명, 85년 130명의 代表團이 北韓을 訪問했고 中國訪問은 역시 24, 29, 61명으로서 確實히 增加하고 있다.

北韓과 中國의 國境隣接省·道間의 交流는 3개의 鐵道와 4개의 道路·橋梁이 復舊 再建되어 南陽과 圖們間에는 85年 4월 定期 버스가 運行을 開始하는 등 한층 活潑해지고 있다.

(2) 貿易과 軍事援助

北韓·中國貿易은 中國側이 「4個現代化」를 위한 資本의 投入, 西方諸國과의 交易擴大 등에 따른 부득이한 經濟不振이 겹쳐서 83년 약 5억 2,900만불, 84年

5억 2,800만불로 2~3년간 마이너스 0.3%로 떨어져왔다. 비록 85년에는 약간의 伸張을 보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비약적인 貿易擴大는 期待할 수 없다.

82년 4월 中國은 약 40대의 MIG 21 (改) 機를 供與한 바 있으나 거의 一般兵器에 그쳤으며 앞으로도 北韓에 대한 高度兵器의 供給國으로서의 可能性은 극히 稀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中國의 對 北韓 經濟援助, 武器供給은 극히 限定될 것이다.

2. 北韓에 대한 中國의 姿勢

(1) 韓國戰爭時의 相互信賴의 確認

北韓·中共의 指導者들은 일이 있을 때 마다 韓國戰爭時의 「피로 맺은 兄弟國으로서의 團結과 紐帶」를 내세워 信義와 友情을 다짐하고 있다. 예컨대 中國參戰 35周年 記念代表團을 맞아 金日成은 「北韓·中國 兩國人民은 한 집안이며 戰友, 兄弟, 同志인 中國은 現代化로 成果를 거두었다」고 말했고, 吳克烈 參謀長은 「朝鮮人民은 앞으로 如何한 不測의 事態가 일어나드라도 中國 人民과 맺은 崇高한 同志的 關係와 革命的 義理를 지킬 것이다」고 인사했으며, 李鵬 副總理는 「中國人民은 永遠히 朝鮮人民과 運命을 같이 한다」고 답하고 있다. 北韓·蘇聯 사이 보다는 文化的 親近성과 歷史的 理由로 보아도 깊고 좁은 끈으로 맺어져 있음은 確實하다. 中國은 이 信賴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것을 충분히 그리고 確實히 計算에 넣고 北韓에 대해 유연한 政策을 遂行하려 하고 있다.

(2) 北韓에 대한 影響力 行使

中國은 鄧小平 體制下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長期 國家戰略 目標인 「4個 現代化」實現을 위해 美國, 日本등 西方側 諸國과의 關係改善을 해나감으로써 資本導入, 經濟·技術協力援助를 얻는 것이 불가결한 要件이라는 認識에 서서 韓半島의 安全을 무엇보다 바라고 있어서 南北間의 紛爭防止, 緊張緩和를 위한 「3者會談」,

南北對話의 推進에 積極的인 姿勢를 보여 왔다.

83년 8월의 金日成 訪中時 南北 緊張緩和, 특히 「3者會談」提案에 대해 美國에 仲介하는 努力을 하겠다고 約束한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3者會談」은 韓國이 反對하고, 美國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代替案이 나왔을 때 中國이 明確한 態度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대해서 許鏞 副總理 兼 外相 (當時)이 「83년 9월 中國과 美國이 提案한 것이며 美國은 當然히 應해야 한다」고 非難했다는 事實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3者會談」提案에서 始作된 一連의 南北對話, 緊張緩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中國 參戰 35周年 記念行事의 代表團長 李鵬 副總理가 「朝鮮半島의 緊張을 緩和시키려는 北朝鮮의 끈기있는 努力에 대해 中國의 두터운 支持」를 밝히고 있다. 中國은 一貫해서 北韓의 「3者會談」提案, 南北對話 등 祖國統一政策을 公式的으로는 거의 全面的인 支持를 보내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급속한 北韓·蘇聯 密着化의 一連의 動向에 대해서도 現在까지는 表面的으로 전혀 불평을 하지 않고 있다.

解放 40周年을 記念하여 北韓·蘇聯間의 密着을 誇示했던 大規模 демон스트레이션에 대해서도 9월 中旬에 가서야 비로소 外務省 報道官으로 하여금 「蘇聯·北朝鮮 關係改善은 極東아시아 및 南北의 緊張緩和를 위해 환영할만한 일이다」라고 發表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發展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獨立的 外交政策을 추진하여 外部世界와의 接觸을 擴大하려 하는 北朝鮮의 政策이다」라고 소극적 이긴 하지만 平靜을 보였었다. 또한 蘇聯의 北韓上空 橫斷偵察行動에 대해서도 극히 조심스런 對應을 보이고 있으며 默認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中國側이 가장 우려하고 不安과 警戒心을 가지고 있는 北韓의 「社會主義諸國과의 共同行動」에의 連帶, 「아시아 安全保障會議構想」등 蘇聯의 政策에 大同調에 있어서도 直接 正面으로 反對하는 論評 등은 하지 않고 있다.

中國 소식통은 「北朝鮮이 蘇聯의 地政學的, 戰略的 포로가 되어 蘇聯에 먹혀

들어갈수는 절대 없다」라고 까지 斷言하고 있다.

中國이 北韓과 蘇聯의 密着化 動向에 대해 樂觀的인 것은 (內心으로는 당황하고 있음이 틀림없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과 自信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① 北韓・中國關係는 극히 密接한 것이며 여기에 하등의 變化는 없다.
- ② 金日成과 北韓人民은 本質的으로 蘇聯을 信用할 理由가 없으며 蘇聯도 北韓에 대해서 信賴나 好感을 갖고 있지 않다.
- ③ 84년말부터 시작된 一連의 南北對話 再開와 擴大는 北韓이 中國의 仲介를 받아들여 西方側과의 關係를 擴大하려는 希望을 反映한 것이다.
- ④ 中・蘇關係 改善은 漸進的이긴 하지만 進展한다. 蘇聯도 韓半島의 軍事的 밸런스를 크게 바꾸어 不安定한 狀態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⑤ 「主體思想」에 뿌리를 두고 自由獨立政策을 지켜온 金日成이 이것을 버리고 美・蘇 對立의 틈바구니에서 蘇聯의 戰略的 道具로까지 轉落하지는 않을 것이다.
- ⑥ 北韓이 바라는 經濟再建과 國際的 地位向上에 必要한 西方側과의 接觸, 특히 美・日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으며 南北雙方에 影響力을 갖고 交涉力을 發揮할 수 있는 것은 자기나라밖에 없다는 認識을 갖고 있다.
- ⑦ 北韓・蘇聯 關係 改善이 韓半島를 둘러싼 關係諸國의 지금까지의 基本圖式을 變化시키는 것은 아니다.

確實히 中國은 長期的 視點에서 慎重하게 南北對話를 促求하고 美國과 日本으로 하여금 北韓과 直接・間接接觸을 하게 만들어 韓半島에 關係가 있는 모든 나라와 接觸을 增大시켜서 北韓으로 하여금 非共產世界와의 關係를 넓히게 하여 國際的 孤立狀態를 終熄시키도록 影響力을 行使하려 하고있다. 北韓을 이런 方向으로 끌고 감으로 해서 中國이 最終 目的으로 하는 것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蘇聯의 役割增大」를 억제할 것을 企圖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北韓의 對中·對蘇 밸런스 政策

1. 對中·蘇 均衡政策의 維持

(1) 蘇聯의 움직임에 대한北韓의 對應

北韓은 蘇聯이 推進하는 「社會主義諸國과의 國際的 共同行動」에 관해서는 金日成의 訪蘇 當時 한마디도 言及이 없이 이것을 拒否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後退하여 昨年末의 姜成山の 訪蘇, 今年 1月の 세바르드나제의 北韓訪問에서는 이미 이것에 응하는 共同 커뮤니케를 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解放 40周年 記念에서의 姜成山の 演說中 「社會主義諸國의 親善協力關係를 發展시켜 團結을 強化시키는 것은 帝國主義의 侵略과 戰爭策動을 阻止破綻시키는 擔保이다」라는 部分은 國外를 향한 報道(「朝鮮中央通信」)에서는 삭제하는 등 「반드시 一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미묘하고 慎重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 姜成山の 訪蘇 直前,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메콘 首腦會議에 蘇聯이 招請한 것을 北韓이 응하지 않은 것도 北韓의 對應의 一端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蘇聯이 北韓을 對美 戰略에 同調시킨다는 것을 基本的인 目標로 삼고 있는 것은 解放記念日에서의 아리에프의 演說, 建國 35周年 記念日에 보낸 祝電 내지는 演說, 세바르드나제 北韓訪問時 「3者會談」에 直接的 言及을 回避하는 消極的 態度를 보이면서 「駐韓美軍撤收를 要求하는 北朝鮮의 提案」에 대해서만 言及, 支持 表明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 등으로 부터 알수 있으며 北韓은 蘇聯의 目的을 충분히 把握하고 이에 對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蘇聯의 軍事援助에는 限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특히 經濟援助問題에서는 지금까지의 經驗을 통해 약속한 것이 여간해서는 이행되지 않고 債務辨濟가 극히 엄하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蘇聯이 決定的 事態가 發生하지 않는 限 韓半島의 軍事均衡을 크게 허물어 쓰리

는 形態의 軍事援助를 주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는 것은 다른 地域에 대한 軍事援助의 패턴에서 判斷할 수 있는 것이며 北韓은 蘇聯으로부터 可能的限 最大의 經濟, 軍事援助를 끌어낼 것을 노리고 이에 對應해 나갈 것이라는 것도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다.

(2) 中國의 움직임에 대한 對應

北韓은 지금까지 緊密한 關係를 유지해왔던 中國이 美國, 日本 등 西方側과의 關係強化, 특히 韓國과의 關係를 增大시켜 나가는 것을 보면서 自國의 死活的 利益이 위협받고 있는데 대해 不滿과 不安을 느끼고 있다. 마찬가지로 中·蘇 關係改善이 北韓에 關係없이 進展되는 것에 憂慮를 갖고 있는 것 같다. 事實 美國과의 關係는 軍事的 關係에까지 擴大되고 있으며 韓國과의 貿易은 北韓을 上廻하고 서울올림픽 등 韓·中의 接觸頻度は 점점 더해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韓半島情勢의 認識에 대해서도 中國側이 「半島情勢는 安定되어 있고 現在보다 緊張緩和의 展望이 좋았던 때는 없었다」고 主張하고 있는데 대하여 北韓側은 「美·日·韓의 3角軍事同盟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戰爭挑發策動때문에 韓半島情勢는 극도로 緊張되었으며 戰爭의 위험이 높다」(姜成山의 訪蘇演說)고 警告하고 있어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中國이 北韓의 이러한 主張을 無視하는 態度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北韓은 不安과 不滿을 갖고 있다.

또한 中國이 仲介役을 맡았던 「3者會談」과 南北會談의 進展에 관해서도, 美國을 會談場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關聯해서 中國의 影響力에 대해 疑問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은 最近의 對中國 動向으로 보아 疑心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이미 北韓은 現在의 鄧小平 黨中央委 主任이 指導하는 中國의 經濟開放政策의 成果를 칭찬하고 支持하고 있긴하나 그 前途에 대해서는 약간의 不安을 갖고 있으며 中國側이 원하는 「經濟開放政策」과는 다른 獨自의인 政策을 摸索하고 있다.

가장 決定的인 것은 現在의 政治的·經濟的 難關을 뛰어넘기 위해 絶對적으로 필요한 經濟·技術·軍事援助를 中國에서는 전혀 期待할 수 없다고 判斷하고 있는 점이다.

(3) 北韓의 中·蘇 均衡 外交의 展開

北韓은 中·蘇의 各種 움직임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것과 같은 認識과 對應을 취하면서 現在 直面하고 있는 危機的 狀態로부터 脫出하려고 어디까지나 「主體思想」을 支柱로 하면서 可能한 限 自主獨立의 政策을 維持할것을 基本으로 하여 中·蘇兩國과의 보다 緊密한 關係強化를 의도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며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均衡을 취하도록 腐心하면서 교묘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例컨대 解放 40 周年 記念行事와 中國參戰 35 周年 行事에서 中·蘇兩國에 대하여 細心하고 慎重한 밸런스를 맞춘 配慮가 그 좋은 例이다. 解放 40 周年 記念行事와 創黨記念日(9월 9일)은 84년의 黨中央委 總會에서 盛大한 國家的 行事로 할것을 決定(金日成의 新年辭에서도 言及)하였었다. 그러나 中國 參戰 35 周年은 當初에는 盛大한 行事로 치를 計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北韓·蘇聯의 密着을 誇示한 解放 40 周年 記念行事에 대한 中國의 反撥을 겁내어 급히 그 같은 規模의 行事로 만들었다.

蘇聯에서는 아리에프 黨政治局員·第一副首相(序列 8 位)을 團長으로 하는 黨·國家代表團 등 34 團體, 中國에서는 李鵬 政治局員·副總理(序列 12 位) 등 31 團體를 招待, 中·蘇 主要代表團에 대해서는 金日成이 會見, 午餐會를 主催하는 등 거의 同等하게 取扱한 바 있다(金正日是 中國代表團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關聯行事에 있어서도 對蘇聯行事에는 解放塔改築完工式, 蘇聯軍記念碑除幕式을 행하고 中國에 대해서는 北韓·中國 國境橋開通式, 中國人民志願軍鐵道部隊烈士記念碑竣工式을 열었고 歡迎演說도 雙方을 刺戟하지 않도록 配慮했다. 또한 金日成은 新年辭에서도 兩 行事를 나란히 言及, 評價한 바 있다.

또한 7월의 모스크바 「世界青年學生祝典」에 약 500명의 大型 代表團을 派遣하고 또 한편으로 中國에는 8月 거의 같은 數의 「青年親善參觀團」을 編成, 派遣하는 등 代表團數까지 거의 同數에 가깝게 中·蘇 雙方에 均衡을 취하고 있다.

從來 北韓은 非同盟國外交를 첫째로 하는 外交政策을 취했으나 昨年初부터 社會主義諸國과의 外交最重視政策으로 돌아선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親密하지 못했던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노리면서도 中國을 刺戟하지 않도록 「對中國」을 충분히 意識한 慎重한 布石이 있는지도 모른다.

2. 앞으로의 展望

① 韓半島情勢에 影響을 미치는 中·蘇·美·日의 어느 한쪽에 크게 기울어 진다는 것은 自國에게 不利하며 自主路線을 잃게 된다. ② 現在의 美·蘇關係, 中·蘇關係 改善의 動向으로 보아 「蘇聯 카-드」를 보다 有利하게 使用할 必要가 있으나 限界를 넘어선 蘇聯 傾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③ 蘇聯에서의 接近은 高度의 兵器體系供與와 若干의 經濟·技術援助를 얻을 수는 있지만 蘇聯의 戰略에 휘말려들 危險을 內包하고 있다. ④ 適當한 對蘇關係 密着化는 中國으로부터 援助를 끌어들이고 中國이 北韓의 意向에 관계없이 韓半島의 獨自의 路線을 推進하는 것을 沮止할 수가 있다. ⑤ 또한 그것은 中國의 韓國接近, 蘇聯과 韓國과의 關係 增大를 견제할수가 있으며 對南政策을 보다 有利하게 展開할 수 있게하는 要因으로도 작용한다.

이상과 같은 判斷에 의하여 北韓은 앞으로도 中·蘇 兩國에 대해 韓半島를 둘러싼 關係國의 動向과 中·蘇의 韓半島에 대한 姿勢, 中·蘇 關係改善의 움직임등을 慎重히 지켜보면서 細心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基本的으로는 中·蘇 均衡 外交를 維持, 中·蘇 雙方에 대해 積極의 外交를 展開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 中·蘇 兩國도 앞에서 記述한 觀點에 따라 北韓이 自國으로부터 크게

離反하지 않게끔 手段을 講究해 나갈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南北對話의 推進에 의하여 韓半島의 緊張緩和가 急進展할 展望이 確實하지 않은 現段階에 있어서는 中國은 北韓의 對蘇傾斜가 더 이상 深化되지 못하게 하는 有効한 手段方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蘇聯의 對北韓攻勢에 대해 消極的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北韓은 當分間(88 서울올림픽 前後까지) 「 社會主義國家와의 國家的 共同行動 」에 同調를 보이면서 蘇聯에의 傾斜를 깊게 해 나갈 것이다. 단, 中國과의 緊密以上の 緊密化가 있다 하더라도 中國과의 關係 惡化를 招來하지 않는 限度안에서 그 竊것으로 생각된다.

第 4 章 對南關係의 展望

〈 要 約 〉

北韓은 祖國統一을 「民族의 切迫한 最大의 課題」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交叉承認, UN 同時加入등 「두개의 朝鮮」 政策을 認定하려 하지 않는다.

韓國의 當面 外交目標은 諸合意의 實現에 있다.北韓은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統一을 위해서는 美國과의 直接交渉이 不可缺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85年 4月에 提案한 南北國會會談은 이를 위한 段階였으며 지금은 이 政治對話를 가장 重視하고 있다.

北韓으로서 「統一」이 內外政策, 言動등을 形成하는 基軸이다. 그들의 統一戰略은 ①北의 革命基盤 強化 ②南韓의 革命潛在力의 助長 ③世界의 革命勢力과의 連帶 - 이것을 3대 지주로 하고 있다.

最近 北韓의 對話姿勢, 日·美와의 融和指向은 經濟的 必要性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基本的으로는 이 統一戰略과 不可分의 것이다. 결코 戰術의 問題이지 戰略의 問題는 아니다. 平壤은 이미 韓國의 內政, 社會狀況을 예의 주시하면서 強穩兩面 戰術을 쓰고 있다. 이미지 作戰에 의한 平壤의 處理를 過大評價하는 것은 危險하다.

「全〇〇 排擊」과 「美帝追放」은 北韓의 原則이다. 金日成이 말하는 南의 「民主化」와 「自主化」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랑군 같은 事態가 일어날 可能性은 있다.

南北間의 제로섬 게임 關係는 變함이 없다. 現在의 對話나 交流는 그것이 雙方의 體制에 금이 갈 危險이 보이기 시작하면 踏步狀態에 빠질 것이다. 首腦會談은 비록 實現된다고 하더라도 內容面에서는 큰 期待를 할 수가 없다.

'88年 올림픽을 겨냥해서 앞으로도北韓의 平和攻勢는 계속 될 것이다. 經濟再建을 위한 이미지 轉換과 日·美·韓의 離間, 韓國內의 輿論分裂, 社會主義圈에서의 拒絕 強化등을 위해서 이다. 앞으로의 焦點은 어쩔 수 없는 經濟上의 要請이 政治, 軍事面까지 波及되어 對南革命이라고 하는 基本戰略의 修正에 이를 것인지 — 마침내는 南北韓이 共存路線을 받아 들이는 方向으로 바뀔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

I. 第2次 對話時代의 開幕

1. 最近의 南北對話에 대한 視點

'84年 가을의 水害救護物資 引導를 契機로 韓國과 北韓과의 關係에는 다시 對話의 기운이 생겨 같은 해 11月 以後 經濟, 赤十字, 國會, 스포츠의 4個 通路의 南北對話가 열리게 되었다. 70年代 初期의 赤十字나 調節委員會를 통한 對話時代를 第1次라고 한다면 80年代 中盤의 이번 展開는 「第2次 對話時代」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第2次 對話의 特徵은 ① 채널이 넓어졌다는 것 ② 分野別로 各種 對話가 같이 열리고 있다는 것 ③ 政治宣傳化를 피하기 위해 實質 討議는 非公開로 이루어 졌다는 것 — 이 세가지 이지만 그것 보다도 對話再開의 動機를 지적해 두는것이 重要할 것이다. 70年代의 第1次 對話가 닉슨의 訪中·訪蘇에 의한 國際環境의 激變이라고 하는 「外壓」에서 始作된데 비해 이번의 對話는 여러가지 不可避한 國內的 課題解決 때문에 始作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여러가지 課題라는 것은 北韓에서는 經濟難局의 打開에 의한 金正日 後繼體制의 마무리, 韓國에 있어서는 올림픽의 成功과 政權交替를 위한 內外政情의 安定이 그 것이다.

勿論 그 背後에는 梁君 事件으로 쇼크를 받은 周邊 各國이 活潑한 頂上往來外交를 통해서 南北 雙方에 直接對話再開를 促求했다고 하는 事情이 있었다. 그러나 南北이 實際로 對話를 始作한 最大의 理由는 어디까지나 各其 相異한 政治的 생각 때문이다.

韓國과 北韓은 다같은 同一民族으로서 강한 引力을 갖고 있으면서도 戰爭까지 치룬 對決과 不信 가운데 體制間 競爭의 「제로섬 게임」을 繼續해 왔다. 「한편의 프라스는 다른 한편의 마이너스」의 基本關係에는 지금도 變化가 없다. 그러나 雙方의 關係는 소위 「國際關係」는 아니고 극히 特殊하고 尖銳化한 同族間의 分斷 關係이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의 매스컴은 이러한 本質에 대해 意外로 어두워서 南北對話가 이루어지면 「화기에애한 분위기」라든가, 어느 편이 어떤 提案을 했다는 것만을 써서 情緒的 報道에 치우치는 傾向이 있다. 實際로는 雙方의 提案이나 立場이 一致되는 일은 극히 적은데도, 그 對立點, 不調化點을 詳細히 報道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의 對話도 여러가지 目的이 다른 以上 會談이 열렸다는 것 과 무언가 實質的 進展이 있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의 段階에서는 雙方이 서로 一致하고 있는 단 하나의 點, 一 對話를 열고 있다는 것을 內外에 보인다 는 것 一 이것이 重要한 것으로 보이며 그 以上の 問題에 있어서는 전혀 同床異夢의 狀態였다.

그러나 다음에 檢討하겠지만 85年 以後 北韓側의 姿勢에는 여러가지 「變化」를 나타내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北韓이 對南解放의 革命戰略을 바꾸었다 고 할 確證은 아직 없지만 그 戰術的 아프로치에는 미묘한 變化가 나타난 것이 事實이다.

問題는 그 變化가 「人民生活의 向上」이라는 切實한 要請과 相應해서 結果的으로 基本路線을 修正시킬 정도까지 波及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다.

變化란 원래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 쌓여서 오랜 期間에 긴 흐름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작은 싹을 열심히 點檢하는 것이 重要하다. 同時에 北韓과 같은 強力한 이데올로기 國家에 대해 過大한 幻想을 품는것도 危險하다. 「主體思想」이라고 하는 獨特한 이데올로기로 武裝된 北韓에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勝利」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原則이 있다고 보는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第2次 對話時代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政策의 焦點은

① 頂上會談을 포함한 南北問題의 接觸・交流가 어디까지 가느냐

(緊張緩和의 行方)

② 日美와의 關係改善의 意思가 南의 政權을 認定하는데 까지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當面한 平和共存 是認)

— 라는 두개에 모아질 것이다.

여기에는 合營法施行 등에서 나타난 經濟開放政策과 金正日後繼體制 確立을 위한 主體思想, 個人崇拜의 強化라고 하는 서로 矛盾된 要求를 韓國이 앞으로 어떻게 調整處理해 나가느냐 하는 興味있는 테마가 놓여 있다.

2. 北韓의 基本政策

北韓은 祖國統一을 「가장 切迫한 民族的 課題」(金日成)로 놓고 몇가지 提案을 했으나 基本政策은 다음의 4개로 集約된다.

① 10大 政綱: 1967年 10月の 最高人民會議에서 金日成이 發表한 內外政策의 基本方針으로서 「統一을 위한 南半部 人民의 鬭爭支援」을 強化한다.

② 3大原則: 19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聲明에서 闡明된 「自主的」「平和的」「民族的 大團結」의 3大方針

③ 5大方針: 1973年 6月 23日 金日成이 提議한 것으로 「南北의 軍事的 對峙의 解消」「多角的 合作과 交流」「各層人民, 各 政黨, 大衆社會團體 代表로

이 루어지는 大民族會議의 召集」 「高麗聯邦共和國의 單一國號에 의한 聯邦制 實施」 「單一國號에 의한 UN 加入」의 5 項目

④ 高麗民主聯邦共和國施政方針：1980 年 10 月 勞動黨 第 6 次 大會에서 金日成이 提案한 包括案으로서 '83 年 9 月에는 輪番制 共同議長을 追加

이 4 가지의 基本提案 외에도 單一指導政黨인 勞動黨 規約에는 當面 目標로서 「共和國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와 全國的 規模의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의 完遂」, 最終目標로서 「全社會의 主體思想화와 共產主義革命의 建設」이 明記되어 있으며 建軍宣言에 따르면 人民軍의 目的은 「祖國統一을 위해」라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72 年 12 月 施行된 新憲法에서 國家目標을 「祖國의 平和統一」이라고 처음으로 明記했다.

以上으로써 알 수 있듯이 北韓으로서는 「統一」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고 內外政策, 行動의 진부를 形成하는 基軸이다. 따라서 平壤은 그 目標達成을 위해 ① 北의 革命基盤 強化 ② 南의 革命潛在力의 助長 ③ 世界의 革命勢力과의 連帶一를 세 기둥으로 하는 統一戰略을 追求해 왔다. 北韓의 對南政策은 모든것이 여기서 導出되고 있다.

또한 北韓은 統一을 함에 있어 最大의 障礙는 駐韓美軍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美國과 直接 交渉하여 駐韓美軍을 撤收시킨다는 것을 對西方側 外交의 最優先으로 해 왔다. '84 年 1 月에 公表한 「3 者會談」 提案도 이 目的에 接近하기 위한 것이다. 南과의 對話受諾도 이것을 위한 한발 앞선 措置로 보인다.

결국 戰術아프로치 面에서 약간의 變化가 보인다 하더라도 基本的인 統一戰略에 관한 北韓의 變化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平壤은 항상 韓國의 內政· 社會狀況을 虎視眈眈 하면서 때에 따라 強穩 兩戰術을 쓰고 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II. 3者會談 提案과 그 후의 平和攻勢

1. 3者會談 提案은 開放政策과 直關

'84年 1月 10日 北朝鮮人民最高會議는 美政府와 議會, 서울 當局앞으로 소위「3者會談」提案의 書信을 採擇,公表했다. 「朝鮮의 緊張緩和와 平和解決의 前提 對策의 協議를 위해」北韓,美國,韓國의 3者間 協議를 열자는 것이었다. 北韓은 여기서 「美國과의 平和協定締結」과 「北南間의 不可侵宣言採擇」을 우선 提議하고 이 두개의 前提條件이 이루어지면 南과 北이 統一을 위한 對話를 열것을 主張했다. 그 후 平壤은 一貫해서 美國에 대해 이 提案을 早期受諾할 것을 促求하고 있다.

北韓이 美國에 대해 이것을 促求하는 裏面에는 「南은 美國의 實質的 植民地이며 侵略的 軍事基地」라고 하는 認識이 있다. 「美國은 朝鮮戰爭 停戰協定の 締結國이며 南朝鮮의 모든 軍事的 統帥權을 掌握하고 있고 朝鮮情勢를 緊張시키고 있는 張本人이기 때문에 우선 美國과 이야기 하지 않고는 統一問題는 勿論 緊張緩和도 前進되지 않는다」라는 論理인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駐韓美軍 撤收를 노리는 意圖가 包含되어 있다.

또한 北韓은 같은 時期 最高人民會議에서 西方側에게 문을 열고 對外經濟開放政策을 決定함과 同時에 지금까지 政治, 軍事 一邊倒였던 對外政策을 經濟重視로 바꾸는 兆朕을 보였다. 랑군 事件으로 失墜된 國際信用의 回復과 經濟的 危機 打開을 위한 轉換으로 分析되고 있는데 經濟再建을 위해 西方側과의 交流를 目標한다면 그 리더國인 美國과의 關係改善이 不可缺하다. 비슷한 狀況에 처한 베트남이나 東歐諸國도 마찬가지 이다.

이렇게 본다면 3者會談提案과 對外開放經濟政策은 同時에 採擇된 事情으로도 알 수 있듯이 完全히 한 션트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經濟上의 要請이 극히 강하

고 政治軍事上의 外交政策에 影響을 미칠 바탕이 마련된 것일 뿐이다.

韓國側은 이 3者會談提案에 대해 韓國의 資格이나 地位가 曖昧하기 때문에 「結局은 駐韓美軍의 撤收를 노린 僞裝平和攻勢에 지나지 않는다」고 拒否하고 우선 南北當事者間의 直接對話가 先決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보였다. 단, 美國政府는 完全 拒否는 아니고 「嚴密히 推移를 지켜보겠다」「慎重하게 考慮한다」는 方法으로 將來의 餘地를 남겨 놓았다. 앞으로의 南北對話의 展望에 대해서는 3者會談이거나 또는 中國이 어떤 形態로든 介在된 「3·5者會談」같은것이 열릴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對話 채널의 擴大와 北의 속셈

水害救護物資 引導가 끝난 직후('84年 10月) 韓國側은 스포츠會談과 赤十字會談의 再開 및 經濟會談의 開催를 재빨리 提案했고 北側은 이 가운데 스포츠를 除外한 두개를 받아들여 第2次 對話가 始作됐다. 같은해 11월에 일어난 「板門店銃擊事件」과 다음해 '85년 봄의 韓美合同軍事演習 「팀 스피리트 85」에 의하여 이들 對話는 一時 中斷 또는 延期되었으나 '85年 末까지 經濟會談은 板門店에서 5回, 赤十字會談은 서울에서 2回, 平壤에서 1回, 計 3回 열렸다. 또한 '85년 9月 20日부터 23日에 걸쳐 離散家族故鄉訪問團, 赤十字藝術公演團의 雙方 151名씩의 平壤·서울 相互交換訪問이 實施되어 「40年 分斷의 壁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또한 '85年 7月에는 北側의 提案에 의한 同會談의 豫備接觸이 板門店에서 열렸다. 同 10月과 86年 1月에는 로잔느에서 IOC (國際올림픽委員會)의 仲介에 의한 스포츠會談도 열렸다. 그 결과 雙方이 合意한 南北對話의 채널은 4개로 擴大되었으며 그밖에 '85年 10月의 UN 創設 40周年 記念總會중 印度首相 主權의 晩餐會에서 盧信永 韓國總理와 朴成哲 北韓副主席이 인사를 交換하기도 했고 同年

4월 자카르타의 반둥會議 30周年 記念式 리셉션에서는 閣僚級의 南北代表가 얼굴을 마주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頻繁한 會談과 接觸에도 不拘하고 具體的 進展은 전혀 없고 經濟, 國會, 스포츠會談은 協議內容이나 議題에 關係 對立, 赤十字會談도 제자리 걸음을 繼續했다.

이사이 金日成은 85년 新年辭에서 從來의 「美帝」, 「南朝鮮傀儡」 등의 過激한 表現을 一切 쓰지 않고 「南北間의 對話가 人民의 期待와 祖國統一의 理念에 合致하도록 훌륭히 進行되면 다음은 北과 南의 高位級 政治會談도 實現될 것이다」고 말해 注目을 받았으나 同時에 「南에서의 民主化 鬭爭」을 支援하고 在日 朝總聯의 強化, 全黨員・勤勞者의 革命思想에 의한 武裝을 呼訴, 從來의 基本的 立場을 한층 더 補強하는 所信을 보였다.

結局 이 1年間의 對話의 經緯를 통해 나타난 것은 北韓이 ① 各會談을 통해 包括的인 「統一」論議를 主要 테마로 삼고자 한 것 ② 各會談의 間隔은 될 수 있는 한 延長시키는 態度를 보였다는 두가지 點으로 要約된다.

한번은 雙方 合意에 의해 實現된 故鄉訪問團에 대해서도 韓國側이 「86년 舊正에 두번째」를 提案한데 대해 北側은 이를 拒否하였다. 北의 名分은 「85년 9월은 解放 40周年을 記念하는 特別한 것으로 이 問題는 우리側 提案인 自由往來 實現에 包含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態度는 첫번째의 相互訪問의 結果를 北韓이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3. 國會會談開催와 올림픽共同開催案

北韓이 85년 4월 새로이 提案한 南北國會會談은 窮極的인 目標인 「3者會談」의 實現이 우선 期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는 條件을 만들어 내는 講究策으로 들고 나온것으로 보인다. 同時에 韓國政局에 대한 動搖策이라는 側面도 無視할

수 없다. 이 時期 韓國에서는 2月 選舉에서 「鮮明野黨」을 看板으로 하는 新韓民主黨이 大躍進하여 政府와의 對決을 強化하고 또한 光州事件 5周年이나 韓美經濟摩擦에 의해 活動家 學生등의 反美, 反政府 行動이 높았기 때문이다.

平壤의 最高人民會議議長이 서울의 國會議長 앞으로 보낸 便紙에서 北韓側은「赤十字會談이나 經濟會談에 의해서 緊張緩和와 같은 根本的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狀態下에서는(國會會談을 여는것이) 雙方이 選擇할 수 있는 最善의 方策」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提案의 動機로서 「3者會談이 열리기 전이라도 緊張緩和를 원한다면 같은 民族끼리 모여 앉아 可能한 限 問題를 解決하자」고 말하고 있다.

다만 北韓側이 이 會談의 主議題를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의 發表」로 하자는데 대해 韓國側은 「그것은 當局者間 協議議題임. 雙方의 立法機關이 할만한 對話는 統一憲法制定問題다」라는 立場이어서 豫備接觸은 議題를 둘러싸고 對立하고 있다.

또한 各會談에 대한 立場을 보면 韓國側이 現行의 經濟, 赤十字 등의 個別分野의 對話와 交流를 重視하고 있는데 대해 北韓側은 85년 後半 以後 무엇보다 國會會談을 가장 重視하는 態度로 나오기 始作했다. 다른 會談은 전혀 眼中에 없는 듯한 態度로 國會會談이 諸會談으로 가는 段階라고 하는 생각을 分明히 表現하기 始作했다.

北韓은 지금까지 ① 우선 美國과의 直接交涉(平和條約과 駐韓美軍撤收) ② 南과의 不可侵宣言 ③ 南北의 統一對話라는 順序로 問題解決을 試圖하려 해왔다. 이에 比하면 「우선 南北이 不可侵 宣言을 合意하고 局面을 打開하자」라는 姿勢, 즉 「南北對話를 推進시키고 3者會談을 열자」(85.4.8, 「勞動新聞」)라는 것은 從來의 順序를 一部 逆轉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北韓이 우선 統一을 위한 政治會談을 무엇보다 우선 시킨다는 것을 最大目標로 하고 있는 점은 變化가 없다.

北韓은 85년 7월 돌연 88년 올림픽 共同開催案을 發表했다. 鄭浚基 副首相의 談話에 의하면 이 提案의 要點은 ① 서울은 올림픽에 適切하지 않다. ② 分裂된 韓國의 어느 한쪽에서만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두개의 朝鮮」을 劃策하는 分離主義者들의 策動을 더욱더 鼓舞시켜 南北의 對決과 反目, 緊張을 더욱 激化시킨다. ③ 서울 올림픽을 強行한다면 社會主義 諸國을 비롯해 많은 非同盟, 第3世界諸國이 參加할 수 없다. ④ 이러한 問題를 熟考한 結果 第24回 올림픽은 北과 南이 共同主催하는 것이 좋겠다는 結論에 이르렀다. ⑤ 大會名稱은 「朝鮮올림픽」 또는 「朝鮮·平壤-서울올림픽」으로 하고 競技는 平壤과 서울에서 반씩 나누고 南北은 單一팀으로 參加하며 텔레비전 放映料收入은 半半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北韓은 81년 9월 第24回 올림픽의 서울開催가 決定된 以來 바로 反對의 態度를 계속, 社會主義圈과 第3世界諸國에 대해 보이코트 工作을 繼續해왔다. 84년 12월에는 姜成山 首相이 韓半島에서의 올림픽開催 反對談話를 發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은 世界의 어느 地域보다도 情勢가 緊張되고 戰爭의 危險이 항상 떠돌고 있는 不安定한 場所이다. 南朝鮮에서 平和가 保障되고 民主化가 實現될 때까지는 서울에서 올림픽競技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말에 비한다면 共同開催論은 90°의 急轉換으로 半年 사이에 무엇이 있던가,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했다. 크게 보면 서울올림픽의 準備가 착착 進行되고 東歐諸國등 社會主義圈에서도 많은 나라가 參加意思를 表明하기 始作한것에 초조하여 스스로의 體面上 이러한 突然한 提案을 내놓게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一般的인 反應은 「빈데 붙는다」였다. 다만 中·蘇등 主要同盟國은 일제히 이 共同開催案을 支持하는 立場으로 나왔다.

Ⅲ. 랑군 以後의 北의 變身指向

1. 7 個의 徵候

랑군事件으로 西方側 諸國으로부터 일제히 指彈을 받은 北韓은 84 年 이후 「무서운 나라」라는 印象을 바꾸려는 이미지 變化 作戰을 취하기 始作했다. 金日成은 蘇聯, 東歐訪問以後 그때까지 입고있던 黨人服을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紳士服, 넥타이 차림으로 外國손님을 맞게끔 되었다. 平壤으로부터는 골프場 建設이나 나이트클럽, 茶房의 開設, 勞動時間効率化등의 뉴스가 들리게 되었다. 石橋 社會黨 委員長이나 시아누크 民主캄보디아 國王을 통해 日本에도 關係改善의 信號를 열심히 보내기 始作했고 美國에는 3 者會談을 提案하여 直接接觸의 希望을 진했다.

이러한 施策은 단순히 外見上의 이미지 變化를 바라는것이 아니고 보다 基本的으로는 經濟, 內政上의 必要性에 基礎를 두고있다. 즉 人民生活의 向上을 圖謀하여 金正日後繼體制의 安定을 기하기 위해서는 西方 先進國으로 부터 資本·技術을 導入하여 經濟를 根本적으로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信用의 回復이 急務다 하는 圖式이다.

따라서 對外政策上의 變化는 經濟分野에서의 變化와 不可分의 것이나 여기서는 最近 1~2 年間의 對南, 對日, 對美 姿勢의 變化를 살펴보자. 84 年 이후 이 分野에서는 注目할만한 몇 가지 變化가 北韓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要約하면 다음의 7 가지 이다.

① 3 者會談의 自發的 提案

79 年 카터 美大統領이 提案했을 때는 北側이 拒否했는데 이번에는 逆으로 北에서 提案, 「南朝鮮當局의 同等한 資格으로서 參加」를 認定했다.

② 駐韓美軍의 撤收를 合意의 前提로 하지 않는다는 意思表示

北韓要人の 發言에 의하면 北은 休戰協定 當事者로서의 「UN 軍」의 撤收(名目上)만을 要求, 美軍撤收의 時期와 形態에 대해서는 注文하지 않을 意向이라고 한

다. 즉 지금까지 美軍撤收를 合意의 「入口」로 했던 態度를 「出口論」으로 바꾸었다고 하겠다.

③ 南北間의 高位政治會談 肯定

經濟會談에 임해 全○○ 政權後 처음으로 當局者對話에 응하고 또한 副首相會談을 提案, 金日成은 85년, 86년 新年辭에서 「高位級政治會談」, 「最高位級會談」이라는 表現으로 南北頂上會談의 可能性을 示唆했다. 종전의 「全政權은 相對하지 않는다」에서의 一大轉換 이었다.

④ 國會會談의 提議

⑤ 올림픽 共同主催案의 提案

⑥ 信賴造成措置(CBM)에 대한 積極 呼應

⑦ 日·美·西歐의 저널리스트, 學者등을 頻繁하게 받아들이고, 金己男「勞動新聞主幹」, 金佑鍾 友好協力會會長등의 訪日(非政治的 人事交流의 再開)

以上에 대해 美·日·韓側으로부터 당연히 好意的인 反應이 있었으니 예컨대 韓美 兩國은 當面한 「交叉承認」 構想을 내어놓았다. 韓國은 淸州事件에 대한 謝罪를 對話의 前提로 하지 않는다고 讓步를 보였다. 美國은 85년 10월 北韓學者 3名에게 歷史學會 參加를 위한 入國비자를 發給했다. 日本은 같은해 1월 淸州事態와 關聯, 北韓에 대한 制裁를 解除하고 8월에는 神戶 유니버시아드 參加代表團이 淸州 朝鮮民航機의 成田 寄着을 許容했다.

이러한 一連의 흐름 속에서 85년 가을에는 南北頂上會談開催 準備를 위해 雙方의 高官이 서울, 平壤을 秘密訪問 했다는 情報가 나오기까지해서 南北關係는 하나의 轉機를 이루는 感이 깊어졌다.

國交가 없는 韓國과 中國, 蘇聯과의 사이에는 이미 經濟, 스포츠, 學術 등의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交流가 定着되었으며 北韓과 日本 사이에도 조만간 交流가 擴大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韓國側이 提唱하는 交叉承認의 實現은 共產圈의 淸면

上 當分間은 不可能 하다고 하더라도 흐름은 「交叉交流」 「交叉和解」의 方向으로 向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여기에서 舉論한 「變化의 兆朕」은 그 證據라고도 할 수 있다.

2. 路線變更可能性과 限界

韓國은 70年代 初부터 韓半島에 두개의 統治政權이 있다는 事實을 認定, 그 現實認識으로 부터, 對話 → 平和共存 → 統一로 나아가는 「先平和 後統一」의 路線을 追求해 왔다. 交叉承認이나 UN 同時加入 이라는 年來의 主張도 이 線上에 있다.

이에 대해 北韓은 「두개의 朝鮮」이라는 政策은 결코 認定하려 하지 않고 모든 論理를 「統一을 위해」에 歸結시켜 交叉承認도 UN 同時加入에도 反對해 왔다. 3者會談이나 國會會談 提案에서 들고 나온 不可侵問題도 나라 사이의 「協定」이나 「條約」이 아니고 「宣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冷情히 보아 南北間에 이처럼 經濟的 隔差가 생기고 또한 雙方이 심한 體制對立을 繼續하고 있는 現狀에서는 豫見되는 將來에 平和統一은 不可能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北韓側은 「두개의 朝鮮」의 共存을 認定하는 政策變更의 可能性은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韓國이나 美·日의 專門家の 見解가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金正日 以後의 젊은 테크노크라트 登場에 期待를 거는 것으로 「統一보다 事實은 對等하게 라는 것이 平壤의 眞心이다. 日本에게도 敵對政策을 그만두도록 바라며 實은 國交를 바라고 있다. 젊은 테크노크라트가 여러가지 意見을 내어 놓을 時代가 되면 南北交流도 活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다.

勿論 世代交替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날이 달린 칼이다. 새로운 世代는 낡은 밧줄에 묶이지 않는 柔軟한 改革性을 가지는 反面, 純粹培養의 原則과 未經驗에 의

한 冒險主義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北韓은 金正日의 後繼體制를 굳히기 위해 지금 主體思想의 威信宣揚을 더욱 더 必要로 하고 있으며 世界에서도 類가 없는 聖家族化의 카리스마 만들기를 進行시키고 있다. 이 時期에 이런 정도로 基本方針을 修正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北韓에는 中國과 같은 「4人幫」도 없고 「文革」도 없었다. 失政의 責任을 메넘길 對象이 없는 것이다.

IV. 앞으로의 展望

1. 팀스피리트를 겁내는 北韓

85년 12월 6일 板門店에서 있었던 軍事停戰委員會 本會議에서 北韓人民軍의 首席代表는 오는 봄에도 韓美側이 大規模 軍事演習을 實施한다면 南北對話를 中止할 수 밖에 없다는 立場을 示唆했다. 또한 86년 1월 11일 北韓外交部는 聲明을 통해 「北朝鮮은 2월 1일 以後 半島北部 全域에서 大規模 軍事演習을 하지 않으며 北南對話가 열리는 期間中에는 모든 軍事演習을 中止한다」고 發表, 韓美側에도 同調할것을 要求했다. 蘇聯의 核實驗一方停止發表와도 비슷한 平和攻勢였다. 이에 대해 韓美側은 신중히 對處한 結果 例年보다 期間을 약 2주간 短縮하고 演習自體는 實施한다고 通報했다. 이로 인해 86년 1월 하순부터 2월에 걸쳐 豫定되었던 經濟, 國會, 赤十字의 各會談 接觸은 北側의 抗議에 의해 전부 延期되고 南北對話는 85년 봄에 이어 또다시 中斷되었다.

北韓은 政治와 軍事問題를 항상 連結시켜서 팀 스피리트를 口實삼아 78년에는 赤十字實務會談을 中止, 85년에는 3개월간 經濟, 赤十字의 兩會談을 中斷시켰다. 對話가 열리지 않았던 83년에는 韓美側의 演習에 對應하기 위해 全國에 準戰時態勢를 命했고 84년에는 戰時動員態勢를 強化했다. 85년에도 역시 人民軍最高司令

部가 全軍에 防衛強化 命令을 發하는 한편 許鏞 祖國平和統一委委員長이 中止要求의 談話를 發表했다.

팀 스피리트에 대한 北韓의 見解는 「半島에서의 새로운 戰爭策動的 準備」이며 「朝鮮의 平和와 統一에 대한 挑戰」이며 「對話와 協商 雰圍氣에 찬물을 끼얹는 重大한 軍事行爲」(金日成의 演說과 「勞動新聞」)라는 것이다. 따라서 「軍事演習의 中止는 對話를 成功시키는 必須條件」이며 對決의 姿勢가운데서 對話는 할 수 없다는 것이 平壤의 論理이다.

韓國과 美國側은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年例的인 計劃된 通常的인 防衛演習」이라는 立場으로 實態를 보도록 매년 北側의 參觀團을 招請하고 있다. 그러나 北側이 응한 일은 없다.

日·美·韓의 매스컴은 곧잘 北韓이 兵力을 急激히 增強시킬 「뿐만아니라 65%를 休戰線에 연한 前線에 集結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軍事소식통의 情報가 報告되고 있으나 실은 이와같은 일은 北에게도 마찬가지로 北韓의 報道機關은 「南쪽은 休戰線 연변에 兵力의 90%를 配置하고 戰爭準備를 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전하고 있다. 또한 85년 5월 北韓을 訪問한 田邊 社會黨 書記長에 대해 北韓 首腦는 再三 「南侵의 意思도 能力도 없다」고 되풀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北侵이 威脅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2. 頂上會談의 움직임과 올림픽 폴리틱스

앞에서도 말했듯이 北韓의 對南政策은 韓國의 政治, 社會狀況을 보면서 얼마든지 戰術을 바꾸는 것이 最大의 特徵이다. 예컨대 新民黨의 躍進後의 政局流動과 맞추어 國會會談을 提議한것도 그렇고 85년 中반 韓國의 活動家 學生들이 「3民主義」를 들고나온 反政府行動에 便乘하여 北韓의 僞裝放送 「統一革命黨의 소리」가 同黨의 名稱을 「韓國民族民主戰線」으로 고칠것을 決定했다고 報道한 것도

그렇다. 이 「組織」은 그후 「日本代表部」라는 것도 만들어 한글機關紙「救國戰線」을 日本國內 매스컴 등에도 뿌리면서 심한 反韓宣傳을 펼치고 있다.

「勞動新聞」등에 의한 美帝排擊, 全〇〇政權非難, 韓國內的 反政府運動 찬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여 「賣國逆徒」「親美走狗」등 對話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말을 쓰는것도 여전하다. 日本과 韓國의 搜查當局에 의하면 在日 스파이 工作이나 武裝스파이 南侵事件도 여전하다고 한다. 다만 나포어선의 船員을 早期 釋放, 返還하는등의 國際輿論을 意識한 人道面에서는 最近 신경을 쓰고 있다는 徵候가 보일뿐 南北의 對決色이 옅어졌다는 양상은 전혀 없다.

앞으로의 重點은 우선 86년 중에 南北首腦會談이 열릴것인가, 그리하여 88년으로 臨迫한 서울올림픽에 대해 北韓이 窮極的으로 어떠한 態度를 보일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모아진다.

요즘 클로즈업 되고 있는 全斗煥大統領과 金日成主席의 첫 南北首腦會談에 대해서는 韓國側이 「難局을 한꺼번에 打開하기 위해 無條件」이라는데 대해 北韓의 立場은 「國會會談이 實現되면 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에도 좋은 影響을 미치게 되며 다음에는 最高位會談 實現을 위한 條件이 만들어진다」(勞動新聞)하는 것으로 相互間에는 이 會談의 位置에 관해서 「入口」와 「出口」정도의 차이가 있다. 「만나는 것만도 意義」라고 하는 意見도 있겠지만 議題나 成果發表를 둘러싼 準備에는 雙方 다같이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이다.

올림픽에 대해서는 IOC의 仲介努力에도 불구하고 現在는 전혀 不透明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北이 서울올림픽만은 認定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北에게는 死活의 問題이다.

그렇다면 무언가 危險한 妨害工作의 우려가 있는가. 량군과 비슷한 것이 일어날 것인가 - 불행하게도 美, 日, 中, 韓의 一部 專門家の 意見은 「없다고는 할 수 없다」이다.

北韓은 韓國內에 있는 革命的 潛在性을 誤認하고 「民族的, 民主的인 人士로 바뀌어 진다」고 하는 希望을 갖고 있다. 「南朝鮮社會의 民主化를 위한 싸움은 自主化를 위한 싸움의 第1段階이며 美國은 이를 두려워 하고 있다」고 하는것이 金日成의 認識이다. 「全〇〇政權 排擊」과 「美帝追放」은 國內用으로도 一貫된 原則으로 앞으로도 警戒가 必要하다는 것이 많은 西方側 專門家の 分析이다.

이 危險을 輕減시키기 위해서는 北韓을 國際社會의 「常識圈」으로 끌어 내는것 밖에 없다. 平壤을 孤立化시켜 冒險밖에는 活路를 찾을 수 없는 窮地에 몰아 넣는 것은 上策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北韓의 言動의 뒤에는 언제나 교묘한 政治的 計算이 숨겨져 있어 眞意의 把握이 困難한 경우가 많다. 北韓이 기대를 걸고 있는 韓國 「民主勢力」의 어느 指導者도 「北이 말하는것은 수시 변하기 때문에 전연 信用할 수 없다」고 指摘하고 있다. 88년 올림픽에 맞추어 南北當事者間, 그리고 日, 美, 中, 蘇의 關係 大國間에는 紛爭再發을 豫防하기 위한 多角的인 外交努力이 접칠것이다. 소위 「올림픽 포리틱스」의 展開이다.

經濟的으로 말하면 平壤이 보이고 있는 日, 美와의 融和姿勢가 眞實이지만 그 裏面에는 西方側 輿論에 대해 자신의 「變身」을 아필해서 對北親善 무-드를 높이 고자 하는 속셈이 보인다. 그것이 經濟的인 必要性에 根據하고 있음은 틀림없으나 對南統一政策의 基本에 變化를 가져올 程度에는 이르고 있지 않다. 이 보다는 日, 美와의 融和戰術 自體가 一石二鳥를 노린 統一戰略의 一環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勿論 平壤이 이러한 戰術을 追求해 나가는 過程에서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關係에 새로운 變化가 생길 可能性은 온다. 그러나 그것이 北韓의 基本戰略을 修正시키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豫測할 段階가 아니다.

第 5 章 北韓 軍事力의 評價

< 要 約 >

北韓은 2段階로 軍事力을 增強하여 強力한 軍隊로 成長했다. 다만 人口라든가 國力으로 본다면 갈맞지 않은 크기라고 생각된다.

北韓軍은 金日成의 軍隊로서 金日成의 思想, 軍事路線에 따라 運用되고 있다. 最近에는 金正日이 實質的인 指導를 맡고 있는것 같다. 前方配置등으로 攻勢的인 姿勢를 보이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南侵의 意圖는 없다. 게릴라의 南派는 계속되고 있다.

中蘇의 支援을 받아 裝備近代化를 계속하고 있다. 武器生産 能力은 높고 武器 輸出도 活潑하다.

.....

I. 序 言

北韓의 軍事力 評價는 크게 두개로 갈라진다. 美·韓의 發表나 英國의 國際戰略問題研究所가 發行한 「밀리터리 밸런스」에 의하면 北韓의 軍事力은 國力에는 갈맞지 않게 強力한 것으로 되어 있고 「日本の 防衛」(防衛白書)에서도 이와 같은 評價를 하고 있다. 그런데 北韓要人の 發言이나 中國 소식통으로부터의 情報를 근거로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사람들도 多數 있다. 北韓의 人口나 經濟力으로 보아 그렇게 큰 軍隊를 維持할 수가 없다고 判斷하기 때문이다.

北韓이 極端的인 閉鎖社會이기 때문에 情報가 적고 그 軍事力의 實態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지만 1985年 8月 15日의 「祖國解放 40주년」 記念式典의 퍼레이

드에서 北韓은 처음으로 그 軍事力의 一部를 公開한 바 있다. 이것을 보면 北韓은 豫想했던 바와 같이 (또는 그 以上으로) 強力한 軍隊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튼 北韓 人民軍은 東北 아시아에서 最強力部隊의 하나로서 潛在的인 威脅이 될수 있는 實力이 있는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獨裁國家에서는 國力の 많은 部分을 軍事力에 集中시킬 수 있기 때문에 西方諸國의 尺度에 의한 人口比나 經濟力으로는 推定할 수 없는바가 있다.

II. 最近의 兵力推移

1. 2次에 걸친 兵力增強 - 強力한 軍隊의 成長

「밀리터리 밸런스」등에 發表된 北韓兵力의 推移는 다음 表와 같다. 表 가운데 戰力을 判斷하는 代表的인 裝備로서 地上軍은 戰車, 海軍은 潛水艦, 空軍은 作戰機를 채택했다.

年	總兵力 (萬人)	國防費 (億弗)	地上軍		海軍		空軍	
			兵力(萬人)	戰車	兵力(萬人)	潛水艦	兵力(萬人)	作戰機
1975	49.5	8.78	43	1,150	2.0	8	4.5	600
76	50	10.0	43	1,750	2.5	10	4.5	630
77	51.2	10.3	44	1,950	2.7	15	4.5	655
78	57.6	12.7	50	2,200	3.0	12	4.6	630
79	67.8	?	60	2,600	3.1	12	4.7	?
80	67.8	13.0	60	2,600	3.1	16	4.7	615
81	78.2	14.7	70	2,600	3.1	19	5.1	700
82	78.4	17.0	70	2,600	3.3	19	5.1	700
83	78.45	19.2	70	2,600	3.35	21	5.1	740
84	78.45	※ 20.4 40.86	70	2,675	3.35	21	5.1	740
85	83.8	41.96	75	3,275	3.5	20	5.3	800
備考	※ 上段은 「밀리터리·밸런스」1984~85年版 : 下段은 同 1985~86年版에 의한 數							

표를 봐서 알수 있듯이 北韓의 軍事力은 주로 地上軍이 最近 2段階로 強化되었다. 第1次는 1978~79年, 第2次는 1981年이다.

이 가운데 第1次때의 增強은 美國防省이 1979년에 2~3년간 신중히 檢討한 결과 北韓의 兵力이 異常하게 增大되었다는 것을 確認했다고 發表한 바 있는데 한꺼번에 增大한 것은 아니고 훨씬 전부터 漸增한 것인지도 모른다.

관련된 情報로서는 北韓이 1974년에 徵兵年齡을 18세로부터 17세로, 1976년에는 다시 16세로 引下한 바가 있다. 이것은 北韓이 兵力數를 增加시키기 위해 취한 措置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制度變更으로 본다면 제1次の 增強역시, 한꺼번에 增強시켰을 可能性도 있다.

카터 大統領이 駐韓美軍의 撤收를 韓國에 公式通告한 것은 大統領에 就任한 直後인 1977년 3월이었다. 그리고 그의 撤收方針을 完全히 中止한 것이 1979년 2월로 이 方針의 變更은 前記 北韓의 異常的인 兵力 增強이 크게 影響을 미친 것으로 中止 理由가운데 明示된바 있다. 이 점에서 볼때 美國防省의 北韓兵力增強 發表가 多少의 政治的 色彩를 띠고 있다고 할수 있으나 現實的으로 北韓 地上軍의 兵力增強이 있었다는 것은 確實한 것 같다.

두번째의 增強은 1981년인데 이에 앞서 1980년 北韓은 아무런 理由없이 지금까지의 兵役義務期間을 陸海軍에 대해 2年 延張해서 陸海軍 5年(空軍 3~4年)으로 改正했다. 이것은 兵役要員을 確保하기 위한 措置였다고 생각된다.

戰車는 中國의 技術指導에 의해 이미 國產化 되었다고 하나 엔진 등은 輸入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1985년에 큰 폭으로 增加하고 있는 것은 中國의 技術指導에 의한 戰車工場이 1984년부터 操業을 시작한 때문이라고 하나 確認되지는 않았다.

潛水艦은 소련과 中國으로부터 各 4隻씩 供給되었고 其他 12隻은 國內生産한 것이다. 1984년에 1隻이 減少되었는데 이것은 潛航한채 浮上하지 않은 潛水艦이 한척 생겼기 때문이다. 이 事故로 乘船員 全員이 死亡한 것으로 보인다.

1983년에 作戰機가 40臺 增加하고 있는데 이것은 中國으로부터 MIG-21 同型機가 供給되었기 때문이다. 1985년에 增加한 作戰機의 臺數는 잘 알수 없다. 소련이 供與한 MIG-23, 26機는 이 表에는 아직 包含되어 있지 않는데 85년 增加分은 國內 生産인 것인지도 모른다. 中國이 北韓에게 MIG-21 (同型機) 生産 施設 및 技術을 供給했다고 하는데 그 工場이 生産을 開始했는지도 모른다.

2. 國力으로 본 推定 - 強力하지 않다고 하는 見解

北韓의 軍事力을 그렇게 強力하지 않다고 하는 見解는 주로 北韓과 가까운 소식 통에서 나온 것이다.

1983년 9월 12일 金佑鍾 黨對外委 副議長은 北韓의 地上軍은 30萬을 약간 上廻할 정도라고 처음으로 具體的인 數字를 들어 說明했다. 또한 北韓事情에 밝은 中國人民解放軍 副總參謀長은 訪中한 自衛隊 幹部에게 「北韓軍은 美國 등이 公表하고 있는 정도로 強力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南侵威脅을 否定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資料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國民 1,000명당 兵力負擔

北 韓	41.7명	蘇 聯	19.2명	이태리	6.7명
이스라엘	33명	불란서	8.6명	英 國	5.8명
韓 國	14명	獨 逸	7.8명	日 本	2명
美 國	9명				

이 表에 따르면 北韓의 兵力負擔은 最大로, 이스라엘 보다도 높고 美·英 등의 약 5倍이다. 이렇게 되면 經濟活動을 크게 壓迫하게 되며 나라로서는 得策이 아니다. 이 때문에 北韓은 軍隊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아 그 組織을 活用해서 相當部分을 生産活動에 從事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見解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北韓의 兵力負擔은 큰 것이며 國力の 밸런스를 깨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 西方側에서 公表한 兵力數가 誇張된 것이 아닌가 하는 意見은 이 점에서 나오고 있다.

② 國防豫算

兵力 1人當의 國防豫算은 自衛隊의 약 700 만엔에 대해 韓國은 160 만엔, 北韓은 약 60 만엔이다. 이 經費 중에는 人件費도 포함되며 韓國과 北韓은 人件費가 自衛隊처럼 많지 않아서 (北韓의 國防費 중에는 人件費가 包含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실질적으로는 近接된 數置로 보이지만 이러한 條件을 감안해 보더라도 北韓의 國防費는 아무래도 적어서 이것으로는 많은 兵力을 維持할 수 없다는 見解가 생긴다.

단 北韓의 國防費는 다른 名目の 費用에 包含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公表된 國防費를 그대로 自衛隊의 개념에 의한 國防費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GNP가 韓國의 1/5 (1985년 12월 28일, 韓國國土統一院, 1984년 韓國 811 억불, 北韓 141 억불)에 지나지 않는 北韓이 韓國을 上廻하는 軍事力을 常時 維持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하는 推定이 可能하다.

이상은 北韓의 軍事力이 큰 制約下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韓·美 등 西方側의 추정은 너무 過大한 것이 아닌가 하는 見解에도 충분한 理由가 있다.

이 見解는 일단의 事實을 指摘하고 있는 점도 있으며 하나의 參考資料로서 考慮의 對象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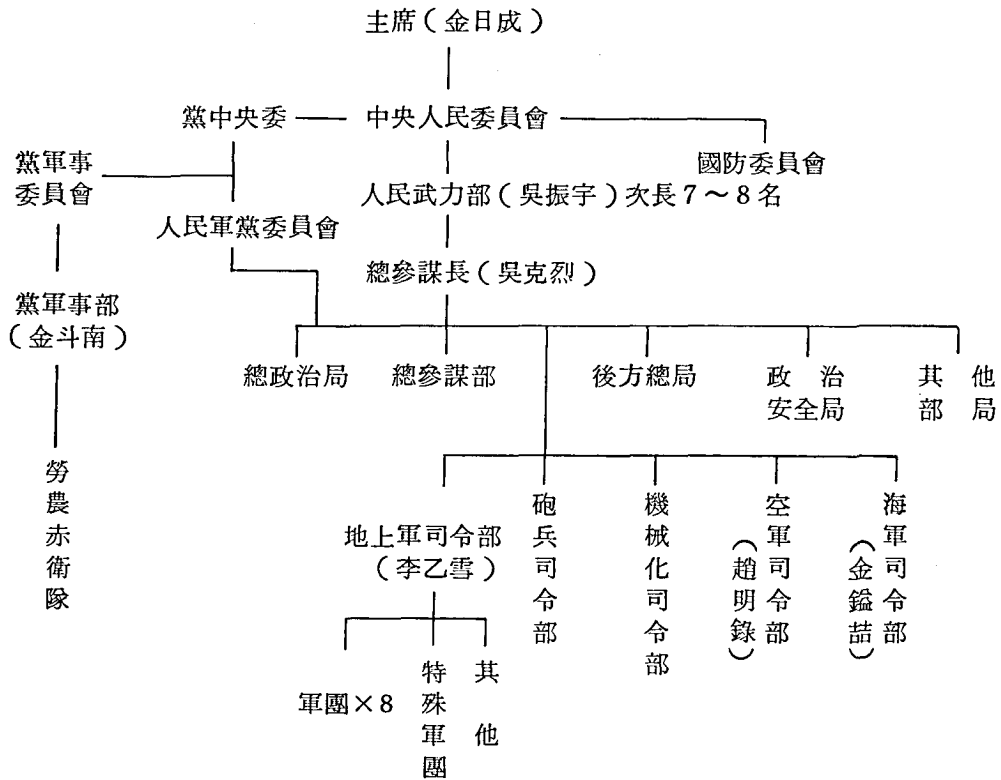
①, ②항을 총괄한 北韓의 軍事力은 國力으로 볼 때는 걸맞지 않을 정도로 強力한 것이며 周邊諸國에 대해 潛在的 威脅이 될 수 있으나 한편 人的資源이나 經濟力으로 推定해 봐도 크게 無理를 하고 있는 狀態에 있어 이것을 오랜 期間에 걸쳐 繼續 한다는 것은 國內經濟나 民生上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狀態를 可能케 하는 것은 金日成의 強力한 리더쉽과 南北對決이라고 하는 非常狀態를 지속시키고 있는 點에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金日成이

南과의 對話에 강한 意慾을 보이고 있는 것은 金日成 以後를 豫想한 이들 情勢에 關係가 있다고 생각된다.

Ⅲ. 軍의 組織

軍上級 指導組織은 다음 그림과 같다.



(註) 特殊軍團은 兵力 約 10 萬名. 地上部隊에는 其他 機械化司令部 下에 3 (~4) 의 機械化軍團이 編成되어 있다.

〈黨軍事委員會의 構成〉

金 日 成	主席	元帥
金 正 日		
吳 振 宇	次帥	人部武力部長
全 文 燮	上將	(降等 ?)
吳 克 烈	大將	總參謀長
白 鶴 林	〃	(社會安全部長)으로 轉出
金 江 煥	中將	
太 炳 烈	〃	
李 乙 雪	大將	總政治局長
朱 道 日	〃	
李 斗 益	〃	
趙 明 錄	上將	空軍司令官
金 鎰 喆	〃	海軍司令官
崔 相 旭	中將	
李 奉 遠		
吳 龍 訪	中將	
金 斗 南	大將	黨軍事部 秘書?

(註) 全文燮, 白鶴林은 最近 退任했을 可能性이 있다.
其他 大將으로서는 金奉律, 金光鎮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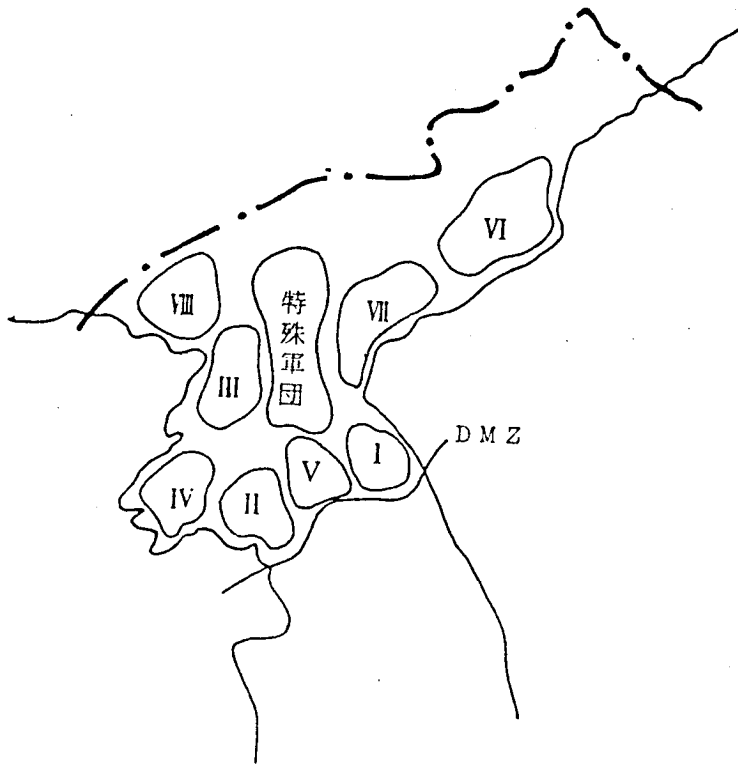
〈北韓軍 上級組織의 特色〉

① 軍은 一般 指揮系統 外에 黨의 指揮를 받아 2重統率의 형을 취하고 있다.

② 北韓은 南侵準備를 위해 政治·軍事를 統一指導하기 위한 「戰略安保計劃委員會」를 發足시켰다고 하나 이 委員會가 어디에 位置하는지 분명치 않다. 아마 「國防委員會」의 變則的인 運用이라고 생각된다.

③ 北韓의 兵器, 裝備 시스템은 소련系의 것과 中國系의 것 두개가 있으나 中·蘇의 뿌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運用에 특별한 支障은 없는것 같다.

〈北韓 地上軍의 配置〉



IV. 北韓軍의 特色

1. 金日成의 軍隊

北韓의 軍隊는 金日成의 思想에 의해 組織 運用되고 있는 金日成을 위한 軍隊이다.

① 金日成의 戰爭觀

金日成의 戰爭觀은, 毛澤東의 思想과 비슷하게, 「帝國主義가 있는 限 戰爭의 危險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北韓은 이것에 對備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戰爭을 바라지는 않으나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 우리 人民과 人民軍隊는 帝國主義의 侵略에는 報復하고 全面戰爭에는 全面戰爭으로 응한다」 (1968년 2월8일)고 말하고 있다.

當面한 敵인 帝國主義는 美國으로서, 美帝國主義에 대해서는 작은 나라들이 團結해서 美國의 部分部分을 차례로 打擊을 주어 美國의 힘을 全世界로 分散시켜 이것을 各個 擊破하는 戰略을 취할것을 強調하고 있다.

이 戰略은 毛澤東의 思想과 비슷한 바가 있으나 틀리는 점은 毛澤東의 「戰爭不可避論」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防衛力을 철벽같이 굳히면 敵은 우리를 攻擊하지 않는다고 해서, 戰爭을 피할수도 있는 可能性을 示唆, 戰爭觀에 약간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

② 4大軍事路線과 3大革命力量

金日成의 軍事思想을 具體化 한 것으로 4大軍事路線과 3大革命力量論이 있다.

4大軍事路線은 1962년 12월 朝鮮勞動黨 第4期 第5次 中央委 總會에서 채택된 것으로 國防力의 強化를 政治의 最優先施策으로 하는 것을 決定한 黨의 基本路線이다.

4大軍事路線은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近代化

를 말하며 이 路線은 오늘에도 變更없이 繼續되고 있다.

3大革命力量論은 1964년 2월의 黨 中央委 第4期 第8次 總會에서 決定하여 1965년 4월 10일 訪問中인 인도네시아 아리 알라람 社會科學院에서 金日成이 처음으로 發表했다. 그 主旨는 北韓을 革命的 基地로 하고 韓國內의 革命力量을 強化시키고 國際共產革命力量을 高揚시켜 이 세계의 革命力量을 높임으로써 韓半島의 統一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다. 金日成은 演說가운데 「첫째로 共和國 北半部에 社會主義建設을 成功裡에 遂行하여 우리들의 革命基地를 政治·經濟·軍事的으로 더욱 強化할 것이며, 둘째로 南朝鮮 人民을 政治的으로 覺醒시켜 굳게 結束, 일떠 세움으로써 南朝選의 革命力量을 強化하고, 셋째로 朝鮮人民과 國際革命力量과의 團結을 強化 함으로써 우리 祖國의 統一, 朝鮮革命의 全面的인 勝利를 獲得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③ 金日成의 軍事戰略

韓國戰爭때까지는 金日成이 특별한 軍事戰略 같은 것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戰爭의 아픔을 통해 그리고 中國軍과의 共同戰鬥에 의해 金日成은 戰爭에는 强者의 軍事戰略과 弱者의 軍事戰略이 있다는 것을 深刻하게 體驗했다.

이로 인해 金日成의 軍事戰略은 毛澤東의 影響을 받아 基本的으로 그 戰略과 類似하다. 이것을 要約하면 게릴라 戰과 正規戰의 調和이다. 즉 初期段階에서는 主로 게릴라 戰鬥에 의해 相對方의 戰力을 消耗시키고 이 사이 機械化 部隊를 中心으로 하는 正規戰力을 蓄積한다. 相對方과의 힘의 밸런스가 有利해 졌을 때, 好機를 타서 유격전과 調和 시키면서 正規戰을 해서 단번에 相對方의 凱門을 기하는 것을 戰爭指導의 基本으로 한다는 생각이다.

이 方針에 根據해서 金日成은 不正規 手段으로 韓國에 潛入, 게릴라 戰을 하기 위해 AN-2 小型 輸送機, 小型 헬리콥터, 高速 보트, 潛水服 등을 多數 準備하고 DMZ를 가로지르는 地下 터널까지 構策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機械化 部隊와 步兵師團을 育成해서 이것을 前線 가까이 配置하여 正規戰의 準備에도 힘을 쏟고

있다.

金日成은 1970年 第5次 黨大會에서 「우리나라는 山과 江이 많고 海岸線이 길다. 이러한 地形條件을 利用하여 山岳戰과 夜間戰鬪를 교묘히 해서, 正規戰과 유격전을 올바르게 結合시킨다면 아무리 最新軍事技術로 武裝된 敵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擊破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金日成의 基本的인 軍事戰略이라고 한다.

2. 建軍의 目的 - 韓半島의 統一 -

北韓軍은 1948년 2월 8일 北韓이 國家로 宣布되기 6개월 전에 發足했다.

發足を 맞아 金日成은 「우리 人民은 美帝와 그 走狗들의 民族分裂政策을 손을 놓고 傍觀할 수는 없다. … 軍隊를 組織해서 統一民主祖國의 創設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南朝鮮 人民은 오늘 創設되는 軍隊를 그들 自身の 軍隊, 그들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人民軍의 目的이 祖國統一에 있다는 것을 強調했다.

이와 같이 北韓軍은 發足當初부터 南北의 統一 즉 侵略을 目的으로 해서 創設된 世界에서도 類例를 볼수 없는 軍隊이다. 이 人民軍의 目的은 그 후에도 修正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黨의 支配

北韓軍의 또 하나의 特色은 黨의 支配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人民軍은 中隊에 이르기까지 指揮官과 나란히 政治將校가 配屬되어 있고 이 政治將校는 總政治局 系統으로 指導되고 總政治局은 人民軍黨委員會를 거쳐 黨中央委에 直結되고 있다. 이 系統의 指導는 強力해서 北韓軍은 雙頭指揮를 받고 있는 形態가 되어 있다.

指揮의 2重構造는 소련이나 中國 軍隊도 마찬가지 이지만 北韓의 경우는 政治(黨)의 指導가 보다 強力한 것으로 생각된다. 平時에는 이것이 큰 支障이 없으

나 有事時에 有効하게 機能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問題가 있다고 생각된다.

V. 最近의 두드러진 行動과 傾向

1. 金日成으로부터 金正日에게로

最近의 현저한 움직임으로 注目되는 것 가운데는 北韓 人民軍의 指揮權이 實質的으로 金正日에게 移行되어 있는게 아닌가 보이는 점이다.

그 징후의 하나는 人事配置이다. 當初부터 革命구름으로서 功이 있었던 金日成 사람인 全文燮, 白鶴林 등은 1985년 10월 시점에서 軍의 要職에서 물러갔다는 것이 分明해지고 軍의 實權은 人民武力部長 吳振宇(吳振宇는 金正日の 有力한 後見 人이기도 하다) 등 2~3인을 除外하면 새로운 世代의 吳克烈, 金江煥, 趙明錄, 金鎰喆, 李奉遠 등의 金正日 時代의 人物들에게 옮겨지고 있다. (빨치산 구름으로 는 太炳烈, 李乙雪, 李斗益이 아직도 남아있다)

蘇聯은 1985년 5월부터 MIG-23을 北韓에 供與하기 시작했는데 當初에는 이 것이 소련軍이 金正日에게 주는 膳物이라고 報道되었다. (이 膳物이 MIG-23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1985년 11월 16일 金日成 綜合大學創立 40周年 祝賀文에서 吳振宇는 「親愛하는 指導者 同志(金正日)는 偉대한 首領의 主體的인 軍事教育思想을 빛나게 繼承시켜 (北韓軍을) 賢明하게 이끌고 있다」고 말해 軍의 實質的인 權限이 이미 金正日에게 引繼되었음을 示唆했다.

이러한 徵候로 보건대 北韓軍은 이미 金正日이 指導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最高指導者가 金日成인 것은 변함없다.



2. 軍의 攻擊的 配置

北韓軍이 攻擊的인 配置를 취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것은 軍의 前方配置 때문에 韓美側으로부터 警戒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特히 機甲部隊를 지금까지의 後方 要地의 獨立的 配置로부터 機甲軍團(3~4)으로 集約시켜 前方에 配置한 것은 이 組織이 攻擊에 有利하다는 점에서 注目된다.

3. 生産活動에의 參加

또 하나의 현저한 行動은 軍의 生産現場에의 進出이다. 北韓軍은 지금까지도 工事, 援農 등으로 民生活動을 하고 있었으나 最近에는 이것을 強化시키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報道가 종종 보인다.

그 하나가 南浦開門 工事이다. 招待 받은 新聞記者나 旅行者의 報道에 의하면 이 開門은 軍이 工事의 全責任을 맡았고 最盛期에는 3個師團을 投入했었다고 한다.

그외 農作業에 軍人の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旅行者의 證言도 있다.

北韓 要人も 이것을 뒷받침 할만한 發言을 한바 있으며 北韓軍은 民生協力을 적극적으로 進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南侵意圖

北韓軍은 配置를 攻擊的으로 바꾸거나 主力을 前方에 配置하든지 하고 있으나 지금으로는 主力을 가지고 南侵을 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金日成 戰略으로는 現在는 게릴라戰 段階로 이를 위해 海岸線이나 DMZ를 통과해 侵入하는 게릴라·間諜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北韓은 短期間으로는 獨力으로 南侵할 能力을 갖고 있지만 駐韓美軍이 存在하는 現 段階에서는 中·蘇의 強力한 支援(소련만의 경우도 있다)이 없는 限 南侵의 目的을 達成할 수는 없다고 생각 된다.

이 때문에 北韓이 당면한 最大의 目的은 駐韓美軍의 撤收이다. 北韓은 南北對話



를 비롯해 모든 機會를 利用해서 駐韓美軍의 撤收를 主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最近에는 北韓에도 對話를 통한 統一路線이 싹을 트기 시작하여 南北對話에 眞實性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北韓의 軍事路線에 變更이 올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VI. 武器生産

北韓의 武器生産能力은 높은 水準에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航空機 生産에 있어서는 中國의 技術指導에 의해 1983년에는 헬리콥터를, 1985년에는 MI G-21 同型機를 생산해 낼수 있다고 한다. 工場은 平壤과 龜城(平壤北方 약 100 km)의 2個所가 있으며 그 生産能力에 대해서는 報道가 없다.

이외 1985년에는 폴란드로부터 헬리콥터 Mi-2의 技術을 導入했다. 이 헬리콥터는 乘員 7~8명, 時速 170 km이다.

極東地域에서 航空機를 生産하고 있는 것은 日本, 中國을 除外하면 지금으로서 는 臺灣, 韓國 뿐인데 北韓이 航空機를 生産한다는 것은 그 技術水準이 높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기타 北韓은 戰車, 裝甲車, 自走砲도 生産하고 있으며 對戰車 米사일은 蘇聯으로부터 「사가」 6셀트를 購入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目下 開發中이라고 한다. 對戰車 米사일을 生産하기 시작하면 地上部隊의 武器는 거의 모두가 國產化 된다.

對艦 米사일은 中國의 CSS-2를 모방 생산하고 潛水艦, 水中翼船魚雷 등도 生産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은 一般工業에 비하여 軍需産業이 앞서 있으며 武器輸出도 活潑하다. 지금까지의 最大 輸出先은 이란이었다. 이란에 대해서는 T-62 戰車(소련제? 국산?) 150臺, 迫擊砲 1,000문, 野戰砲는 400門, 對空火器 600

門 등 8億 5,000萬弗 분을 輸出했다고 한다.

北韓이 最近 輸出한 武器는

1979년 1억 4,000만불

1980년 3억 7,000만불

1981년 3억 1,500만불

1982년 4억 7,400만불

로 되어있고 1983년 이후에는 이미 3~4억불을 維持하고 있다고 한다. 輸出武器의 重要한 것으로는 小銃, 機關銃, 小型火器, 彈藥, 爆雷 등으로 一般的으로 操作이 간단하며 취급이 用易하기 때문에 好評을 받고 있다.

Ⅶ. 中蘇로부터의 軍事援助

中·蘇의 北韓에 대한 軍事援助는 最近에 들어 活潑化 하고 있다. 1982년에는 中國이 MIG-21 40臺를 北韓에 供給하고 또한 同機生産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였다. 그의 T-62 輕戰車를 供與했다.

1984年の 金日成의 訪蘇는 數年間 中斷되었던 소련의 北韓軍事援助 再開의 契機가 되었다. 蘇聯은 1985년 5월 6臺를 시작으로 MIG-23 戰鬥機 26臺를 北韓에 供給했다. 最終的으로는 40~50臺를 供給한게 아닌가 하는 情報도 있다.

其他 對空 미사일 SA-6/8, 스캇트 등의 供給도 約束했고 一部는 이미 北韓에 到着했다고 한다.

中蘇, 특히 소련이 北韓에 대한 軍事援助를 活潑化(蘇聯은 1979년 이후 援助를 中斷해 왔다)시킴으로 해서 韓半島의 南北軍事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中蘇의 援助가 限定的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소련이 MIG-23을 계속적으로 援助하게 된다면 韓國이 保有하

는 T-4 戰鬥機(約 70 臺)와의 밸런스가 問題가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蘇聯이 그런 정도로 積極인 援助를 할 徵候는 없고 北韓의 支拂能力에도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VIII. 北韓軍事力の 綜合評價

北韓의 人民軍은 이상 說明한 바에 의해 밝혀졌듯이 國力으로 維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限界 以上으로 強力한 軍事力을 갖추고 있다. 그 數는 1970 년대와 80 년대초의 2 단계 增強에 의해 韓國의 陸海空 전부를 上廻하게 되고 또한 裝備 近代化로 中蘇의 援助를 받아서 着實하게 나아가고 있다.

人民軍은 金日成의 軍隊이며 그 目標은 韓半島의 統一, 즉 南侵하는 것이다. 金日成의 思想에 바탕을 두고 4大軍事路線, 3大革命力量論을 堅持하고 戰鬥에서는 게릴라戰과 正規戰을 교묘히 調和시키면서 最終的으로는 戰力을 集中해서 一擊에 敵을 殲滅하는 戰術을 取한다.

最近에는 金日成의 軍隊가 實質的인 權限을 金正日에게 委讓했다는 徵候가 보인다.

北韓은 中蘇로부터 武器, 裝備를 供給받고 있으며 最近에는 蘇聯으로부터 最新銳의 MIG-23 戰鬥機를 供給받았다.

武器生産技術도 높고 武器輸出도 活潑히 하고 있다. 綜合的인 戰力으로는 韓國을 上廻하고 있으며 駐韓美軍의 存在로 밸런스가 維持되고 있다고 보인다. 現在로서는 散發的인 게릴라戰을 하는 것 외는 南侵武力統一의 意圖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록 南侵을 하더라도 어느 程度 강력한 中蘇의 支援이 없는 限 韓美軍을 擊破할 實力은 없는 것으로 判斷된다.

第 6 章 經濟開放의 摸索

〈 要 約 〉

北韓의 經濟建設에 대해서는 現在 第2次 7個年計劃과 80년대 말까지 達成하도록 되어 있는 社會主義建設의 10大 展望 目標의 推進이라고 하는 두개의 스토리가 걸려 있으나 점차 第2次 7個年計劃의 그림자가 얽어지고 同 計劃의 達成이 困難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84년 9월 北韓에서는 合營法이 制定되었다. 이것만으로 北韓이 바로 開放經濟體制로 향한다고 判斷할 수는 없으나 重大한 選擇임에는 틀림없다.

北韓의 經濟開放 展望을 생각할 때, 東아시아의 國際情勢(특히 美·蘇 關係에 特別한 變化가 없을것)나 南北對話가 계속되어 漸進적으로 進行될것 등을 커다란 規定要因으로 하는 前提下에서 經濟開放을 促進하는 要因과 制約하는 要因을 檢討해 보겠다.

I. 序 言

北韓에서는 1978년부터 84년까지 第2次 7個年計劃을 實施했다. 그 사이 80년의 勞動黨 第6次大會에서는 第2次 7個年計劃과의 關係에 대해서 아무런 說明이 없는채 새롭게 80년대 말까지 達成해야 할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10大 展望目標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그 후의 經濟建設에 있어서는 第2次 7個年計劃의 達成과 10大 展望目標의 推進이라고 하는 두개의 스토리가 내걸리게 되었으나 第

2次 7個年計劃의 그림자가 점차 얹어지고 同計劃의 達成이 重大한 困難에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84년 9월 北韓에서는 合營法이 制定되었다. 지금까지 北韓의 經濟體制가 극도로 閉鎖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劃期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合營法이 制定되었다고 해서 北韓이 바로 開放經濟體制로 향한다고 보는데는 問題가 있지만 重要한 岐路에서 北韓이 하나의 選擇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다.

合營法制定을 위한 基盤構築이었던 것이 같은 해 1월의 最高人民會議 第7期 第3次 會議에서 採擇된 「軍事協力과 對外經濟事業을 強化하여 貿易을 一層 發展시키기 위하여」라는 決定이었다. 이 決定直後인 2月에는 金永南副總理兼 外交部長이 中國을 訪問하면서 그 日程 중에 廣州, 深圳이 包含되어 있어 合營法制定에 있어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을 면밀히 檢討했 던 것 같다.

北韓의 指導部가 合營法制定을 決定한 背景에는 몇 개의 要素가 있다. 우선 생각되는 것이 經濟面에서의 最近의 形便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후에 다시 詳論하겠다. 그 외에 對外的 이미지 改善, 특히 3者會談 提案의 核心인 對美交涉을 實現하기 위해 側面的 效果를 노렸다는 점도 否定할 수 없다. 또한 金日成의 後繼者로서의 金正日이 앞으로의 政策展開의 幅을 더 自由롭게 하기 위해 父親의 時代에 先例를 남겨 둔다고 하는 要因도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合營法制定의 基本的인 背景은 무어라 하더라도 經濟面인 것이며 그 외는 말하자면 副次的인 것이라 해도 좋다.

다음으로는 最近의 北韓의 經濟動向을 第2次 7個年計劃의 實行結果를 中心으로 檢討해 보자.

II. 經濟의 現狀

1. 第2次 7個年計劃의 實績概況

第2次 7個年計劃은 1977년 12월 最高人民會議 第6期 第1次會議의 決定에 따라 78년부터 實施했다. 計劃은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促進시켜 社會主義經濟土臺를 더욱 強化시키고 人民生活을 한층 더 向上시키는 것」을 基本課題로 해서 期間中에 工業總生産額을 2.2倍(年平均增加率 12.1%)로, 穀物生産을 850萬톤으로부터 1,000萬톤으로, 國民所得을 1.9倍로 각기 擴大할것 등을 主要目標로 定했다.

이렇게 해서 出發한 第2次 7個年計劃이었으나 그 遂行過程은 어떠했는가. 結論적으로 말하면 工業은 當初 2, 3年 정도는 順調롭게 伸張되었으나 그 후에는 不安定하게 되어 生産과 建設 兩面에서 伸張이 鈍化되고 順調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農業은 穀物生産이 여전히 氣候에 左右되어 不安定했으나 長期的으로는 生産 增大의 傾向이 나타났다. 그러나 第2次 7個年計劃의 遂行狀況은 全體的으로 보아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이었는지 第2次 7個年計劃이 終了된 1984년에는 計劃의 遂行狀況에 대해 전혀 公式的인 言及이 없었고 1985년의 金日成 新年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北韓의 지금까지의 慣例로 본다면 극히 이상한 事態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5년 2월 16일 돌연 朝鮮中央通信은 「人民經濟發展 第2次 7個年(1978~84)計劃을 完遂한데 대하여」라는 中央統計局 報道를 傳했다.

여기서 이 中央統計局 報道에 따른 第2次 7個年計劃의 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工業部門에서 第2次 7個年計劃은 總生産額의 面에서 超過達成되어, 期間中 工業生産額은 2.2倍(生産手段의 生産은 2.2倍, 消費財의 生産은 2.1倍)로

增加하고 工業生産의 年平均 成長率은 12.2%로 達成했다. 膨大한 工業建設이 이루어졌고 또한 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에 노력한 結果, 工業은 國內資源에 확고히 依據할 수 있게 되고 內部構造가 完備되어 自立性和 立體性이 強化되었다.

(2) 農業部門에서는 1,000萬톤의 穀物生産目標가 達成되어 穀物以外的 部門도 급속히 發展했다. 水利化가 擴大되고 農業의 綜合的 機械化和 科學化에도 큰 成果가 있었다.

(3) 交通運輸部門에서는 鐵道の 貨物輸送量이 1.8倍로 增加하고 鐵道電化가 거의 完成段階에 達했다. 自動車와 船舶의 貨物輸送量도 각기 2.2倍, 2.8倍로 增加, 對外貨物輸送量은 5.1倍로 成長했다.

(4) 南浦閘門 建設 등 大自然改造 事業과 都市 建設이 推進되어 많은 記念碑的 建築物이 建設되었다.

(5) 人民生活을 높이는 課題도 成功裡에 遂行되어 1984년의 國民所得은 1977년에 비하여 1.8倍로 增加, 勤勞者의 實質所得도 增大했다.

(6) 教育, 藝術, 保健 등 文化革命의 分野에서도 큰 前進이 있었다.

이 中央統計局 報道는 6個年計劃(1971~76)의 경우, 1975년 9월에 計劃의 目標達成을 알리는 형태로 나왔으나 이번은 狀況이 다르다.

6個年計劃의 경우에는 目標達成의 可能性이 훨씬 빠른 時期부터 進해졌었다. 그러나 이번의 中央統計局 報道에 의한 第2次 7個年計劃 達成의 뉴스는 극히 돌연적이란 印象을 주었다. 發表日이 2월 16일로 金正日의 生日이었던 일과 함께 信憑性에 疑問을 가져왔다.

이번의 中央統計局 報道는 第2次 7個年計劃의 公式 總括이 아니기 때문에 計劃의 課題나 目標와 實行의 結果를 比較檢討 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그러나 이것을 基礎로 해서 第2次 7個年計劃의 實績을 檢討해 보자. 우선 工業總生産額의 年平均 增加率은 目標 12.1%에 대해 實績 12.2%로 되어 있어 확실히 目標를 達

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6 個年 計劃의 年平均增加率 16.3 %에는 下廻하는 것이나 世界的으로 보아 대단히 높은 增加率이다. 社會主義諸國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높은 增加率을 達成하고 있는 中國의 경우 1978 ~ 84 년의 7 年間 工業總生產額 增加率は 年平均 9.6 %이다. 北韓은 中國을 上廻한 것이 된다. 工業의 높은 伸張率에 主導되어 國民所得도 增加하였다. 目標에는 약간 下廻했으나 實績은 1.8 倍 (年平均 8.4 ~ 9.1 % 增)로 대단한 成績이다. 또한 穀物生産이 目標인 1,000 萬톤을 達成한 것이라든가 鐵道貨物輸送量의 目標超過達成, 小賣商品流通額의 目標達成, 여기에 困難한 條件下에서의 基本建設의 推進 등 그 發表內容은 多少에누리 한다 하더라도 第2次 7 個年計劃이 達成한 成果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基本的인 問題點이나 疑問點이 있다.

以下 主要한 部門의 實績에 대해 檢討해 보자.

2. 主要部門의 實績과 問題點

[工業]

工業部門에서의 問題點은 실사 지금까지의 發表數字가 옳다고 하더라도 첫째로 工業總生產額의 增加率의 變動이 크고 또한 增加率의 低下가 나타나고 있다. 工業總生產額의 增加率은 第2次 7 個年計劃의 7 年間中 1981, 83, 84 년의 3 년간에 대해서는 公表되지 않았다. 計劃期間中の 工業總生產額 增加率이 發表대로 年平均 12.2 % 였다고 하면 1981, 83, 84 3 個年の 平均增加率은 6.8 % 였다는 것이 된다. 計劃期間中の 工業總生產額은 前半은 높은 伸張率이었으나 그 후 크게 變動한 것이 되며 後半에 와서 伸張의 鈍化가 눈에 뜨인다. 이러한 傾向은 工業生産面 뿐만 아니라 工業部門의 基本建設 完工件數, 技術革新案 採用件數의 趨勢에도 나타나고 있다.

第2次 7 個年計劃이 工業生産額에서 目標를 達成하고 個個의 分野에서 어느 程

度の 成果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全般的인 傾向으로서는 當初 2~3 年間の 好調로부터 漸次 줄어들어 가는 狀況이 되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다. 北韓이 公表한 數字 가운데 國家의 每年의 經濟狀態를 總括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重要한 指標은 國家 歲入 增加率의 動向일 것이다. 北韓의 國家歲入은 企業의 差引收入金과 國營企業 利益을 主要한 財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企業活動이 活潑하여 利潤이 增加하면 그만큼 國家의 歲入도 增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近年의 國家歲入 增加率을 보면 6 個年計劃期間의 年平均이 15.4% 였던데 비해 第2次 7 個年計劃期間에서는 9.7%이다. 확실히 第2次 7 個年計劃期間中の 趨勢로서 國家歲入의 伸張에 顯저한 鈍化가 보인다. 北韓의 경우 長期的으로 보아 工業生産率의 增加率과 國家歲入의 增加率 사이에는 강한 聯關關係가 있다.

둘째로 工業部門에서의 第2次 7 個年計劃의 基本戰略은 動力工業과 採取工業, 즉 에너지·原料部門의 先行的 發展에 의한 既存加工部門의 生産正常化(물稼動)라는 점에 두었으나 이 戰略이 奏効했다고 하는 狀況에는 훨씬 멀다는 것이다. 中央統計局 報道로는 工業部門에서 第2次 7 個年計劃의 石炭, 化學肥料, 시멘트, 織物, 水産物의 各 生産目標가 達成되었다고 한다. 이들 5 個 品目は 1980 년대 말까지 達成해야 할 10 大 展望目標 品目으로서 報道가 事實이라고 한다면 第2次 7 個年計劃의 目標達成의 意義는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公式發表에 의해서도 工業部門에서는 10 大 展望目標 品目 가운데 電力, 鐵鋼, 非鐵金屬의 3 品目이 計劃目標 未達成이었다. 電力은 石炭과 함께 에너지源의 中心이며 鐵鋼, 非鐵金屬은 加工工業部門에 대한 原材料供給源이 되고 있다. 이 3 品目이 計劃目標 未達이었다는 것은 에너지原料部門의 先行的 發展이라고 하는 課題의 實現上 滿足할만한 狀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세째로 中央統計局 報道에 의하면 「重要工業製品의 生産量」으로서 17 個 品目の 生産量(2 個 品目は 生産額)을 指數(1977 年=100) 또는 倍率의 形態로

表現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0대 展望目標 品目이라는 目標가 達成되었는지 아닌지 分明하지가 않다. 그러나 目標와의 對比에는 石炭, 化學肥料, 시멘트, 織物, 水産物 외에도 化學纖維, 合成樹脂 등은 目標를 達成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計劃發表時에는 目標가 提示되지 않았던 自動車, 採炭機, 掘削機, 食料, 嗜好品, 文化·日用品 등은 最近에 와서 힘을 들이고 있는 品目 또는 成績이 좋은 品目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電力, 鐵鋼, 非鐵金屬 이외에도 實績을 提示하지 않은 鐵鑛石, 鐵鋼2次製品, 農藥, 基礎化學原料, 醫藥品, 砂糖, 종이 등의 生産은 期待에 어긋나 伸張하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工業總生産額의 增加率は 2.2倍이나 앞에 말한 「重工業製品의 生産量」으로 表示된 17品目中 2.2倍 이상의 實績을 올린 것은 採炭機, 掘削機, 合成樹脂, 水産物, 食料, 嗜好品, 文化·日用品의 6個 品目に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重大한 事實이다. 生産額과 生産量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나 各品目の 價格이나 工業總生産額에서 점유하는 比重을 考慮할 때도 다른 11個 品目이 2.2倍에 훨씬 못미치는 增加率을 보인것은 무엇때문인가. 여기에서 舉論되지 않은 많은 品目の 增加率이 平均值인 2.2倍 보다 훨씬 높은 것일까. 아니면 價格의 引上에 의해 生産額의 增加率이 生産量의 增加率을 上廻한 것인가. 理解하기 힘든 점이며 工業總生産額이 2.2倍로 되었다고 하는 發表에 疑問이 간다.

[農 業]

農業部門에서는 最大의 課題였던 穀物生産이 1,000萬톤이란 目標를 達成했다고 한다. 이것은 第2次 7個年計劃의 가장 重要한 成果의 하나라고 한다. 穀物生産目標 達成의 뉴스는 84년 12월 이미 發表되었으며 第2次 7個年計劃의 生産目標 達成이 85년 2월의 中央統計局 以前에 言及된 唯一한 것이다.

穀物生産은 1977년의 850萬톤에서 84년에 1,000萬톤으로 이 7年間 平均 2.3

% 増大한 것이 된다. 穀物の 内容이 發表되지 않았기 때문에 増産의 要因 등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은 것이 많다. 또한 發表數字가 實績에 대해서는 計劃期間中 50 萬噸 單位의 끝자리 數인 것으로 보아 대체적인 統計임을 알 수가 있다. 단, 穀物生産이 추세적으로 増大하고 있음은 분명 하며 오늘날 世界의 穀物生産動向과 比較할 때 北韓의 穀物生産増大는 評價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도 7年間中 生産實數가 發表된 것은 1977 年, 79 年, 82 年의 겨우 3回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生産의 變動이 컸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氣候條件에 影響받는 면이 크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穀物生産의 發表數字와 非公式的으로 전해지는 食糧需給事情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 輸出이나 備蓄量을 감안하더라도 疑問이 남으며 穀物生産의 發表數字를 훨씬 에누리 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對外貿易]

第2次 7 個年計劃에는 對外貿易의 目標數字나 結果는 一切 發表되지 않았으며 貿易統計도 公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對外貿易狀況은 相對國의 貿易統計로부터 推定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1984 年의 貿易額은 輸出 12.2 億弗, 輸入 14.1 億弗 合計 26.3 億弗이 되며 實際로는 이것보다 1~2 億弗 많은 정도로 생각된다. 70 년대 이후 거의 每年 赤字(入超)였으며 이것이 對外債務로 累積되고 있다고 推定된다. 貿易赤字의 累積은 70 년대 半까지가 20 億弗, 그 後 現在까지 또한 20 億弗이 되지만 이 가운데 返濟한 것이나 免除된 것도 있기 때문에 殘存債務는 크게 보아 30 億弗 정도로 생각된다.

이 累積債務額은 絕對額으로서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年間 輸出規模의 2.5 倍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단한 것이다(韓國의 경우 約 1.5 倍). 外貨不足이 심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國民生活]

第2次 7個年計劃의 基本課題의 하나는 「人民生活을 더욱 向上시키는」 것이었다. 結果는 어떤가. 우선 國民生活向上의 資源이 되는 國民所得의 增加는 目標 1.9 倍에 대해 實績 1.8 倍로서 目標에는 도달되지 않았으나 대단한 伸張을 보였다. 다음 問題는 이것의 配分이다. 勞働者·事務員의 實質所得은 給料 이외에 國家의 勤勞者에 대한 追加的 惠澤 등을 包含해서 期間中 1.6 倍 增加했고 農民의 實質所得은 1.4 倍 增加했다. 이것을 6個年計劃의 實績과 比較하면 그 伸張率이 훨씬 鈍化하고 있다.

住宅建設에 있어서는 第2次 7個年計劃의 實績은 수십만 世帶로 되어 있어 6個年計劃의 實績 88 萬 6,000 世帶와 正確한 比較는 할수 없으나 이것도 年平均해 보면 大分히 第2次 7個年計劃 쪽이 작다고 생각된다. 또한 每年 20 ~ 30 萬戶 建設이라는 目標과 對比해 보면 半이하의 實績임이 분명하다. 平壤市를 비롯해서 地方都市에서도 住宅建設이 오늘도 상당히 進陞되고 있는게 事實이나 需要에 비추어 볼때 供給이 아직 훨씬 不足되고 있는것 같다. 住宅의 경우 量뿐 아니라 質의 면에서도 國民의 要求水準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넓은 아파트를 供給해야 한다는 점에서 數字를 多少 犧牲했다는 면이 없지않다. 그러나 資料不足이 基本理由일 것이다. 其他 教育이나 保健面에서의 成果가 전해지고 있으나 全般的으로 볼때 國民生活의 關聯指標의 伸張은 第2次 7個年計劃 쪽이 6個年計劃 보다 적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工業總生産額이나 國家歲入의 增加率이 鈍化한 事實로 說明할수가 있으나 다른 要因으로는 國防費 負擔의 加重, 非生産的 建設投資의 增大 등도 고려할수있다.

한편 國民 消費生活의 總體的인 水準을 規定하는 小賣商品流通額(國家의 給食事業을 包含)은 1.9 倍 增加하는 目標를 達成했다. 84 年 4 月 金日成의 演說에서 國民生活向上을 위해 食料나 輕工業製品을 增産할 것을 強調, 84 년에는 金正日 指導活動과 결부해서 「輕工業革命」, 「서비스革命」의 推進을 부르

짓게끔 되었다. 또한 國營工場에 設置된 日用品 作業班이 남은 資材 등을 活用해서 日用品을 生産하고 直賣店을 통해 市民에게 販賣하는 組織이나 地域의 主婦 등을 組織한 家內作業班이 日用品을 生産해서 바로 直賣店을 통해 販賣하는 시스템도 本格化 했다. 이러한 努力이 效果를 보아 小賣商品流通額의 상당한 增大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民生活의 消費水準은 韓國과 比較할때 상당한 隔差가 있고 量과 質 兩面에서 北韓經濟의 主 弱點의 하나로 되어 있다.

Ⅲ. 經濟開放化의 現狀과 展望

1. 開放化의 現狀

1984 년의 合營法 施行以後 北韓의 對外經濟事業部와 그 산하의 商社를 中心으로 合營事業을 試圖했으나 프랑스 建設會社와의 호텔建設, 在日朝鮮人 商社와의 外貨專用百貨店 以外에는 눈에 뜨일만한 것은 實現되고 있지 않다. 이 외에는 몇개의 合營事業이 合意되었다고 하는 中國新聞의 報道가 있었으나 公式적으로는 確認되지 않고 疑問스러운 狀態이다.

中國의 경우에도 1978 년 對外經濟開放 方針이 세워지고 다음해 合營企業法이 施行되었지만 實際로 움직이기 시작하기까지는 數年이 걸렸다. 北韓이 合營法을 制定한지 얼마안되는 現在 合營事業이 아직 制限된 狀態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日本을 包含해 西方側 諸國에게 貿易代金 未拂問題가 있어 아무래도 合營이 問題가 안된다 하는 霧圍氣가 民間에는 있다.

그러나 北韓側은 合營法 制定以後 85 년 3 월에 合營會社所得稅法, 外國人所得稅法, 또한 合營法 施行細則을 公表하는 등 法的 整備를 서두르고 또한 日本과의 貿易代金 未拂問題에 대해서는 가까운 將來에 解決,(第4次 延期協定을 맺자는 意味

인지)를 示唆하는 등 合作事業 推進에 힘을 쏟고 있다.

2. 開放化의 展望

北韓의 經濟開放化의 展望을 생각할때 東아시아의 國際情勢(특히 美·蘇關係)나 南北對話의 行方이 큰 規制要因이 된다. 여기서는 美·蘇間에 특별한 變化가 없고 南北對話도 계속 漸進的으로 進行된다는 假定下에서 北韓의 經濟開發促進要因과 制約要因을 比較檢討해 보자.

經濟開放을 促進하는 要因은 우선 첫째 經濟現實에 있다. 技術과 資本을 導入하고 合作企業에서 生産한 製品을 輸出해서 外貨를 벌고 싶은 것이다. 合作事業에 따라 外國에서 流入하는 「危險한」 思想이나 文化를 北韓이 두려워 하는것은 물론이며 이것이 開放化를 制約하는 가장 큰 國內要因이다. 指導者나 政治體制가 대단히 變化한 中國과 달리 北韓에서는 經濟의 論理가 충돌할 可能性이 크다.

다만 이때 經濟不振을 打開하고자 하는 論理는 단순히 經濟的 論理에 그치지 않고 南北의 對抗·競爭이라고 하는 政治的 論理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注意해야 할 것이다. 특히 南北의 對話, 交流가 進展됨에 따라 北韓이 經濟面에서 韓國을 따라잡아야 할 必要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世代交替의 進行에서 西方側의 技術이나 어느 정도까지의 生活 스타일에 대해서도 以前보다는 積極的으로 受容하려 할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貿易代金未拂問題나 西方側으로서는 合作의 利點에 대해 北韓이 어느 程度 誠意를 보이느냐 하는 實務的인 問題가 의외로 要點이 될 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이 點에서 北韓은 國際的 商慣習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것이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北韓의 對外經濟開放化는 漸進的으로 進行될 것으로 생각된다. 中國을 비롯해 社會主義 諸國이 經濟開放의 潮流속에 있고 若干의 經濟改革을

包摂한 經濟活性化의 一環으로서 對外開放은 不可缺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의 政治體制가 當分간 크게 變化할 可能性이 없는 이상 스스로의 開放에는 限界가 있고 部分的인 것에 그칠수 밖에 없을것이다. 또한 日本을 위시한 西方側 主要國과의 國交가 없기 때문에 2重課稅防止條約을 맺을수 없어서 合作事業의 實際的인 面에서 制約이 크다. 이 점에서 北韓이 앞으로 西方諸國에 대해 어떠한 接近을 할 것인지 注目된다.

IV. 結 論

北韓의 經濟開放化는 韓半島周邊의 安全保障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볼때 어떠한 意味를 갖는가.

첫째로 經濟開放化로 多少間 經濟不振이 打開된다면 물론 이것은 北韓의 軍事力의 基盤을 어느程度 強化시킨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게 事實이나 한편 西方側으로부터의 技術·資本導入의 파이프가 생겨 經濟의 水準이 上昇하는 것은 긴 눈으로 볼때 北韓의 對外政策의 柔軟化를 促求하는 要素가 될것이다.

둘째로 經濟開放은 北韓으로 하여금 極端的인 對蘇 傾斜로 가는것을 防止하는 意味가 있다. 85년에는 北韓의 對蘇貿易 특히 輸入이 急增하고 있는데 北韓은 對蘇貿易의 均衡을 찾기 위해서도 西方側으로부터의 輸出産業을 必要로 하고 있다.

여하튼 韓半島의 安定化를 위해서는 實質的인 交叉接觸이 有効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 韓國이 日本의 對北韓政策에 警戒心을 갖고 있다는 事實에 留意하지 않으면 안되긴 하지만 韓國과 中國의 貿易額이 85년에는 6億弗을 넘어 日本과 北韓의 貿易額(4億弗程度)을 이미 넘어섰다는 事實은 注目되는 일이다. 日本과 北韓과의 貿易關係의 擴大가 韓國과 中國과의 貿易關係 擴大를 한층 더 促進시키기 위해서도 研究하지 않으면 안될 時期에 이른것 같다.

第 7 章 北韓의 姿勢變化와 日本의 安全保障

< 要 約 >

最近 나타나기 시작한 北韓의 基本路線의 變化는 그 內政·外交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우선 1983년 10월의 버마事件 이후 北韓은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지금까지의 「對南强硬路線」으로부터 「柔軟路線」으로 轉換했다. 그래서 84년 9월부터는 南北對話가 再開되기에 이르렀다. 둘째로 內政面에 있어서도 從來의 閉鎖的 姿勢로부터 새로운 「開放路線」으로 轉換을 試圖하기에 이르렀다. 外交面에서는 中蘇 兩國과의 關係가 近來 한층더 緊密하게 되었음을 指摘할 수 있다. 또한 美日 兩國에 대해서도 從來 接觸交流의 對象에서 除外되었던 部分까지도 對象에 넣어 이를 넓히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姿勢變化를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두개의 對立된 見解가 存在한다. 첫째 것은 北韓의 姿勢變化를 表面的 내지 戰術的 變化로 보는 것이며 두번째 見解는 그것을 보다 基本的·戰略的인 變化로 보는 立場이다.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한쪽에 決定的으로 加擔할 수 있는 材料를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

韓半島에 대한 日本의 立場은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에 의해 강력한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南北對話의 進展에 期待를 걸고 이에 相應하는 環境을 만들기 위해 무언가 貢獻할 수 있는 役割이 있다면 그것을 遂行할 준비에 게을러서는 안되겠다. 日本으로서 北韓의 姿勢에 대해 최소한 바람직한 것은 韓國의 存在를 公式적으로 認定하고 對南强硬路線을 버리고 또한 中蘇 兩國에 대해 自主性を 堅持하면서 國內의 政治的 安定을 維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 進行中인 것으로 보이는 北韓의 姿勢變化가 이러한 方向으로 가는지 어떤지는 아직 判斷할 段

階가 아니다.

.....

I. 序言 -本 共同研究의 目的-

우리들의 共同研究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에 대한 本格的 研究 - 적어도 그 基盤構築을 한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北韓에 대해서는 從來 여러가지 要因이 우리나라에서의 研究의 本格化를 妨害해 왔다. 이것은 日本에게만 該當되는 要因은 아니었으나 여하튼 情報·資料의 不足과 北韓의 강한 閉鎖性이 거의 決定的이었다고 할만한 研究沮害要因이 되고 있었다.

둘째로는 北韓의 銳利하고 徹底한 이데올로기와 體制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이데올로기나 體制의 相違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相互理解와 相互交流를 決定的으로 妨害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中國이나 蘇聯과의 關係에 대한 歷史는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北韓과의 關係에 대해서도 이 原則이 어떻게 하든 適用되기를 바라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經緯에 관한한 솔직히 말해서 北韓의 姿勢는 西方側의 尺度로 한다면 물론이고 世界一般의 平均值로 말해도 지나치게 嚴格하고 偏狹한 것이 있다.

그 결과 北韓에 대해 얘기하기를 要求받은 사람은 그 體制와 이데올로기를 一方의 禮讚하거나 역으로 그것을 極端的으로 批判하는 兩者로 나누어져 平衡 感覺을 가지고 事實에 根據하여 事物을 보려는 立場을 가진 者는 - 우리를 包含해서 - 平壤에 대한 얘기를 可能的 限 피하려 하는 傾向이 있었다. 이러한 狀況은 우리뿐 아니라 平壤에게도 不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과 對照的인 것으로는 平壤의 이데올로기나 體制評價에 관한 소위 「轉向者」의 發言이 많다. 우리들은 轉向을 無條件 非難하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치게 露骨的인 轉向者의 發言은 반드시 믿을만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立場은 結局 우리들처럼 自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諸要因은 앞으로도 크거나 작거나 平壤研究의 指標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事態라는 것은 없는 법이다. 平壤의 硬直된 姿勢에도 이 1~2年 사이 상당한 柔軟化의 徵兆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만일 事實이라고 한다면 그 變化의 實相과 限界를 찾으려는 努力을 지금 다시 한번 始作해야 할 것이다. 레이건 - 고르바초프 頂上會談이 열리고 (1985년 11월) 세바르드나제 訪日 (1986년 1월)이 이루어졌다고 곧바로 蘇聯의 「變化」를 크게 다루는 경솔하고 성급한 態度는 우리들이 취할 바가 아니다. 北韓이라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對象에 대해 성급히 結論을 내지말고 慎重하게 「새로운 視角」을 試圖하고자 한 것이 本研究가 意圖한 바이다.

II. 北韓의 姿勢變化

北韓이 金日成 體制下에서 長期間 취해왔던 基本路線이 最近에 와서 變化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 그 「變化」의 性格과 程度에 대해서는 다음에 說明할 對立된 見解가 있다 하더라도 - 南北關係에만 그치지 않고 北韓의 內政·外交에까지도 널리 미치고 있는 것이 그 特徵이다. 그 變化 가운데 우선 첫째로 꼽지 않을 수 없는 것이 韓國에 대한 姿勢이다.

1983년 10월의 랑군事件 이후 北韓은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그때까지의 「對南 强硬路線」으로부터 「柔軟路線」으로 轉換했다. 소위 (北韓·美·韓) 「3者會談」 提案도 이 한 例로서 84년 1월 北韓은 北韓·美 2者會談을 固執하는 態度를 바

꾸어 韓國을 包含한 「3者會談」을 美·韓 兩國에 提案한 것이다. 그러나 이 提案은 원래 梁君事件을 前後해서 中國政府를 통하여 非公式的으로 美國에 傳達되었다는 경위도 있었고 또한 그 후에도 韓國은 自國의 存在가 北韓·美 關係에로 가는, 말하자면 자신이 2次的 參加로 취급되는게 아닌가 하는 危懼心을 가져 「3者會談」 보다는 南北會談 쪽을 강하게 主張했다.

그리하여 1984년 9월 韓國 中部를 強襲한 大水害에 대한 北韓의 救護物資提供을 機會로 南北韓間에는 對話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1972년 7월 4일의 南北共同聲明을 내게한 南北會談으로부터 따져서 놀랍게도 제 4 라운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나 第3라운드까지의 經過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言及을 省略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北韓으로부터의 이 援助物資는 內容上으로는 쌀 7,200 톤, 시멘트 10 만톤, 옷감 50 만미터, 醫藥品 759 상자 推定合計金額 30 억엔 정도의 것이나 종래 南北間에 物資交流가 一切 없었다는 狀況을 생각하면 그것이 內外에 준 衝擊의 크기는 想像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韓國側으로는 그것이 北側의 宣傳攻勢의 一環이라는 不信感을 떨쳐 버리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南과의 共存을 바라는 北의 새로운 和解信號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받아들여려는 傾向이 있었다고 해서 無理한 말은 아닐 것이다.

여하튼 이것을 契機로 해서 赤十字會談, 經濟會談을, 말하자면 차의 두바퀴 같은 形態로 南北對話의 기운이 具體化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외에도 國會會談을 위한 豫備接觸이 85년 7월에 시작되었고 또한 9월에는 離散家族과 藝術團의 相互交換까지도 實現했다. 또한 最近에는 全斗煥大統領이 主張해 온 南北 最高首腦會談의 開催를 받아들이는 뜻을 金日成이 明言했다는 事實도 있다.

둘째로 北韓의 內政面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나라는 10餘年間 金日成으로부터 金正日에로의 權力世襲이라고 하는 커다란 課題를 안고 왔으며 이것은 一般的으로

는 對內的으로도 또한 中國·蘇聯들과의 對外關係에 있어서도 承認을 얻어 安定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金正日에게 金日成이 보인것 같은 카리스마가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는 바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現實적으로 金日成以後世代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大分히 不安定 要因을 想定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의문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金父子體制는 權力의 維持, 繼承이라는 觀點에서 그 世襲을 正當化 하기 에 충분한 名分을 創造할 必要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平壤政府는 새로운 政策開發의 必要性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1984년 9월에 發表된 合營法(合併法)은 日本, 美國, 其他 西方側 資本主義諸國의 企業과 合作을 노린 것으로 內外的 注目을 받았으나 그것도 결국은 從來 北韓의 閉鎖的 路線의 限界를 새로운 開放路線에 의해 活性化 시켜 보려는 試圖의 一端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이미 數年來, 대담한 開放經濟를 취해서 착착 成果를 올리고 있는 中國을 본받아 北韓「人民生活의 向上」에 새로운 刺戟을 준다고 하는 姿勢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세계로 外交面의 變化에 대해 말한다면 北韓에게 安全保障上 重要的한 中蘇 兩國과의 關係가 近年에 와서 보다 緊密하게 되었음을 指摘할 수가 있다.

中國과의 사이에는 1983년 4월에 鄧小平, 胡耀邦 兩首腦가 北韓을 갑자기 訪問했다고 하는 事實이 傳해지고 있고 또한 金正日의 訪中(83년 6월), 그리하여 「3者會談」提案에 대한 中國의 積極的 支持表明등은 이러한 中·北韓關係 展開의 證據라고 생각된다.

한편 또하나 注目할만한 變化는 平壤과 모스크바 關係의 급격한 改善이다. 84년 5월 金日成이 24년만에 蘇聯, 東歐를 訪問한 이래 蘇聯·北韓關係 進展에는 눈부신바가 있다. 85년 8월의 「朝鮮解放 40周年記念」行事に 蘇聯이 아리에프第

1 副首相 以下 大型의 黨代表團을 北韓에 派遣한 일, 또한 昨年 6월 이후 蘇聯이 MIG-23이나 새로운 對空미사일등을 北韓에 提供하기 시작한 일등은 이것을 여실히 證明해 주고 있다.

外交面에서의 變化는 社會主義諸國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北韓은 요 1~2년 내 日本에 대해서도 美國에 대해서도 從來에는 接觸의 對象으로 삼지 않았던 部分까지도 그 손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北韓의 美國에 대한 姿勢變化 가운데 가장 注目할만한 것의 하나는 駐韓美軍撤收問題일 것이다. 지금까지 北韓은 駐韓美軍의 撤收를 美國과의 對話의 前提條件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84년 5월 金永南 外相은 平壤을 訪問한 美國人 저널리스트에 대해 駐韓美軍의 撤收를 「3者會談」實現을 위한 前提條件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言明했다.

또한 작년가을 北韓을 訪問한 日本의 南海 電鐵社長에게 金日成은 日本 企業과의 合作을 積極적으로 提案한바 있다.

以上 概觀한 바와 같이 北韓의 姿勢變化를 本 報告書의 各章에서는 아래와 같이 파헤쳐 檢討했다. 우선 第1章과 第2章에서는 北韓의 內政的 變化, 특히 金正日 後繼體制의 形成과 그 展望을 檢討 分析했다. 第3章에서는 北韓과 中蘇 兩國關係의 緊密化에 메스를 가했고 다음 第4章에서는 推定이 가장 어려우나 北韓을 둘러싸고 있는 軍事情勢의 解明을 試圖했다. 第5章에서는 南北韓關係의 將來展望을 多角的으로 吟味했고 第6章에서는 앞으로 점차 注目을 끌고 있는 北韓의 開放政策에 焦點을 맞추었다.

Ⅲ. 두개의 見解

北韓의 姿勢變化를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개의 서로 對立되는 見

解가 있는 것이 오늘의 現象이다. 첫째의 見解는 北韓의 姿勢變化는 表面的 내지 戰術的인 것에 불과한 것이며 두번째 見解는 北의 變化는 보다 基本的이며 戰略的인 變化라는 점을 重視하는 立場이다.

첫째의 消極論 내지 慎重論은 여러가지 根據를 갖고 있다. 昨年과 今年에 北韓은 韓美「팀 스피리트」演習의 實施를 理由로 對南對話를 中斷하고 있으며 또한 經濟會談이나 離散家族相互訪問問題에 있어서도 그 후의 後續措置에 대한 北의 姿勢에는 積極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南北會談의 重要性을 계속 指摘하면서도 北韓은 全斗煥大統領에 대한 격렬한 非難이나 韓國의 民主化鬭爭에 대한 支援을 연일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다. 最近의 北韓·蘇聯 接近과 蘇聯에 의한 軍事援助의 擴大는 韓國에게는 당연히 하나의 두려움의 材料가 될 것이다.

또한 北韓의 이데올로기적 立場에는 전혀 變化가 보이지 않는다는 事實도 慎重論의 有力한 根據가 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北韓은 金日成이 創設한 소위 主體思想을 國家理念의 基本으로 삼아 그것을 土臺로 해서 最高의 國家的 課題로서 社會主義革命의 完遂와 南北統一의 達成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다. 또한 이에 呼應해서 金日成과 金正日에 대한 이상할 程度의 個人崇拜熱은 지금에 이르러 極限에 이른 감이 있다.

이러한 金父子에 의한 絕對主義的, 全體主義的 體制下에서 統一만을 생각해 온 北韓이 지금 새삼스레 韓國을 참으로 對等한 交渉相對로 보는 立場을 받아 드리는 것은 결코 容易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見解로 본다면 北의 對南路線의 基本的·戰略的 變化의 可能性에 커다란 期待를 갖는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結論이 나온다. 앞서 콜롬비아大學 東아시아研究所를 訪問하여 韓國問題를 論한 美國務省 東아시아局 韓國課長 하리엣·아이숍 女史의 見解 역시 北의 變化는 戰術的인 것이지 戰略的인 것으로는 解釋할 수 없다는 立場이었다.

한편 두번째 見解 즉 北韓의 基本的 내지 戰略的 變化에 대한 肯定論 내지 積極論의 하나의 根據가 權力的 世襲이라고 하는 困難한 作業을 遂行하기 위해 이 나라가 새로운 政策을 必要로 한다는 事實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說明한 바 있다. 北韓의 慢性的인 經濟不振이 드디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려 韓國과의 사이에 넓어져만 가는 經濟隔差를 더 이상 放置할 수 없는 段階에 왔다고 하는 認識에서 나온 것이다. 北이 長期間 취해오던 이데올로기와 勞動強化에 의한 經濟發展路線이 여러가지 意味에서 지금 그 限界에 到達했다는 見解이다.

北韓의 經濟를 活性化시켜 새로운 發展의 軌道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앞에서 애기한 84년 9월의 合營法이 보이고 있는 바 門戶開放의 新政策으로 바꾸어 日美 등 西方側으로부터의 資本이나 技術을 導入하는 길 이외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이 경우 南과의 對決과 緊張을 계속한 채 西方側 諸國에 대한 開放政策을 취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서울에서는 今年 아시아競技大會가 열리고 88년에는 올림픽이 豫定되고 있듯이 南北兩國 사이의 國際的 受容度에도 顯격한 差異가 생기고 있다. 이것 역시 北韓의 獨善的·閉鎖的 姿勢의 蓄積의 所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面에서의 南과의 隔差를 縮小하는 作業 역시 戰術的·表面的인 變化로서가 아니고 戰略的 變化에 의해서만 비로서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들은 스탈린, 毛澤東이라는 카리스마의 죽음과 그것에 뒤따라온 神話의 崩壞를 뚜렷이 보아왔다. 規模의 大小에 關係없이 같은 일이 金日成이라고 하는 카리스마의 消滅에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아무리 唯一思想體系를 強調하고 革命傳統의 繼承을 誇示한다고 하더라도 神話의 崩壞가 드디어는 온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革命의 世代로부터 다음 世代에로의 世代交代라고 하는 이것 역시 不可避하며 심각한 問題로 存在하고 있다. 이것에 맞추기 위해 平壤은 舊體制에 代身할 新體制를 必要로 한다. 낡은 支配

者는 近年「主體思想塔」이나「凱旋門」등 거대한 記念碑的 建造物을 세워 舊體制의 偉大함과 榮光을 國民에게 永久히 印象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歷史的 事例가 말해주듯이 이것은 이른바 하나의 絕對主義의 「끝의 시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른다.

以上 北韓의 變化에 대한 積極論과 消極論, 樂觀論과 悲觀論의 兩論에 대해 說明했지만 아직 그 어느쪽에 決定的으로 加擔할 수 있는 材料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決定的인 判斷을 내리는 時期를 아직은 조금 늦춰두고 싶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것만은 附言해 둘 必要가 있을 것이다. 즉 韓國政府 소식통이 확실히 말하듯이 北의 變化가 戰術的 은폐에 불과하다는 斷定에는 여러가지 根據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바 이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固定觀念的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들은 柔軟한 理解의 餘地를 항상 남겨두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여하한 北의 硬直姿勢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어떤 形態로든 變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同時에 새로운 南北對話의 展望에 대해서 樂觀的으로 흘러버리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주의해야만 한다. 南北間의 激烈한 對立과 反目的 長期化에는 不幸하게도 그 나름대로의 깊은 要因이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要因들이 効率的으로 除去되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時時刻刻의 南北의 應酬에 一喜一悲하기에 앞서 이 冷嚴한 事實을 충분히 생각해야만 한다.

IV. 結論 - 日本의 役割 -

以上 說明했듯이 北韓의 姿勢變化에 대한 評價는 여러가지로 갈린다고 하더라도 政權의 世襲的 移行問題와 經濟改革問題라고 하는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二個의

重大한 課題속에서 이 姿勢變化가 일어나고 있다는 事實에는 충분히 注意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의 對外的 課題에 대해서 솔직히 말한다면 그 目標은 어떤 意味에서 韓國과의 對話交流 以上으로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의 開拓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北韓의 새로운 世代에 있어서의 새로운 飛躍發展을 위한 열쇠이며 또한 그러한 發展없이는 效果的인 南北對話의 結實도 期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韓半島에 대한 日本의 立場은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에 의해 강한 國益을 豫想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美國이나 中國과 基本的으로 一致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對話의 進展에 期待를 걸고 거기에 適合한 環境을 만들기에 무언가 貢獻할 수 있는 役割이 있다면 그것을 實行할 準備를 갖춘다는 姿勢에 있어서도 日本은 美·中 兩國과 共通點을 갖고 있다.

安全保障分野에 있어서 日·美間에는 1978년 「日美防衛協力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策定되었고 그때까지는 抽象적으로 흘러온 日美防衛協力體制가 그 이후 具體적으로 充實化 돼오고 있다. 이것은 韓半島의 將來에 있어 豫測 못할 事態에 대해 間接적으로나마 그것을 豫防하기 위해 크게 寄與하는 것이다.

한편 經濟領域에 있어서는 日本은 韓國에 대해 5年間 40億弗이라고 하는 戰略的 配慮를 담은 經濟協力の 姿勢를 취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은 韓國의 安全 및 韓半島의 安定에 寄與하려 하는 配慮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韓日兩國의 經濟關係는 앞으로 지금까지의 援助나 協力이라고 하는 問題에 代置하여 競爭과 對立이라고 하는 새로운 次元의 問題가 여러가지로 나타나리라고 豫想된다.

마지막으로 日本과 北韓과에 대해서인데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政策의 核心은 말할것도 없이 韓國과의 關係이다. 그것이 中曾根·全斗煥時代에 이르러 한층 더 鞏固해졌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이다. 이 日本의 基本的 姿勢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日本은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南北韓間의 關係改善에 貢獻하고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促進한다면 北韓과의 實務的 關係를 擴大하는 것을 결코 辭讓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이미 平壤과의 사이에 貿易民間漁業協定과 그 밖에 소위 「野黨外交」 등을 갖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유니버시아드 神戶大會에 參加하는 北韓選手團이 平壤에서 東京으로 처음으로 直行으로 날아온 일도 있다.

예컨대 東京 - 서울 - 北京便과 北京 - 平壤 - 東京便을 相互承認하거나 日・北韓民間漁業協定 같은 것이 韓・中間에도 되는 날이 오는 것이 결코 꿈이 아니라고 日本은 생각하고 있다.

1960 년대에 나는 世界에 앞서서 南北韓의 소위 「交叉承認」 構想을 提唱하였다. 自盡自讚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 先見性이 지나쳤기 때문에 當時에는 많은 贊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에도 그것이 複雜한 韓半島에 우선 平和와 安定을 뿌리내리게 해서 南北間의 對話와 交渉을 本格化 시키기 위해 基本的으로 가장 公平妥當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韓半島內外의 情勢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바로 이 目標을 實行할 수 있을 정도로 成熟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交叉承認을 바로 實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交叉承認」의 實現을 여러가지 角度에서 研究할 餘地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南北韓도, 韓半島를 둘러싼 諸大國도 現狀의 급격한 變化를 求한 結果, 韓半島에 새로운 紛爭이나 不安定을 가져오는 것을 結局은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認識에 있어서는 蘇聯 역시 美・中・日 3國과 基本的으로는 一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日本에게 있어 지금으로서 最小限의 바람직한 北韓의 姿勢에 대해 말한다면 韓國의 存在를 公式으로 認定하고 對南強硬路線을 明確히 버리고 아울러 中蘇 兩國에 대해 自主성을 건지하면서 國內의 政治的 安定을 維持하는 것이다. 현재 進行中인 것으로 보이는 北韓의 姿勢變化가 이 方向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닌

지는 아직 判斷할 段階는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나리오로서는

- (1) 柔軟路線으로의 明確한 轉換
- (2) 現狀維持
- (3) 柔軟路線과 強硬路線과의 併用
- (4) 柔軟路線의 포기과 強硬路線에로의 복귀

이 네개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金日成의 리더쉽下에서, 또한 金正日後繼體制下에서 이 시나리오 가운데 어느 것이 有力해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당분간 熟考할 時間을 갖기로 하자.

